

욕망의 모노리스, 김정은 집권 10년 북한도시변화



욕망의 모노리스, 김정은 집권 10년 북한도시변화



2022 북한도시포럼 발표집

욕망의 모노리스, 김정은 집권 10년 북한도시변화

발행일	2022년 12월 30일
저자	홍민, 황진태, 김혁, 박소혜, 안진희, 권주현
발행인	고유환
발행처	통일연구원
편집인	북한연구실장
등록	제2-02361호 (97.4.23)
주소	(06578)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
전화	(대표) 02-2023-8000 (FAX) 02-2023-8296
홈페이지	https://www.kinu.or.kr
기획·디자인	명문인쇄공사, 민프로젝트
인쇄처	명문인쇄공사 (02-2079-9200)
ISBN	979-11-6589-131-2 93340
가격	비매품

© 통일연구원, 2022

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정부간행물판매센터: 매장(02-734-6818), 사무실(02-394-0337)

욕망의 모노리스, 김정은 집권 10년 북한도시변화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CONTENTS

세션1. ‘건설의 대변영기’, 북한의 건설 붐과 도시 변화 7

발표 1 김정은 집권 10년, 주요 대상건설 동향 | 권주현 9

- I. 연구 개요 9
- II. 10년 간 동향 분석 10
- III. 연차별 특징 분석 16
- IV. 김정은 집권 10년 건설 사업 특징 및 특이점 21

발표 2 김정은 집권 10년, 주요 대상건설 동향 | 김혁 24

- I. 들어가며 24
- II. 김정은 체제의 지방건설 정책 25
- III. 김정은 체제의 개발구와 분야별 건설현황 26
- IV. 김정은 체제의 지방도시 건설과 시장화 35
- V. 나오며 54

세션2. ‘도시담론과 이데올로기로 본 김정은 집권 10년 57

발표 1 김정은 집권 10년, 북한의 도시건설 담론 | 박소혜 59

- I. 서론 59
- II. 김정은 정권의 통치이념과 목표 62
- III. 김정은 시대 도시건설 담론의 전개 67
- IV. 도시건설 담론의 실체로서 도시건설 사례 72
- V. 결론 82

발표 2 “도시부럽지 않은”: 김정은 집권 10년, ‘작은’ 도시 이데올로기의 출현 | 황진태 .. 88

- I. 서론 88
- II. “도시 부럽지 않은”의 시공간적 분석 88
- III. 결론 97

세션3. 도시 스카이라인과 군사지리의 블랙박스 열기 101

발표 1 김정은 시대의 평양, 평해튼, 그리고 평해트니즘(Pyonghattanism) | 안진희 103

- I. 들어가며 103
- II. 평양에 구현된 시대별 권력 106
- III. 맨해튼-반맨해튼 스펙트럼 111
- IV. 평해튼의 조건들 114
- V. 평해트니즘의 미래 120

발표 2 군사화 경관으로 본 한반도 군사지리와 공간적 스펙터클 | 홍민 124

- I. 하나의 창, 문제적 무기와 한반도 124
- II. 적대적 무기체계와 북한의 당군산복합체 130
- III. 무기와 (탈)냉전, 그리고 분단 131
- IV. 무기의 사회-기술적 시스템 137
- V. ‘국가안보’의 산업화와 사회-기술적 네트워크 140
- VI. 결론 145

본 자료집은 2022년 12월 14일 통일연구원에서 개최한 ‘2022 북한도시포럼’의 발표 내용을 정리한 자료집입니다.
‘2022 북한도시포럼’ 발표 영상은 통일연구원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션1

‘건설의 대변영기’, 북한의 건설 붐과 도시 변화

발표1

김정은 집권 10년, 주요 대상건설 동향
권주현 (통일연구원)

발표2

김정은시대 10년, 지방도시 건설동향과 특징
김 혁 (한국농어촌공사)



발표1 김정은 집권 10년, 주요 대상건설 동향

권주현(통일연구원)

I. 연구 개요

- 본고는 김정은 집권 10년간의 건설동향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연구기간은 김정은이 노동당 제1비서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 추대된 2012년 4월부터 2022년 3월까지로 설정함. 이에 통계적 편의성을 위해 4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를 한 단위(연차) 설정하고, 김정은 집권 1년차부터 10년차까지의 변화를 살펴봄.
 - 연구방법은 노동신문(2012~2016년)과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에서 발간한 분기별 ‘북한 건설개발 동향’(2017~2022년)을 참고하여, 건설 사업이 보도된 일자, 사업(혹은 건물)명, 분야, 지역, 상태(건설중 혹은 완공), 시찰자를 정리, 분석¹⁾
 - ‘북한 건설개발 동향’의 경우 노동신문 뿐만 아니라 민주조선, 조선신보 등의 보도도 모두 포함하고 있으나, 연도별 총 언급된 건축물 수(중복 포함)의 큰 차이가 없으므로 자료수집대상 변경에 따른 통계적 편차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 분야 분류는 아래의 <표 1>과 같이 11가지로 진행하였으며, 건물이 세워졌는지를 기준으로 계상함. 단, 도로, 철도, 저수지, 간석지, 다리 등 ‘건축사업’보다는 ‘토목사업’으로 분류될 수 있는 것들은 제외함.

1) 본 연구는 2012~2016년에 발행한 『로동신문』 전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에서 2017년 1분기부터 2022년 1분기까지 발행한 『북한 건설·개발 동향』을 참고하여 작성. 각 기사 혹은 호수별 세부 각주는 생략.

〈표 1〉 건설동향 분야별 분류기준

분류 분야	세부 내용
공장/기업소	각종 공장, 기업소 전체
교육/연구	학교, 연구소, 도서관, 육아원, 애육원 등
농축수산업	농장, 수산사업소, 양어장, 양묘장, 닭공장 등 육고기 가공소 등
문화/생활시설	물놀이장, 유원지, 빙상장, 체육관 등
보건/복지/의료	병원, 양로원, 양생원, 보양원 등
살림집	아파트, 문화주택 등 거주용 건물 전체
상업	식당, 은덕원 등 상업시설, 호텔 등
인프라	공항, 역, 발전소, 정화장 등
정치	정치 사상 강화를 위한 기념관 및 사적관 등
지구개발	한 지역에서 전 분야에 걸쳐 종합적인 재건축을 진행하는 경우
피해복구사업	태풍 및 홍수피해 복구 지구

출처: 필자 작성.

- 김정은 집권 10년 간 진행된 건설사업을 시기별, 지역별, 분야별 등으로 분류 및 비교 분석하여 김정은 집권 시기 북한의 건설 동향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이를 통해 정책의 방향성 변화도 함께 고찰

II. 10년 간 동향 분석

- 2012년 4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총 3,502건의 신규 건설에 대한 언급이 있었으며, 중복된 장소를 제외하면 1,747건의 신규 건설이 보도됨.
 - 전체 보도 수 3,502건 중 완공된 건설사업은 1,065건으로 약 30%에 불과함.
 - 그 외 70%는 인적·물적 자원을 동원하고, 건설 노동자(주로 군인)를 독려시키기 위한 목적의 보도로, 북한의 건설사업은 공간의 창출, 경제 활성화의 의미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대중을 동원하고 결집시키고자 하는 목적이 있음.
 - 주요대상건설의 경우 착공식부터 건설 과정, 준공식 뿐만 아니라 완공 이후 이용 양상까지 여러 차례 보도하여 정권의 업적을 기리는 형태로 활용됨.
 - 또한, 건설 과정에 대한 보도는 단순 정보전달 보다도, 군인들의 노력을 치하하고, 자발적으로 건설 현장을 지원하는 대중들의 에피소드를 소개하면서 인민 동원에 활용됨.

○ 보도된 건설사업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인프라이며, 다음으로 농축수 산업, 공장/기업소, 교육/연구 순으로 나타남.

- 중복보도를 제외하면 교육/연구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며, 다음으로 공장/기업소, 농축수산업, 인프라, 문화/생활시설 순으로 나타남.
- 중복보도를 제외하면 인프라와 지구개발 사업의 비중이 현격히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많은 자원이 동원되어야하는 대형 사업일수록 중복기사가 많다는 것을 보여줌.

〈표 2〉 분야별 보도된 건설사업 수 및 비율

분야	공장/ 기업소	교육/ 연구	농축 수산업	문화/ 생활시설	보건/복지 /의료	살림집
보도된 건설사업 수	472 (13%)	471 (13%)	553 (16%)	422 (12%)	151 (4%)	188 (5%)
보도된 건설사업 수 (중복제외)	283 (16%)	331 (19%)	261 (15%)	197 (11%)	99 (6%)	142 (8%)
분야	상업	인프라	정치	지구 개발	피해 복구사업	합계
보도된 건설사업 수	78 (2%)	674 (19%)	80 (2%)	310 (9%)	103 (3%)	3,502
보도된 건설사업 수 (중복제외)	63 (4%)	187 (11%)	42 (2%)	112 (6%)	30 (2%)	1,747

출처: 필자 작성.

○ 10년 간 완공된 건축물의 수는 김정은 집권 5~6년차인 2016년 4월~2018년 3월 기간이 가장 많음.

- 김정은 집권 초기에는 보도된 건설 사업 중 완공된 건설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30% 불과한데, 이는 집권 초기 주요대상건설이 시작된 단계여서 자원동원을 목적으로 보도가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으로 볼 수 있음.
- 중복보도된 건설사업을 제외한 경우, 전반적으로 50~60%에 가까운 사업이 완공 보도가 이루어져 다년도에 걸쳐 진행하는 대형사업을 제외하고는 성과를 중심으로 보도된 것으로 보임.

〈표 3〉 김정은 집권연차별 완공보도된 건설 수 비율²⁾

집권연차	보도된 건설 수 (중복제외)	완공된 건설사 업 수	완공보도 비율 (중복제외)	집권연차	보도된 건설 수 (중복제외)	완공된 건설사 업 수	완공보도 비율 (중복제외)
1년차 (2012.4.~ 2013.3.)	285 (163)	104	36% (64%)	6년차 (2017.4.~ 2018.3.)	339 (293)	151	45% (52%)
2년차 (2013.4.~ 2014.3.)	461 (187)	93	20% (50%)	7년차 (2018.4.~ 2019.3.)	403 (303)	111	28% (37%)
3년차 (2014.4.~ 2015.3.)	379 (193)	91	24% (47%)	8년차 (2019.4.~ 2020.3.)	414 (276)	118	29% (43%)
4년차 (2015.4.~ 2016.3.)	193 (212)	85	23% (54%)	9년차 (2020.4.~ 2021.3.)	357 (220)	115	32% (52%)
5년차 (2016.4.~ 2017.3.)	325 (212)	140	43% (66%)	10년차 (2021.4.~ 2022.3.)	174 (117)	57	33% (59%)

출처: 필자 작성.

○ 2016년 5월 제7차 당대회 이후, 2017년 11월 핵무력 완성선언, 2018년 남·북·미 정상회담까지 김정은 집권 5~7년차는 북한의 대내외 정세가 빠르게 전환된 시기이며, 이러한 특징이 건설사업에도 나타남.

- 김정은 집권 5~6년차인 2016년 4월~2018년 3월 가장 많은 건설사업이 완공됨.
- 제7차 당대회가 개최된 2016년 5월 기점으로 전후 1년을 비교하면 보도건수는 각각 369건, 321건이나, 완공 건수는 각각 114건, 147건으로 당대회 개최 후가 완공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남.
- 이는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데, 첫째는 북한이 당대회를 앞두고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한다기 보다는 완공을 통해 성과를 내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다는 것이며, 둘째는 당대회 이후 군사력과 함께 건설 사업에도 자원을 적극 동원하여 김정은의 정치적 업적을 사회 전반에서 향상시키고자 하고자 함.

2) 〈표 2〉에서는 전체 10년을 기준으로 중복보도를 제외하였으나, 〈표 3〉에서는 각 연차별로 중복보도를 제외하였으므로 '중복보도를 제외한 전체 보도 수'의 총계가 달라짐. 예를 들어, 4년 간 건설된 '청천강계 단식발전소'의 경우 〈표 2〉에서는 1건으로 인식되었으나, 〈표 3〉에서는 각 연차별로 모두 포함되어 4회로 인식됨. 완공된 건설사업 수는 1,065건으로 동일함.

- 건설을 통한 김정은의 대내 정치적 결집력이 집권 5~6년차에 최대화되었다는 것은 집권 7년차의 수치로도 알 수 있음.
 - 집권 7년차는 완공된 건설사업 수가 가장 적으나, 건설사업당 언급 횟수도 1.3회로 완공이 활발히 진행된 6년차의 1.1회에 다음으로 낮음. 이는 건설사업이 활발하지도, 건설사업에 대한 자원의 결집도도 높지 않다는 것을 보여줌.
 - 특히 집권 7년차는 김정은의 외교 활동이 활발했던 시기로 대내적 자원동원이 아닌 대외적 위상을 통해 정치적 결집력을 확보하고자 했음을 추정할 수 있음.
- 김정은이 집권 초기 건설사업과 핵무력 발전을 통해 동시에 내적 결집을 추구하였으나, 집권 6~7년차를 기점으로 건설사업에 대한 정치적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하락한 것은 현지도도를 통해서도 알 수 있음.
 - 아래의 <표 4>는 건설사업 현장 혹은 완공지에 대한 김정은의 현지도도 횟수와 내각총리 등 그 외 엘리트들의 현지요해 횟수 수를 비교한 것임.
 - 집권 초기, 1년차를 제외하고는 김정은의 현지도도 횟수가 더 많으나, 6~10년차는 엘리트들의 횟수가 더 많음.
 - 집권 9~10년차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김정은의 외부활동에 제한이 있던 점을 고려해야하나, 전반적으로 집권 초기에 비해 건설사업에 대한 최고지도자의 관심이 저하되었음을 알 수 있음.

<표 4> 김정은과 그 외 정치엘리트 건설사업 현장 현지도도(요해) 횟수 비교표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6년차	7년차	8년차	9년차	10년차
김정은	29	57	40	28	27	8	15	19	11	7
그 외 엘리트	32	38	10	16	7	11	23	29	37	12

출처: 필자 작성.

○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평양이 압도적으로 높으며, 다른 지역들은 유사한 비율로 나타남.

- 강원도는 중복 보도를 제외하면 그 비율이 현저히 감소하는데 이는 자원 동원이 많이 필요한 마식령스키장, 세포축산기지,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등 주요 대상건설이 주를 이루었기 때문임.
- 자강도와 양강도의 경우에도 주로 발전소 건설을 중심으로 보도되어 중복보도를 제외한 경우 비율이 감소함.

〈표 5〉 지역별 보도된 건설사업 수 vs. 중복보도를 제외한 건설사업 수

지역명	보도된 건설사업 수 비율	중복 보도를 제외한 건설사업 수 비율
평양	21%	16%
평안북도	7%	10%
평안남도	8%	9%
황해북도	6%	9%
황해남도	4%	7%
함경북도	8%	8%
함경남도	8%	10%
강원도	16%	7%
자강도	10%	9%
양강도	8%	6%
나선	1%	1%
남포	3%	5%
전국	1%	1%
미상	1%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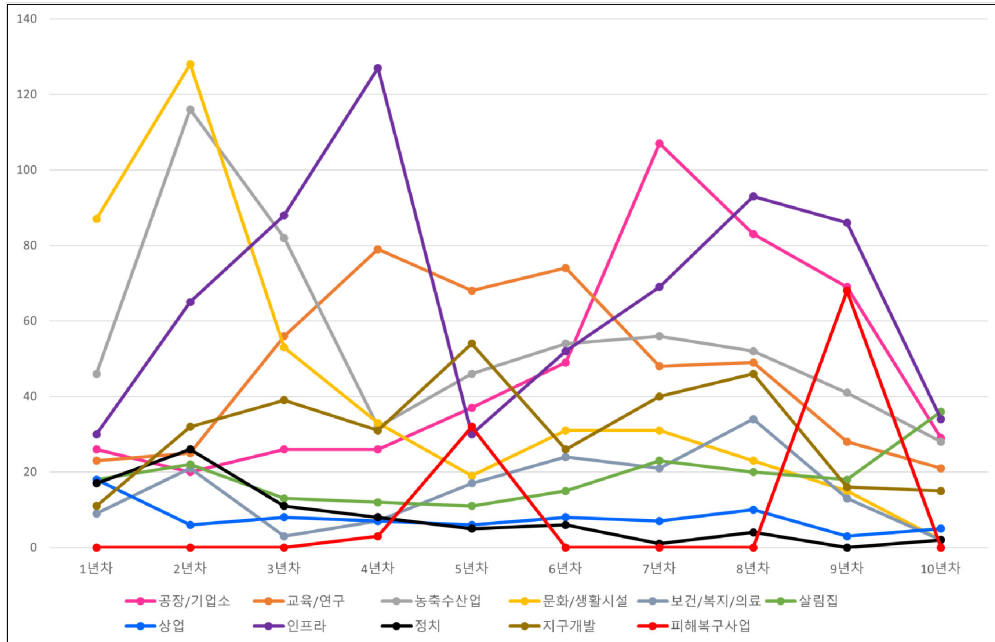
출처: 필자 작성.

○ 김정은 집권 10년을 초기-중기-후기로 나눠서 살펴보면, 시기별로 집중하는 건설사업 분야가 다르게 나타남.

- 집권 1~2년차에는 문화/생활시설 및 농축수산업에 집중하였다면, 공장/기업소는 7~8년차에 집중하고, 교육/연구는 4~6년차, 그리고 인프라사업은 초기, 후기 모두 집중하는 양상이 나타남.
- 전체적으로 비중은 적으나, 정치 관련 건설은 집권 초기, 살림집 건설은 집권 후기

에 활발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1〉 분야별/연차별 보도된 건설사업 수(중복 포함)



출처: 필자 작성.

- 보도된 건설 사업 수를 월별로 살펴보면 건설 사업은 여름~가을에 걸쳐 활발히 일어나며, 당창건 기념일이 있는 10월과 연말인 12월에 맞춰 완공을 추진함.
- 이는 계절적 요인과 특정 기념일 혹은 분기점이 되는 시기에 성과를 강조하는 북한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임.

〈표 6〉 월별 보도된 건설사업 수 및 완공 수

	전체	완공
1월	178	62
2월	167	32
3월	244	45
4월	256	93
5월	371	109
6월	355	88
7월	302	51
8월	352	84
9월	406	126
10월	337	137
11월	329	106
12월	205	132
계	3,502	1,065

출처: 필자 작성.

- 이상의 데이터를 통해 김정은 집권 10년 간의 건설의 주요 특징은 △건설 사업에 대한 정치적 집중은 집권 전반기에 이루어졌으며,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한 건설사업은 발전소 건설이며, △건설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난 곳은 평양이며, △계절 및 시기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남.

III. 연차별 특징 분석

- 집권 1년차: 평양 데모 버전
 - 이 시기는 김정일 시기 진행된 건설사업이 마무리되는 시기로, 보도된 건설사업 수는 163건(중복제외)으로 적으나, 그 중 완공된 사업 수의 비율이 64%로 높음.
 - 대표 건축물인 류경원, 인민야외빙상장, 로라스케이트장, 평양민속공원은 ‘선군시대의 기념비적창조물’로 표현됨.
 - 그 외에도 창전거리, 만경대유회장(개건), 대성산유회장(개건)이 대표적인 건축물로 전체 보도된 건설사업 수 중 절반이 평양에 집중되어있음. 아직 김정은의 전국적 구상이 확립되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음.

○ 집권 2년차: 김정은 건설사업의 시작

- 집권 초기 두드러지게 나타난 문화/생활 시설에 대한 건설이 활발히 진행된 시기로 공원, 유흥장, 로라스케이트장, 물놀이장, 입체올동영화관 등이 평양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됨.
- 집권 2년차의 대표 건설사업은 마식령 스키장임. 마식령 스키장은 2013년 5월 김정은 위원장이 현지지도 한 이후, 완공이 되는 2013년 12월까지 총 44차례나 보도되며, 김정은 위원장도 4회 방문함.
 - 정권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건설사업은 완공 이후 동일한 유형의 사업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는데 스키장은 집권 6년차에 자강도 스키장(건설 중)과 강계스키장(완공)이 각각 2회, 1회 언급되었을 뿐, 확산 양상이 나타나지 않음.
- 그 외에도 은하과학자거리, 미림승마구락부, 문수물놀이장이 있음. 이 세 시설은 모두 건설 기간이 1년이 미만이었으며 김정은이 3~5회 방문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임.
- 6월 최초의 버섯공장인 보성버섯공장이 평양(추정)에 완공한 이후, 10월 국가과학원 버섯연구소가 완공되었으며, 이후 전국적으로 버섯공장 건설이 활성화됨.

○ 집권 3년차: ‘과학’과 ‘건설’

- 위성과학자거리, 연풍과학자휴양소,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자 살림집 등 과학자들을 위한 시설이 많이 건설됨.
- 축섬 개발과 과학기술전당 착공도 이 시기 이루어졌으며, ‘과학기술지식보급거점’이라고 불리는 전자도서관 ‘미래원’도 집권 3~4년차에 걸쳐 활발히 이루어짐.
- 평양 육아원/애육원, 원산 육아원/애육원이 건설되었으며, 이후 4~5년차에 걸쳐 전국적으로 육아원/애육원이 건설됨.
- 원산 초등학교/중등학교 역시 이 시기 건설되었으며, 이후 5~6년차에 걸쳐 전국에 초등/중등학교가 활발히 지어짐.

○ 집권 4년차: 인프라

- 전체 365건의 보도 중 127건이 인프라와 관련된 내용
- 평양국제비행장 2항공역사,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 청천강 계단식 발전소 등 대형 인프라 사업들이 성과를 맺음.
 - 청천강 계단식 발전소는 집권 1년차부터 100여회 언급되었으나, 김정은은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았음.
 -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는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까지 포함하여 90여회로 청천강 계단식 발전소보다 적게 언급되었으나, 김정은이 총 4회 방문하였으며, 2018년 어랑천 발전소를 제외하고 김정은이 유일하게 방문한 발전소임. 백두산 발전소가 경제적 의미 뿐만 아니라 매우 큰 정치적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평양국제비행장 2항공역사는 전반적인 언급 횟수는 8건으로 적으나, 김정은이 3번이나 방문함. 이는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데, 첫째로는 중요도는 높으나 자원 동원이 많이 필요하지 않았거나, 혹은 폐쇄적인 북한 사회 내에서 상대적으로 공방이 갖는 사회적 중요도가 낮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음.
- 미래과학자거리와 과학기술전당이 완공
- ‘사회주의 농촌문화 건설의 새로운 본보기’로 불리는 장천남새협동농장이 완공
- 평양 양로원이 완공되었으며, 이후 6~8년차에 걸쳐 전국적으로 양로원과 양생원이 활발히 건설됨.

○ 집권 5년차: ‘크기’보다는 ‘갯수’

- 대형 건설사업은 없으나 육아원, 애육원, 초등학교, 중등학교 등 교육시설을 중심으로 많은 수의 건설 사업이 완공됨.
- 7차 당대회 종료 직후임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대형 건설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원인 중 하나로는 9~11월에 걸쳐 ‘함경북도 피해복구전투’ 즉, 수해 극복에 많은 자원을 투입해야했기 때문임.
 - 집권 4년차에도 ‘나선시 피해복구전투’가 진행되었으나, 함경북도 피해복구전투 만큼 장기간에 걸쳐 전국적인 지원을 받아 진행되지는 않았음. 이후 이러한 수해 극복 양상은 집권 9년차인 2020년에 다시 한 번 나타난다.
- 7차 당대회에서 언급한 대상건설은 백두산영웅청년3호발전소, 려명거리, 중앙동

물원, 육아원, 애육원, 초등학교, 중등학교, 민들레학습장, 중앙양묘장 나무모야 외재배장, 평양체육기자재공장, 원산군민발전소임. 그러나 당시 려명거리와 중앙 동물원(개진)은 진행중이었다는 것을 고려하면, 당 대회를 앞두고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한 대형 대상건설은 백두산영웅청년3호발전소였다고 볼 수 있음.

- 원산군민발전소를 언급한 것이 매우 특이한데, 이는 강원도에서 중점적으로 추진된 중소형발전소를 대표하는 건설 사업으로 김정은 집권 10년 간 총 언급된 11건 중 금야강군민발전소를 제외한 10건의 군민발전소가 강원도에 건설됨.

○ 집권 6년차: 김정은 대상건설 2기의 시작

- 약 1년 간의 건설 기간을 거쳐 려명거리가 완공됨. 은하과학자거리, 위성과학자거리, 미래과학자거리를 이어 김정은 집권 초기 10년에서 건설된 마지막 ‘거리’ 사업임.
- 세포지구 축산단지가 5년 만에 완공됨. 5년에 걸쳐 진행된 큰 사업이나 김정은은 한 번도 방문하지 않음.
- 집권 후기의 주요 대상건설로 탄소하나화학공업 대상건설, 순천린비료공장, 단천 발전소가 착공함.
 - 그러나 착공 이후 5년이 지난 현재까지 순천린비료공장 만이 완공(2020.5.)되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한 국경통제, 대미협상을 통한 대북제재 해제 실패 등이 요인이 될 수 있음.
- 전국적으로 어린이교통공원 건설붐이 일기 시작함. 이후 2019년 기사를 보면 80여개의 어린이교통공원이 운영중이라고 언급됨.

○ 집권 7년차: 사회의 변화와 새로운 건설 사업의 등장

- 김정은 대상건설 2기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가 착공되었으나, 2022년 현재까지 완공되지 못함.
- 오수정화시설, 오물처리공장, 샘물공장, 김치공장, 보건산소공장 등 새로운 종류의 인프라 시설과 공장/기업소가 등장
 - 오수정화시설은 집권 6년차에 2회, 7년차에 4회, 8년차에 2회, 9년차, 10년차에 각각 1회씩 언급되었음. 평양, 원산, 사리원시 등 도시에는 기존에도 오수정화 시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이 시기에는 군단위에도 신규 오수정화장이 건설

됨. 이는 환경 및 도시 인프라 시스템 정비의 개념도 있으나, 비료 제작을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도 보임.

- 집권 4~5년차 평양 룡악산샘물공장의 개건 보도가 이루어진 이후, 7~10년차에 걸쳐 15개의 샘물공장이 완공됨. 김치공장 역시 2016년 류경김치공장 완공 보도 이후 7~10년차에 걸쳐 총 11개가 완공되었는데, 샘물과 김치를 생산하는 공장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는 것은 북한의 생활문화가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함.

○ 집권 8년차: '일상적' 건설의 마지막 시기

- 일반 공장/기업소, 교육/문화시설 등의 건설이 전국적으로 예년과 동일하게 진행되고, 새로운 대상 건설들도 제기된 '일상적' 건설의 마지막 시기임.
- 대표적인 건설사업은 양덕군 온천지구 건설이 있음. 2018년 8월에 착공하여 약 16개월 만에 완공되었는데, 16개월 간 김정은이 총 7회 방문하였으며, 최룡해, 김재룡 등 다른 엘리트들의 방문을 포함시키면 총 11번의 현지지도(요해)가 이루어짐.
- 중평남새온실농장이 완공됨.
- 반면, 집권 7년차에 김정은이 직접 현지지도를 통해 지시한 온포온실농장지구 건설은 2019년 9월 건설중이라는 내용의 보도를 끝으로 더 이상 보도를 찾아볼 수 없음.

○ 집권 9년차: 코로나19와 태풍의 이중고

- 북한은 2020년 1월 코로나19에 대비하여 국가비상방역체계를 선포하였으며, 이에 대응하는 듯 2020년 3월 평양종합병원 착공식을 개최함.
- 2020년 3월 착공이후 2020년 9월까지 6개월 간 평양종합병원 건설에 대한 보도가 약 11회 있었으며, 평양종합병원 주변의 살림집 건설에 대한 내용도 있었으나, 예상 기한으로 설정되어있던 2020년 10월부터 더 이상 평양종합병원에 대한 보도를 찾아볼 수 없음.
- 8~9월 한반도를 강타한 태풍은 북한에도 전례없는 피해를 남김. 이전에 가장 큰 피해복구 사업이 2016년 개최된 함경북도 피해복구 전투였다면, 2020년에는 황해북도, 황해남도, 강원도, 평안북도, 함경북도, 함경남도에 걸쳐 전국적으로 피해

를 입음.

- 집권 9년차 보도된 건설사업 중 357건 중 20%에 달하는 68건이 피해복구와 관련된 내용이며, 기간도 12월 중순까지 이어진 것으로 보아 많은 자원이 피해복구 사업에 집중되었을 확률이 높음.

○ 집권 10년차: 평양으로의 회귀

- 집권 초기 4개의 거리 건설이 끝난 뒤, 주요 대상건설은 지방도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집권 10년차 다시 평양에 대상건설을 착공함. ‘평양시 1만세대 살림집 건설’이라는 명칭 하에 강안지구 호안다락식 주택구, 송신송화지구 살림집, 대평지구 살림집, 화성지구 살림집 등 평양에 대대적으로 건설사업 시작함.
- 이는 모든 정치적·경제적 자원을 평양으로 다시 집중시키겠다는 의지가 반영되어있는 것이라 볼 수 있음.

IV. 김정은 집권 10년 건설 사업 특징 및 특이점

○ 모든 시작은 평양에서

- 새로운 종류의 건설은 대부분 평양에서 시작하여 전국으로 확산됨.
- 버섯공장, 육아원/애육원, 메기공장, 양로원, 김치공장, 양묘장, 입체올동영화관, 물놀이장 등 공장/기업소, 교육시설, 복지시설 등 종류에 상관없이 모두 평양에 ‘1호’가 탄생하고 전국으로 확산됨.
- 평양을 제외하고는 원산이 시작점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육아원/애육원의 경우 평양 다음으로 원산에서의 건설이 보도되었으며, 초등학교/중등학교는 원산을 시작으로 다른 지방으로 확장되었음.

○ 8년째 진행중인 ‘삼지연시 꾸리기 사업’

- 2014년 8월 ‘삼지연군이 훌륭히 꾸려진다’는 제목의 노동신문 보도가 이루어진 이후, 삼지연시는 3단계에 걸친 ‘개건 공사’를 8년째 진행 중임.
- 2015년 12월 1단계 ‘개건현대화대상건설공사’가 완료되었으며, 이어서 진행된 2단계 공사는 2019년 10월 완공됨. 2단계 준공식에는 김정은도 참석함.

- 이후 '삼지연군'은 '삼지연시'로 승격되고, 3단계 공사에 접어들었으며, 이는 현재 진행중 에 있음.

○ 집권초기는 어린이를 위해, 집권 후기는 노인을 위해

- 집권 3년차에 평양 육아원/애육원 건설된 이후 4~5년차에 전국적으로 육아원/애육원 건설이 이루어졌으며, 같은 시기 원산 초등학교/중등학교가 착공한 이후 5~6년차에 전국적으로 초등/중등학교가 활발히 건설됨.
- 양로원은 집권 3년차때 처음으로 평양에 건설되었으나, 본격적으로 전국에 확산된 것은 집권 6년차 이후며, 집권 7~8년차에 양로원, 양생원이 활발히 건설됨.
- 집권 7년차 이후 본보기학교 건설을 강조하였으며, 집권 5~6년차에 전쟁노병보양소 건설이 활발하게 일어났으므로, 전/후기를 명확하게 나눌 수는 없으나, 다양한 종류의 교육-복지시설이 동시에 진행되는 것이 아닌 한 종류씩 순차적으로 건설된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이러한 양상은 공장기업소에서도 나타나는데 집권 초기에는 버섯공장 건설이 활발히 일어났다면, 중기에는 양어장/종어장 건설이 활발히 일어나며, 후기에는 샘물공장·김치 공장 등을 집중 건설함.

○ 김정은의 보건·의료 정책

- 비록 평양종합병원은 완공보도가 되지 않았으나, 김정은은 집권 초기부터 꾸준히 보건·의료 시설을 확충함.
 - 1년차에는 대성산종합병원, 평양산원 유선종양연구소 건설, 2년차에는 옥류아동병원, 류경구강병원 건설, 5년차에는 류경안과종합병원, 6~7년차에는 지역 인민병원들의 개건이 활발히 이루어짐.
- 또한, 코로나19 발생 전³⁾인 2016년 9월 평양에 보건산소공장을 완공한 이후 전국적으로 보건산소공장 건설을 확산함. 코로나19 이전부터 북한이 의료 시스템의 보완 및 거점 형성을 위해 노력하였다는 것을 보여줌.

3) 물론 북한에도 지속적으로 인플루엔자, 메르스 등 호흡기 전염병의 위험성에 대해 노동신문에 보도하였다.

○ 친환경 에너지의 활용

- 건설 추진 동향에서 나타나는 북한의 최우선정책은 바로 ‘발전소 건설’, 즉 안정적인 전력공급임. 이에 친환경 에너지를 활용한 건설 동향도 다수 나타남.
- 태양열담수온실은 2012년부터 건설되었으며, 수경온실, 태양열 옥상온실(무토양재배) 등의 건설도 나타남.
- 2014년 자연에너지 연구소가 건설된 이후, 2017년에 양강도에 태양빛발전소가 완공되었으며, 2021년에는 삼지연과 온천군에 풍력발전기가 설치되는 등 재생가능에너지 사용이 나타남.

○ 도시건설총계획의 추진 양상

- 김정은 위원장은 2018년 신의주시건설총계획, 2019년 만포시·강계시건설총계획을 발표함.
- 강계시의 경우 2013년에도 한차례 도시건설총계획이 언급되었기 때문에 10년간 전 분야에 걸쳐 건설 사업이 진행되었으나, 신의주의 경우 건설총계획 발표 이후 주로 보도된 28건의 건설사업 중 17건이 공장/기업소로 산업을 중심으로만 도시건설이 진행되는 것으로 보임.
- 만포시의 경우 도시 전반에 걸쳐 어떠한 사업들이 진행되는지에 대한 언급한 기사가 3건에 불과해 신규 도시건설총계획은 활발히 진행되지 못하는 것으로 보임.

발표2 김정은 집권 10년, 주요 대상건설 동향

김 혁(한국농어촌공사)

I. 들어가며

- 김정은 체제가 들어선 이후 정체되어 있던 지방도시 건설이 활발한 것으로 확인되며, 평양을 중심으로 추진된 선경도시 모델은 전국 주요 도 소재지들로 확대되어 나타난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음.
- 김정은 체제가 주요 대상건설 사업에 상당한 관심을 기울이는 결정적인 이유는 ‘건설사업이 곧 정치사업’이라는데 있으며, 이는 김정은 체제가 등장한 이후 주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가 필요하다는 점임.
- 김정은 체제가 들어선 이후 젊은 김정은 위원장의 정치적 리더십 문제, 대를 이은 권력 승계에 대한 의구심이 대내외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상황에서 빠른 시간 안에 내부권력을 장악해가기 위한 가시적인 성과가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에서 필요했던 것임.
- 따라서 김정은 체제가 들어선 이래 빠른 속도로 대변되는 이른바 ‘평양속도’, ‘평양정신’, ‘평양속도창조운동’이 전국에 강조되고 마식령스키장, 창전거리, 문수물놀이장 등 평양을 중심으로 한 건설 사업이 추진되면서 관광산업을 통한 경제발전을 주도하고자 함.
- 평양속도는 전국적으로 확산되는데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추진된 고아원과 양로원 건설 사업은 2014년 말부터 시작되어 2017년까지 전국 도 단위별로 완공되었으며, 이 같은 조치는 북한주민들에게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존경과 신뢰, 미래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는 대표적인 정치 할 수 있음.
- 그러나, 2017년 제6차 핵실험과 수차례의 미사일 발사, SLBM 시험 등으로 인한 동북아 긴장관계 확산,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제재 동참으로 인한 대북제재 강화, 2018년 북미관계,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기대와 달리 2019년 북-미협상이 노딜로 마무리

- 2020년 1월 코로나19에 대응해 가장 먼저 국경을 봉쇄해 위축된 무역이 전면 중단으로 이어져 건재를 비롯한 수입의 어려움이 가중된 상황임.
- 2021년 7월 VNR 보고서를 통해 대북제재의 불합리성을 역설하고 국제사회의 SDGs와 국내 경제발전을 연계함으로써 대북제재에 대한 이중성을 비판하는 모양새와 동시에 국제사회로부터의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움직임이 나타나기도 함.
- 따라서 본 연구는 어려운 대내외적 여건 속에서 추진되고 있는 북한의 지방건설 동향과 그 특징을 파악하는 것을 목표로 함. 특히 도소재지를 대상으로 건설동향이 활발한 도시와 정체되어 있는 도시를 대상으로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김정은 체제의 지방건설의 동력을 제시하고자 함.

II. 김정은 체제의 지방건설 정책

○ **정책방향:** 김정은 체제의 지방건설 정책은 크게 3가지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음.

- 첫째, 경제개발구 지정을 통해 지역의 경제발전에 필요한 원동력을 확보하는 것
- 둘째, 지방발전 계획을 지방의 특색에 맞게 자체적으로 계획하고 추진하는 것
- 셋째, 시군발전법을 통한 지방발전에 대한 제도적 기준을 정비 및 마련(대북제재 =>투자개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방안으로 시군발전의 제도적 방안을 마련한 것)

○ **지역개발구 발표:** 지역개발구 선정을 통한 지방발전의 재원을 확보

- 북한은 그동안 평양, 신의주, 개성, 나선을 비롯한 특정지역을 제외하고 지역개발에 상당히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 왔음.
- 북한은 김정은 체제가 들어서고 1년 후인 2013년 5월 최고인민회의의 정령3192호를 통해 경제개발구법을 채택 및 공포하고 뒤이어 11월에는 직할시 개발구법 제정, 2014년 7월에는 도 단위의 지방개발구를 지정함.
- 지방급 개발구는 공업개발구, 농업개발구, 관광개발구, 경제개발구, 수출가공구로 구분되었으며, 전국 11개 시도지역 단위에 19개의 개발구를 설치함.
- 개발구의 주요 특징은 도시들과 근접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지정되거나, 지역의 특수한 환경을 고려한 대상지역을 선정함.

- 즉 개발구 투자에 유리한 지정학적, 지경학적 위치, 풍부한 자원, 인적자원 등 개발구 투자에 용이한 대상지역을 선정해 개발구투자를 장려하고자 하는 김정은 체제의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음.

○ **지방발전 계획:** 주요 도소재지 중심으로 도시의 특성에 맞는 지역발전 건설 강조

- 지방발전계획은 기본적으로 시, 도 지역 단위의 도시 건설에 대한 계획권한을 중앙차원에서 도 단위로 확대함에 따라 나타난 결과임.
- 김정은 체제가 들어선 이후 2013년부터 경제관리 개선조치가 단계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지역단위의 건설계획도 중앙에서 도 단위의 권한으로 확대되어 나타남.
- 지방의 발전에 대한 도시건설 기준을 지역적 특성에 맞게 조성할 것을 강조, 삼지연 도시개발을 추진해 2019년 시로 격상하고 지방건설의 모델로 강조

○ **시군발전과 사회주의 전면적 발전:** 자체의 힘으로 지방건설을 통한 극복

- 시군발전법은 2021년 9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에 따라 처음 제정되었으며, 특히 도시발전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두고 있음.
- 시군발전법에서 지방발전 모델을 삼지연시로 강조하고 지역 특색에 맞게 자체적으로 건설해 나가며, 지방도시 건설에 필요한 자재지원도 제시함.
- 시군발전은 지방공업의 물질적, 기술적 토대를 구축함으로써 자립경제를 강화해 사회주의 전면적 건설의 기반을 다지는 것으로 강조
- 따라서 시군발전은 북한이 직면한 난국(대북제재, 국제정세)을 해소하고 생활을 안정화할 수 있는 기반으로 5개년계획을 ‘자력부강, 자력번영의 담보’를 확보하는 것으로 규정

III. 김정은 체제의 개발구와 분야별 건설현황

○ **주요 지방개발구 개발 현황(개발구 사진 및 위성사진)**

- 중앙차원에서 추진하는 개발건설 대상인 원산-금강산국제관광지대, 마식령스키장, 양덕온천, 삼지연시 개발 등은 국가적 역량이 집중됨에 따라 비교적 빠른 시간 안에 완성된 반면 지방자체에서 추진하는 개발구 건설은 부진한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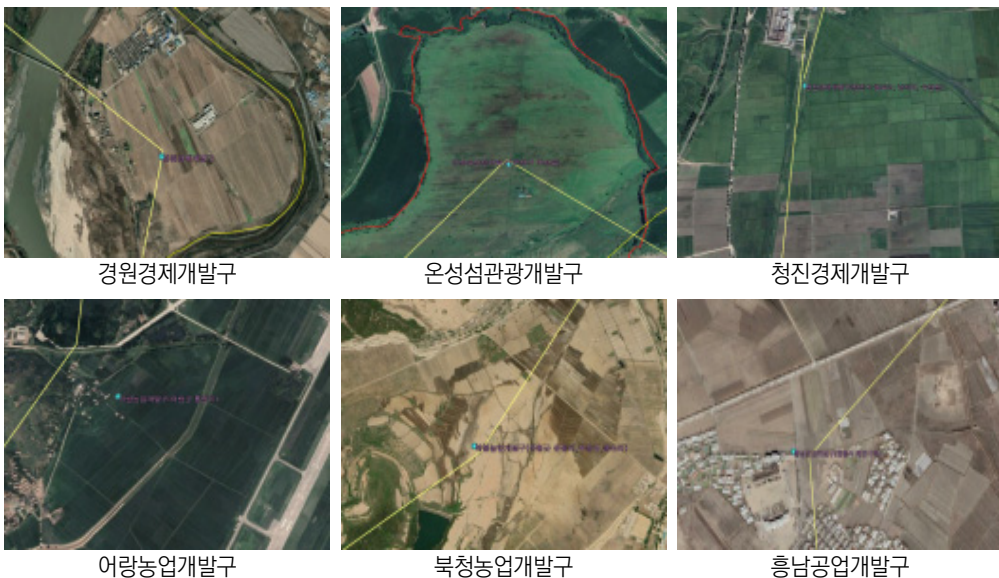
〈그림 1〉 주요 지방개발구 위치



출처: Google Earth 캡처, 필자 작성.

- 북한의 지방급 개발구는 11개의 시도지역 단위에 19개의 개발구를 선정하고 지방건설에 필요한 재원을 외국자본의 투자를 통해 독려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음.
- 지방급 개발구는 기본적으로 경제개발구, 공업개발구, 농업개발구, 관광개발구, 수출가공구로 지방의 산업적 특성이 고려되어 지정됨.

〈그림 2〉 지방급 경제개발구 현황(2021~2022)





현동공업개발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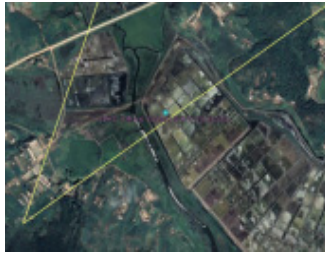
신평관광개발구



송림수출가공구



강남경제개발구



와우도수출가공구



속천농업개발구



청남공업개발구



압록강경제개발구



청수관광개발구



위원공업개발구



만포경제개발구



해산경제개발구

출처: Google Earth 캡처, 필자 작성.

- 그러나 현재 지방급 19개 개발구 현황을 위성영상을 통해 확인한 결과 무봉지구를 제외하면 개발이 진행중인 지방급 개발구는 확인되지 않고 있음.

〈그림 3〉 무봉국제관광특구 현황(2022년 현재, 마을개선 진행중)



출처: Google Earth 캡처, 필자 작성.

- 지방급 개발구를 추진하기 위한 외국자본의 투자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한 결과로 판단될 수밖에 없는 대목임.

□ 분야별 건설동향

○ 분야별 동향 자료

- 분야별 건설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북한자료 노동신문(2012.04~2022.03), 조선의 오늘 등 북한 주요 온라인 매체와 LH연구원 북한건설개발 동향을 참조해 건설을 완공한 대상으로만 분석을 진행함.⁴⁾

⁴⁾ 본 참고자료는 통일연구원 권주현연구원이 제공한 데이터 자료를 토대로 작성됨

Figure 1: Ratio of total value added to total employment by industry in 2014. The graph shows that the '총취수산업' (Total Extraction Industry) has the highest ratio, exceeding 25. Other industries like '문화생활' (Culture and Leisure) and '인프라' (Infrastructure) also show relatively high ratios. The '상업' (Commerce) and '지구개발' (Earth Development) industries show the lowest ratios, near zero.

○ 공장기업소: 산업시설

- 교육연구: 특수교육, 일반교육, 연구시설

- 분야별 건설현황에서 교육 및 연구 시설 건설이 가장 많은 지역은 평안북도, 평안남도
도로 나타남.

- 평안북도가 타지역보다 교육시설, 연구시설 건설이 많은 이유는 신의주시를 비롯한 주요 지역들에서 교육관련 기관들이 새롭게 조성되거나, 개건되면서 나타난 결과임.
- 평안남도는 평성시를 중심으로 농업연구원, 과수학연구소, 산림과학연구소, 벼연구소 등이 건설되는 등 평안북도와 달리 연구시설들이 새롭게 조성되거나 개건되어 나타난 결과임.
- 반대로 교육시설이나, 연구시설이 가장 적게 나타난 지역은 량강도로 고아원, 사범대학, 도서관, 분교 건설을 제외하면 연구시설이나, 교육시설에 대한 동향은 나타나지 않음.

○ 농축수산업: 농산, 축산, 수산, 산림

- 농축수산업 분야에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난 지역은 대표적인 곡창지대인 황해남도와 평안남도로 확인되었음.
- 황해남도는 북한의 대표적인 곡창지대로 농축수산업분야에서 도시보다는 농촌의 미꾸라지양어장, 토끼종축장, 신원목장, 남새온실, 삼천메기공장, 연안오리공장 등 건설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됨.
- 평안남도도 황해남도와 마찬가지로 순천염소목장, 순천메기공장, 덕천오리공장, 종어사업소, 증산양어장 등을 새롭게 건설했으며, 평성시를 중심으로 버섯공장, 온실농장 등도 새로 건설한 것으로 확인됨.
- 반면 농축수산업에서 건설동향이 적게 나타난 지역은 량강도와 자강도로 량강도는 감자관련 시설 건설과 양묘장, 자강도는 종어장, 버섯농장 건설에 그치고 있음.

○ 문화생활: 문화, 체육, 예술

- 문화생활 관련 시설에서는 평안북도, 자강도, 평안남도 순으로 나타남.
- 문화생활시설 건설에서 평안북도가 높게 나타난 이유는 신의주시를 중심으로 한 유원지 개건, 미술창작사, 인공잔디축구장, 체육관, 휴양소 등이 대거 건설되거나, 개건되면서 나타난 결과임.
- 자강도가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난 이유는 스키장, 축구장, 예술극장, 체육관 유원지, 영화관, 경기장 등이 강계시를 중심으로 새롭게 완공되면서 나타난 결과임.

- 반면, 문화생활시설 건설에서 가장 적은 지역은 량강도와 강원도로 체육관, 해안유희장, 예술극장, 마식령스키장(중앙급) 외 문화생활시설에 대한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음.

○ 보건복지의료: 의료, 요양 등

- 보건복지의료 관련 시설은 함경남도, 평안북도, 황해남도가 각각 7건으로 나타남.
- 함경남도의 보건복지의료 시설은 함흥시를 중심으로 인민병원, 대학병원, 철도병원, 영광군 의약품관리소, 신포시인민병원 등이 개건 및 건설되었음
- 평안북도에서는 평안북도의약품관리소,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 산업병원, 창성인민병원, 신온온천요양소 등이 개건 및 건설되었음.
- 황해남도에서는 해주수의방역소, 태탄제3요양소, 동신흥리인민병원(리인민병원 본보기), 삼천요양소 등이 개건 및 건설되었음.
- 반면 가장 적게 나타난 지역은 량강도로 삼지연시 인민병원, 양로원 외에는 해당 분야에서 건설을 완공한 동향이 나타나지 않고 있음.

○ 살림집: 농촌주택, 도시주택

- 지역별 살림집 건설에서는 평안남도와 황해남도가 다른 지역과 달리 높게 나타나는데 두 지역 모두 농축수산업이 발달한 지역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며, 농업대단위라는 측면에서 농촌살림집 완공소식이 자주 등장하는 것으로 확인됨.
- 평안남도 살림집 건설은 안주시와 북창군, 성천군, 양덕군, 평원군 등 군 단위의 농촌주택 7천여 세대가 완공되면서 나타난 결과임.
- 황해남도는 최전방지역인 강령군(섬지역), 안악군, 온진군 등 도시보다는 군 단위의 농촌주택들이 대거 건설된 결과임.
- 반면, 앞서의 농업대단위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도 단위에서 살림집 완공은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음.

○ 상업시설: 상점, 음식점, 여관 등

- 상업부분은 평안북도, 황해북도, 함경남도, 평안남도 순으로 나타남.
- 평안북도는 광산군 국수집, 신의주 여관, 내중협동농장 편의봉사시설, 운산군, 창

성군의 은덕원 건설이 완공됨에 따라 나타난 결과임.

- 황해북도는 정방산호텔, 은덕원, 국수집, 편의봉사시설, 함경남도는 북청, 함흥시 신흥관, 휴양각, 토성원 등이 완공되었으며, 평안남도는 평성시의 음식점거리가 조성되고 은덕원, 제남원이 건설된 결과임.
- 반면 황해남도는 건설 중에 있는 신천휴양소 외 상업시설 완공내용이 나타나지 않고 있음.

○ 인프라시설: 전력시설, 정화시설, 항만

- 인프라시설 분야는 자강도, 함경남도가 다른 지역들 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남.
- 자강도의 인프라시설은 발전소로 만포, 우시, 중강, 3월5일, 초산, 희천, 동신 등 수력발전소 완공이 대부분을 차지함.
- 함경남도는 고원대흥, 금야강군민, 금야강2호, 함흥청년1호, 함주추상1호 등 수력발전소 건설과 단천시 오수정화, 단천항 건설, 오물처리공장이 완공되었음 .
- 인프라시설에서 가장 적은 지역은 황해남도, 함경북도지역으로 나타남.

○ 지구개발

- 지구개발은 황해북도가 타 지역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량강도와 평안북도, 자강도 순으로 나타남.
- 황해북도는 군 단위 차원의 지구개발 사업으로 사리원시를 제외하면 서흥군, 수안군, 연탄군, 장풍군, 은파군 등에서 나타남.
- 량강도는 삼지연시 꾸리기, 혜산시 꾸리기, 김정숙군 지구개발, 혜산청년광산 지구개발이 완공되었으며, 평안북도는 창성군, 초산군, 피현군 읍 단위와 농촌마을 꾸리기 사업이 추진된 결과임.
- 자강도는 다른 지역과 달리 강계시 외룡동 정비사업이 완료되었으며, 남새농장마을과 룡림군 읍 단위 아파트 건설이 완공되었음.
- 반면, 함경북도, 함경남도, 평안남도, 황해남도, 강원도 지역은 지구개발이 대부분 낮게 나타나고 있음 .

○ 피해복구

- 피해복구는 함경북도, 함경남도, 황해북도 순으로 나타남.
- 함경북도는 2016년 무산군, 연사군, 경흥군 지역 폭으로 인한 수해복구와 2020년 어랑군 일대의 태풍피해 복구사업이 완료된 것으로 나타남.
- 함경남도는 2020년 단천시 검덕지구, 허천지구, 홍원지구 태풍피해 복구사업이 완료된 것으로 확인됨.
- 황해북도는 2020년 금천지구, 은파지구 태풍피해 복구사업이 다수를 차지함.

○ 도 단위 전체 건설완료 현황

〈표 1〉 도 단위 분야별 건설완료 현황(평양, 남포, 개성, 나선 특별시급 제외)

구분	공장 기업소	교육 연구	농축 수산업	문화 생활	보건 복지 의료	살림 집	상업	인프라	지구 개발	피해 복구	합계	순위
함경북도	9	13	17	9	5	6	2	5	2	10	78	3
함경남도	19	14	18	10	7	6	4	11	2	4	96	2
평안북도	15	22	19	15	7	5	6	8	5	0	102	1
평안남도	16	19	23	11	5	9	4	7	2	0	96	2
황해북도	13	9	11	9	6	6	5	7	8	2	76	5
황해남도	11	9	25	7	7	9	0	4	2	0	74	6
자강도	14	14	6	13	6	5	1	15	4	0	77	4
량강도	5	7	4	5	2	6	1	6	5	0	41	8
강원도	13	14	13	5	5	5	0	8	1	1	65	7
합계	115	121	136	84	47	57	23	71	31	17	640	9도

출처: 필자 작성.

- 도 단위의 전체 건설현황을 보면 평안북도가 전체 102건으로 1순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함경남도와 평안남도가 2순위, 함경북도가 3순위로 나타남.
- 김정은 체제 이후 분야별 전체 현황을 보면 농축수산업 분야의 시설에 대한 성과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교육 및 연구시설, 공장기업소 건설 순으로 나타남.
- 또한 문화생활 시설과 인프라 시설에 대한 건설에서 일정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최근 들어 농업대단위 지역을 포함해 농촌지역 주택건설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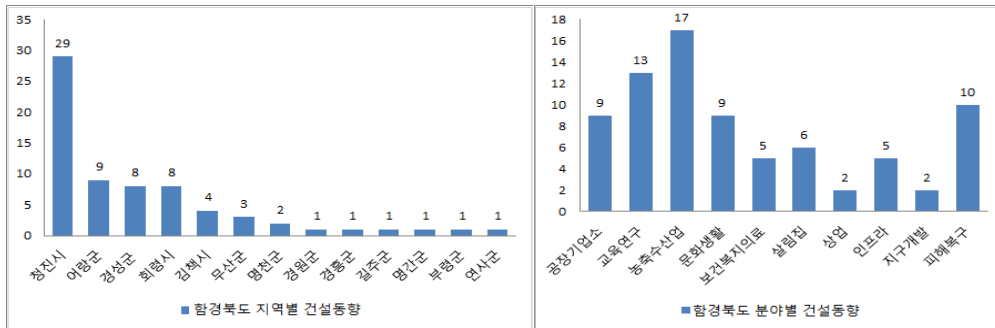
IV. 김정은 체제의 지방도시 건설과 시장화

□ 지방도시별 건설동향

○ 함경북도 청진시

- 함경북도 지역별 건설동향을 보면 도소재지인 청진시가 가장 많은 건설성과를 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어랑군, 경성군, 회령시 순으로 건설 완공 모습이 나타남.
- 함경북도의 분야별 특징으로는 농축수산업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교육, 연구, 공장기업소, 문화생활 순으로 건설 동향이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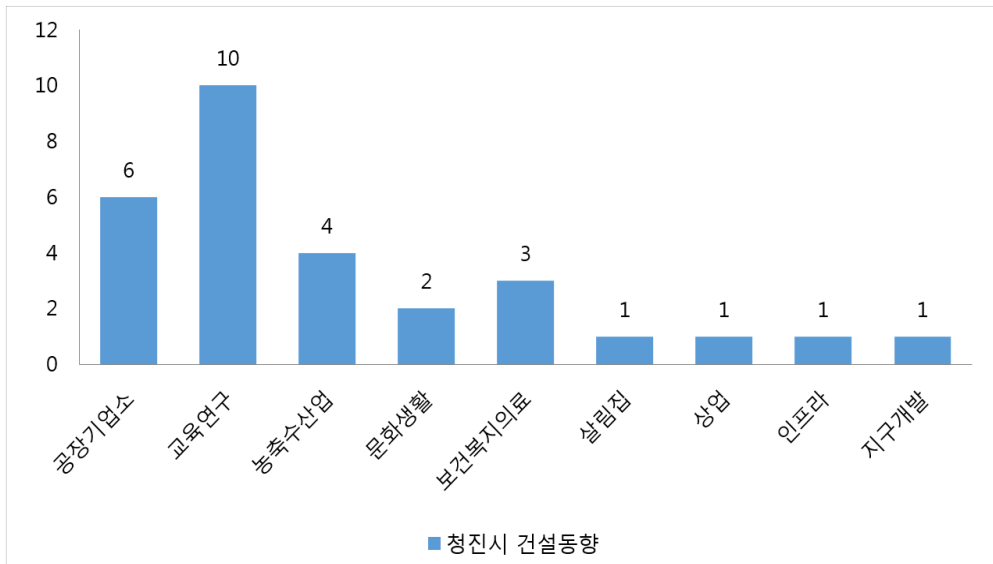
〈그림 5〉 함경북도 지역별·분야별 건설동향(2012~2022)



출처: 필자 작성.

- 청진시의 주요 특징을 보면 교육과 연구 분야가 가장 높고 공장기업소, 농축수산업 순으로 나타난 반면, 인프라, 상업, 지구개발, 살림집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청진의 공장기업소에는 김책제철연합기업소 개건사업, 수성천종합식료공장 개건, 보건산소공장, 김치공장 건설, 교육연구에서는 연구보다는 학교, 학원, 도서관과 같은 교육시설 건설이 확인되었음.
- 농축수산업에는 대서양연어종어장, 양어기지, 축양장과 같은 수산업 시설, 함경북도 버섯공장과 같은 버섯배양 시설, 문화생활에는 청진경기장, 청진광산금속대학 체육관 시설, 보건복지의료에는 양로원, 양생원, 전쟁로병보양소 시설 건설이 확인됨.
- 살림집, 상업, 인프라, 지구개발에는 버섯공장종업원 살림집 건설, 경성단고기집 건설, 청진화력발전소 노동자합숙, 지구개발에는 직하협동농장마을 개건 건설이 나타남.

〈그림 6〉 청진시 분야별 건설동향(2012~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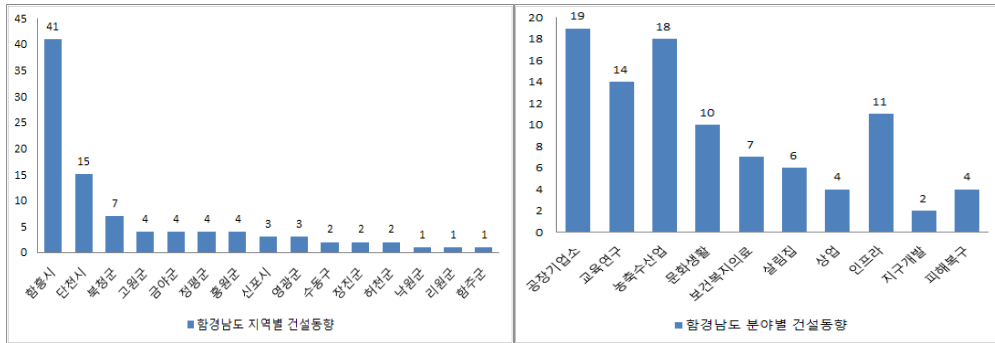
출처: 필자 작성.

- 청진시 건설완공동향과 달리 해안문화도시 건설과 관련된 지구개발이나, 관련 건설 동향은 경성단고기국집(호수 북쪽 끝)을 제외하면 공사는 완료되었지만 완공소식은 확인되지 않음.

○ 함경남도 함흥시

- 함경남도 지역별 건설동향을 보면 도소재지인 함흥시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단천시, 북청군 순으로 건설동향이 나타나고 있음.
- 분야별 특징으로 도 전체로 놓고 볼 때 공장기업소, 농축수산업 관련 시설 완공이 다른 분야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인프라 건설에서 발전소완공이 많은 부분을 차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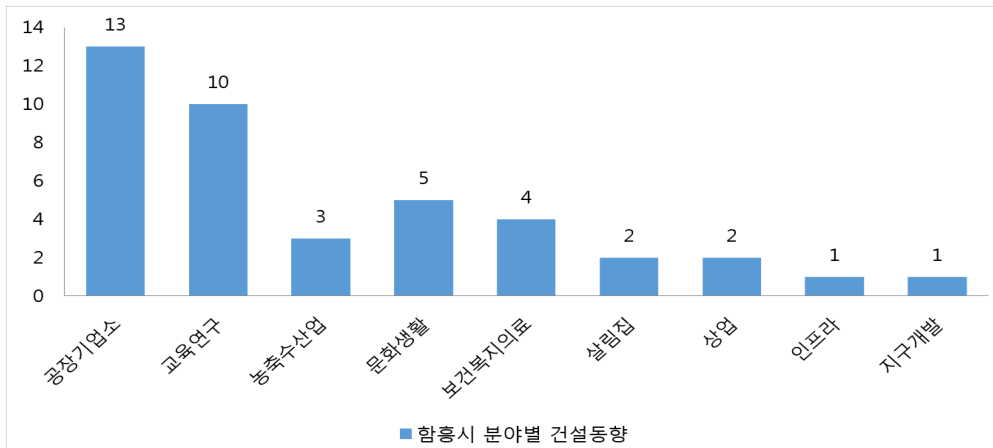
〈그림 7〉 함경남도 지역별·분야별 건설동향(2012~2022)



출처: 필자 작성.

- 함흥시의 분야별 건설동향에서 공장기업소, 교육연구 관련시설이 높은 순으로 나타나며, 인프라와 지구개발이 가장 적게 나타남.
- 함흥시의 공장기업소 건설은 흥남비료연합 공정별 시설 개선 및 영양액비료공장 신설, 함경남도 건재공장 개선, 2.8비날론연합기업소 개선, 성천강 구물공장, 수지관직장 건설이 완료되면서 산업시설 건설동향이 가장 높게 나타남.
- 교육연구 분야는 전국에 설치된 고아원(애육원, 육아원, 초등학교원, 중등학교원)을 제외하면 함흥농업대학, 함흥의학대학, 함흥화학공업대학 등 고등교육시설(대학) 개선사업과 과학기술도서관, 국가과학원 함흥분원 건설성고가 나타난 결과임.
- 농축수산업은 함흥메기공장, 양묘장, 버섯공장 건설, 문화생활은 마전유원지 개선, 함흥물놀이장, 함흥민속공원, 흥덕구역경기장 건설, 보건복지의료는 양로원, 양생원, 도인민병원, 철도국병원 건설이 완료됨.
- 살림집은 함흥과학자살림집, 회상구역 수백가구의 살림집, 상업분야는 신흥관, 마전유원지, 인프라는 흥덕구역 오물처리장, 지구개발은 함흥남새전문농장 건설이 완공됨.

〈그림 8〉 함흥시 분야별 건설동향(2012~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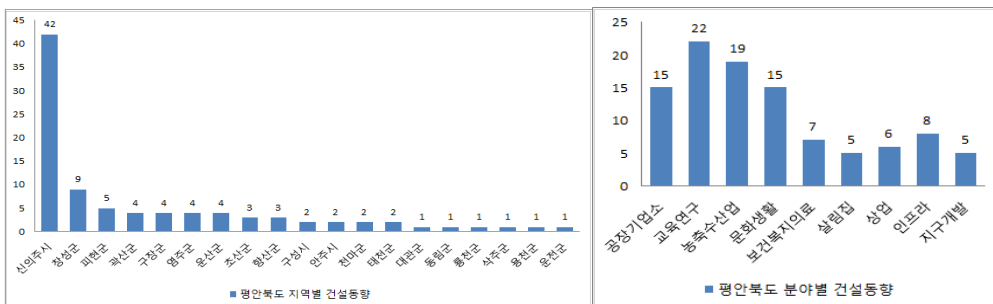
출처: 필자 작성.

- 한편 함흥시 성천강구역 새별동 신흥관, 과학기술도서관, 함경남도 도서관, 회상구역 함흥과학자살림집 건설과 달리 성천강구역 새별동 고급주택 건설 동향에 대한 소식은 나타나지 않고 있음.

○ 평안북도 신의주시

- 평안북도 지역별 동향에서는 신의주시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창성군을 제외하면 대부분 지역들에서 건설동향은 제한적으로만 나타나고 있음.
- 분야별 건설은 교육과 연구 분야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농축수산업, 공장기업소, 보건복지의료 순으로 확인되었으며, 가장 적은 분야는 살림집과 지구개발로 확인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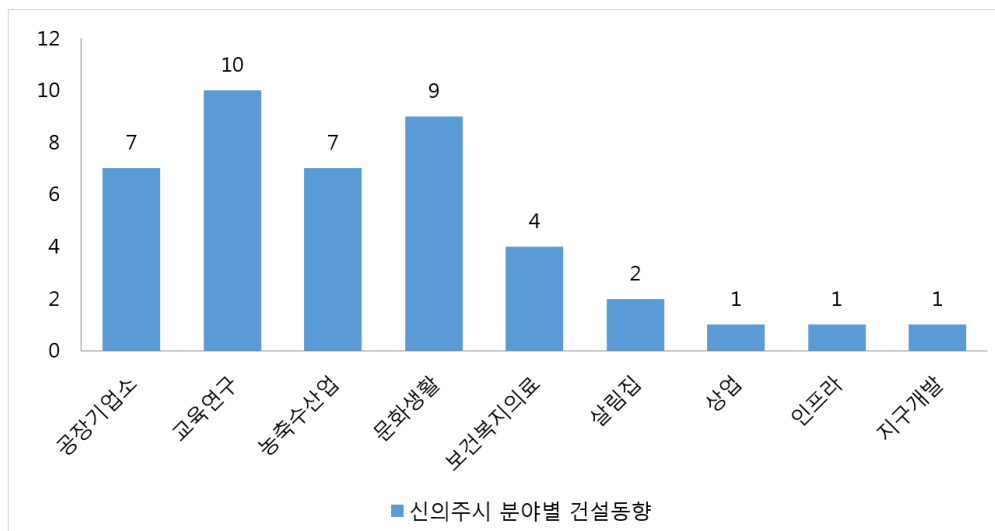
〈그림 9〉 평안북도 지역별·분야별 건설동향(2012~2022)



출처: 필자 작성.

- 신의주시 교육시설, 연구시설에는 도 농업과학연구소 개진, 도 산림과학연구소, 도 품질분석소를 비롯한 도급 연구기관 건설과 학생소년궁전, 소년단야영소를 비롯한 교육시설 건설이 완료됨.
- 농축수산업에는 신의주닭공장, 도 남새온실, 도 양종축장, 쏘가리종어장, 도 젖소 목장 건설이, 공장기업소는 신의주가방공장, 신의주방직공장, 신의주구명탄공장, 신의주화장품공장, 보건산소공장이 완료됨.
- 문화생활시설은 신의주경기장, 신의주청년야외극장, 인조잔디축구장, 영화관, 압록강유원지, 도 미술창장사, 도 도서관, 은정물놀이장, 호텔 건설이, 보건복지의료는 도 의약품관리소를 제외하면 대부분 다른 지역과 유사함.
- 살림집 건설은 대동강과 근접한 본부동을 비롯한 지역에 25층 높이의 고층아파트와 500세대 살림집이 건설되었으며, 인프라는 자연에너지발전소 개진이 완료되고, 지구개발은 남신의주 지역 석하협동농장마을 개선(농촌주택, 공공건물)으로 확인됨.

〈그림 10〉 신의주시 분야별 건설동향(2012~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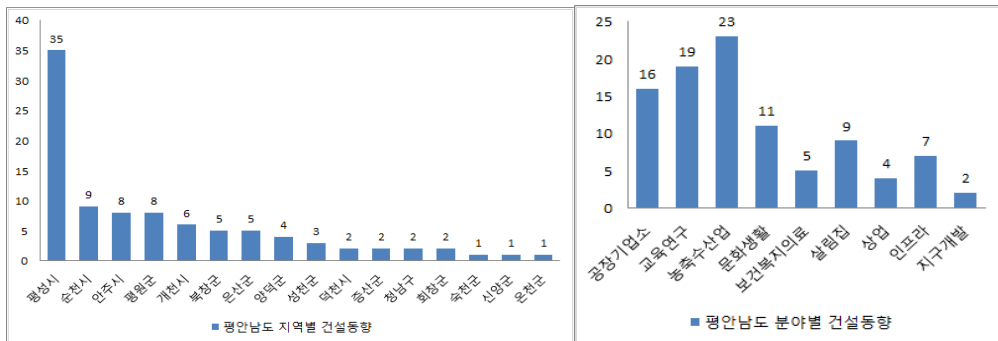
출처: 필자 작성.

- 한편 신의주시의 대표적인 특징은 문화시설에 대한 건설과 고층아파트 건설이 크게 나타나고 있어 중국 단둥지역과 경쟁할 수 있는 도시화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이며, 다른 지역들보다 건설 중에 있는 고층 아파트 모습이 나타나고 있음.

○ 평안남도 평성시

- 평안남도 지역별 건설동향은 도 소재지인 평성시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순천시, 안주시, 평원군 순으로 확인됨.
- 분야별 건설동향은 농축수산업이 압도적으로 높고 이어 교육연구, 공장기업소 순으로 확인되며, 지구건설, 상업분야가 가장 적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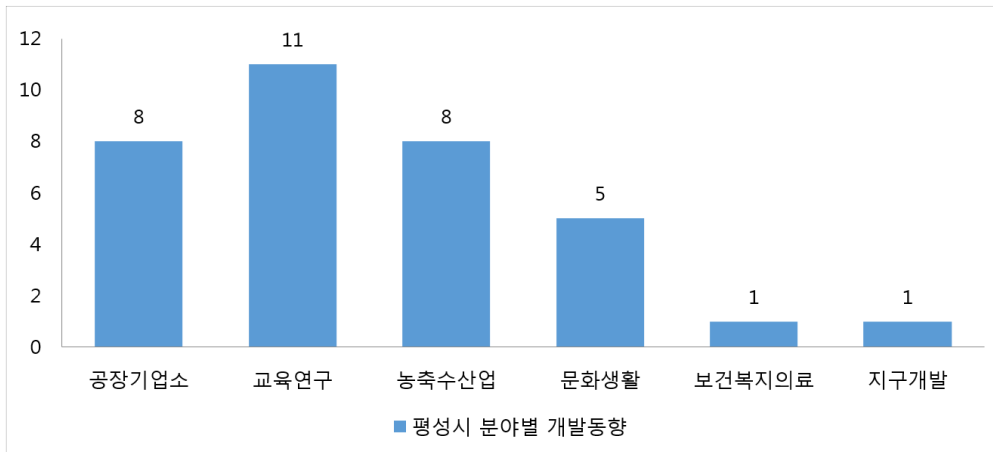
〈그림 11〉 평안남도 지역별, 분야별 건설동향(2012~2022)



출처: 필자 작성.

- 평성시 분야별 건설동향을 보면 교육연구, 공장기업소와 농축수산업, 문화생활 순으로 확인되며 보건복지의료, 지구개발 건설이 가장 적게 나타나 도 전체 농축수산업 건설 비중과 다르게 나타나 도소재지와 지방간 분야별 차이를 보여주고 있음.
- 교육연구는 평성중덕소학교, 평성유치원, 평성수의축산대학 등 소아교육과 고등교육 관련 시설 건설, 도급 농업연구소, 과수학연구소 건설이 완공됨.
- 공장기업소는 평성골재생산사업소, 평성기와공장 등 건재관련 건설, 평성가방공장, 평성김치공장, 평성샘물공장, 평성합성가죽공장 등 경공업 관련 건설이, 농축수산업은 평성버섯공장, 남새온실, 염소목장, 에너지절약형 종어장 등 농축수산 관련 건설이 완공됨.
- 문화생활은 평성공원, 물놀이장, 청년야외극장, 평안남도 도서관, 계급교양관 건설이, 보건의료는 제3예방원, 지구개발은 화포농장(공공건물) 건설이 완공됨.

〈그림 12〉 평성시 분야별 건설동향(2012~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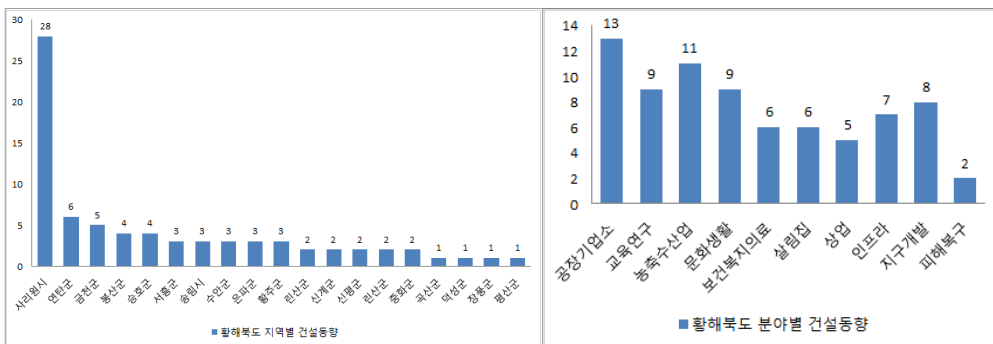
출처: 필자 작성.

- 평성시 분야별 동향에서는 청진시와 마찬가지로 특징적인 부분은 나타나지 않지만, 도시건설과 관련하여 고층주택 건설이 진행중에 있음.

○ 황해북도 사리원시

- 황해남도 지역별 건설동향은 도 소재지인 사리원시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방건설 동향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분야별 건설동향은 공장기업소, 농축수산업, 교육연구, 문화생활, 지구개발 순으로 나타났으며, 다른 지역과 큰 차이를 보이는 부분은 지구개발로 확인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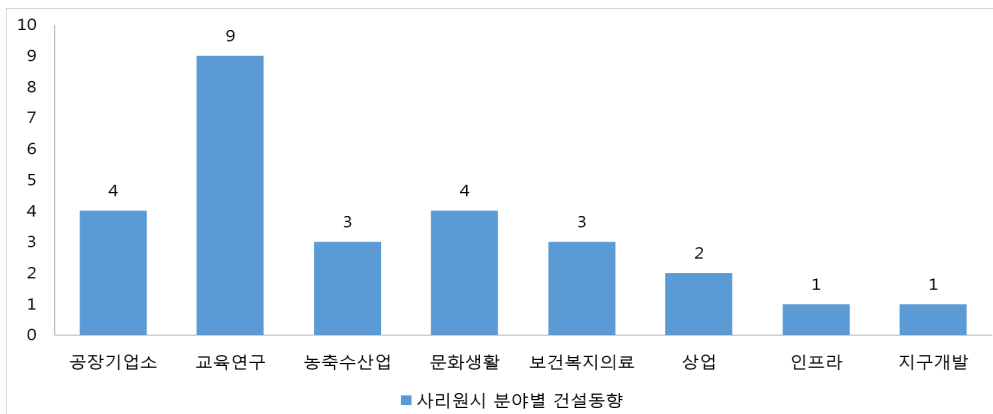
〈그림 13〉 황해북도 지역별·분야별 건설동향(2012~2022)



출처: 필자 작성.

- 사리원시의 분야별 건설동향은 교육연구가 가장 높고, 공장기업소, 문화생활, 농축수산업 순으로 나타나며, 전반적으로 건설성과가 다른 도시들에 비해 낮은 것으로 확인됨.
- 교육연구는 도 태권도훈련관, 도 품질분석소, 산림과학연구소, 과수학연구소 사리원분소, 축구학교, 구천중학교 등 연구와 교육시설 건설성과가 나타나고 있음.
- 공장기업소는 사리원방직공장, 사리원포도술공장, 정방산종합식료공장 개건과 정방산샘물공장 건설이, 문화생활은 사리원 은덕원개건과 청년야외극장, 사리원체육관, 입체올동영화관 건설이 완공됨.
- 농축수산업은 사리원시 양묘장, 성산목장, 정방산 버섯공장이, 보건복지의료는 황해북도산원, 상업은봉의협동농장 봉의원, 정방산호텔, 인프라는 사리원시 오수정화시설 개건, 지구개발은 사리원시꾸리기 사업임.

〈그림 14〉 사리원시 분야별 건설동향(2012~2022)



출처: 필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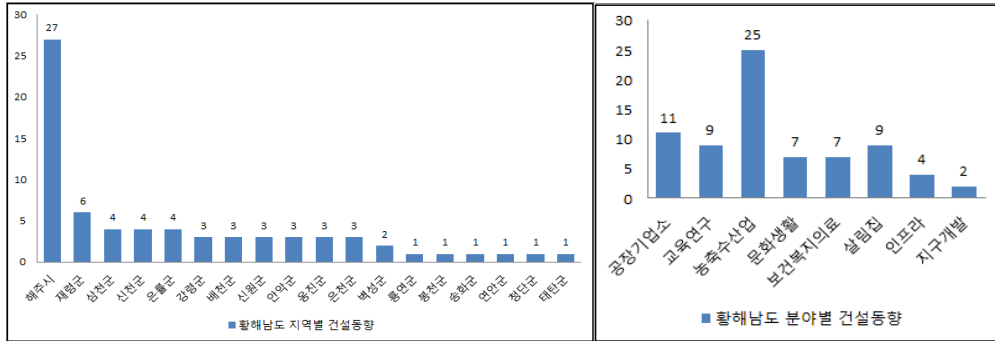
- 한편 사리원시 건설동향을 위성영상을 통해 확인한 결과 동상지구의 8층 이하 아파트 단지가 건설 중에 있으며, 사리원역 역전동 지역 소규모 아파트가 건설되는 정도에 머물고 있음.

○ 황해남도 해주시

- 황해남도 지역별로는 도 소재지인 해주시가 높게 나타나며, 재령, 삼천, 신천, 은륜군 순으로 건설동향이 나타남.

- 분야별로는 농축수산업이 가장 높게 나타나 농업대단위 지역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공장기업소, 교육연구, 살림집 순으로 확인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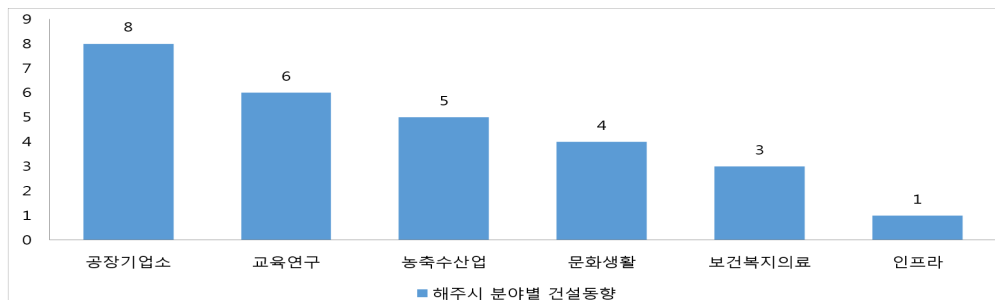
〈그림 15〉 황해남도 지역별·분야별 건설동향(2012~2022)



출처: 필자 작성.

- 해주시 분야별로 공장기업소, 교육연구, 농축산업, 문화생활, 보건복지의료 순으로 나타남.
- 공장기업소는 수양산강냉이가공공장, 수양산은하피복공장, 좌양산샘물공장, 해주대경가공사업소, 해주맥주공장, 학습장공장, 은정맥주공장 등이 건설됨.
- 교육연구는 조옥희해주교원대학 체육관, 청소년체육학교, 고아원(육아, 애육, 초등, 중등)과 해주잔디연구소 건설이, 농축수산업은 남새온실, 그물우리양어장, 종금장, 미꾸라지종어못 건설이 완공됨.
- 문화생활은 민속공원, 잔디축구장, 해주청년야외극장이, 보건복지의료는 보건산소공급소, 수의방역소, 인프라는 해주오물처리장 건설이 완공됨.

〈그림 16〉 해주시 분야별 건설동향(2012~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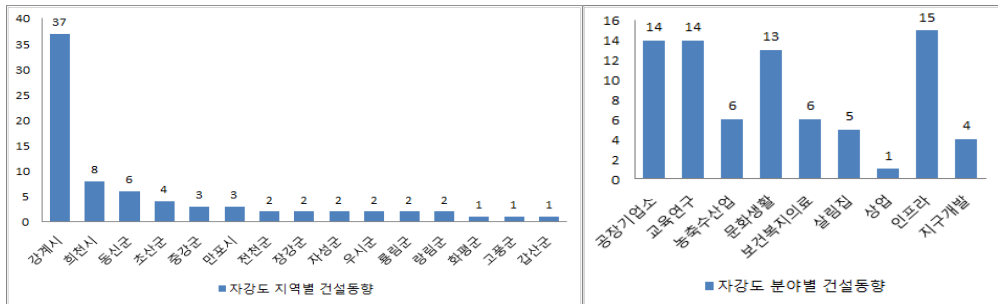
출처: 필자 작성.

- 해주시의 특징적인 것은 해주항 개선사업, 해주시멘트공장 철거, 해주제련소 (린비료공장) 개선, 해주물놀이공원, 해주학생소년궁전, 호텔건설 등이 진행 중에 있음.

○ 자강도 강계시

- 자강도 지역별 건설동향은 강계시를 시작으로 희천시, 동신군, 초산군 순으로 나타났으며, 대체로 지역 평균 건설동향이 타지역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남.
- 반면, 분야별로는 타 지역보다 인프라, 공장기업소, 교육연구, 문화생활 건설동향이 월등히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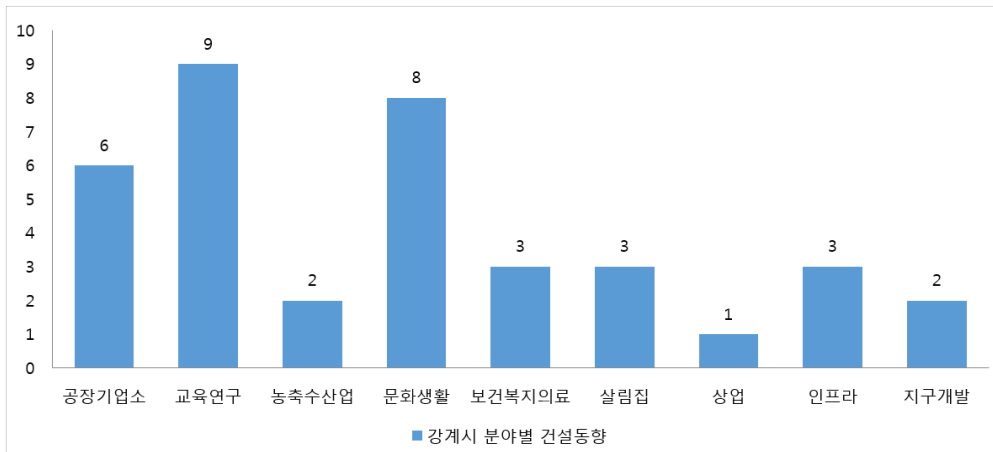
〈그림 17〉 자강도 지역별·분야별 건설동향(2012~2022)



출처: 필자 작성.

- 강계시 분야별 건설동향은 교육연구, 문화생활, 공장기업소 건설이 높게 나타났으며, 타 도시대비 인프라, 지구개발 건설이 많은 것으로 확인됨.
- 교육연구는 강계교원대학, 장자산소년단야영소, 배움의 천리길 학생소년궁전을 비롯한 교육시설과 강계잔디연구소, 자강도기상수문분국, 도시설계연구소가 건설됨.
- 문화생활은 강계스키장, 강계체육관, 강계입체울동영화관, 인민풍속교재원, 예술극장, 잔디축구장이, 공장기업소는 강계가방공장, 강계고려약국가공공장, 자강첨가제공장, 편직공장 등이 건설됨.
- 농축수산업은 버섯공장, 모체양묘장이 보건의료는 보건산소공급소, 양로원, 양생원이, 살림집은 농촌문화주택 1,000여동, 공귀동지구 200여세대, 상업은 인풍원(식당), 인프라는 강계시 오물처리공장, 홍주청년 3, 4호 발전소, 지구개발은 외룡동 정비사업, 홍주 남새전문협동농장마음이 건설됨.

〈그림 18〉 강계시 분야별 건설동향(2012~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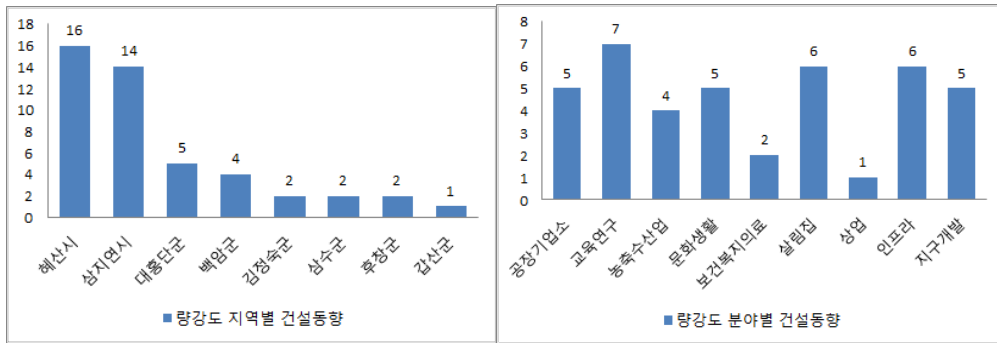
출처: 필자 작성.

- 대표적인 특징은 외룡동 남쪽에 위치한 독산동지구와 남천동 장자강변 지구 살림집(고층아파트) 건설이 상당수 완공되고 류동지구, 북문동, 남산동, 만수동 지역 공공시설 건설이 추진중에 있어 청진, 평성, 신의주와 함께 도 소재지 중에서 가장 많은 개발사업이 추진되는 것으로 확인됨.

○ 량강도 혜산시

- 량강도 지역별 건설동향은 도 소재지인 혜산시가 가장 많고 삼지연시가 새롭게 재건됨에 따라 높게 나타났으며, 대흥단군, 백암군 순으로 확인됨.
- 분야별은 다른 지역보다 살림집, 인프라, 지구개발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온 반면, 상업, 보건복지의료, 공장기업소는 타 지역과 유사함. 또 다른 특징은 건설공사가 완공된 지방이 다른 도보다 현저히 적다는 점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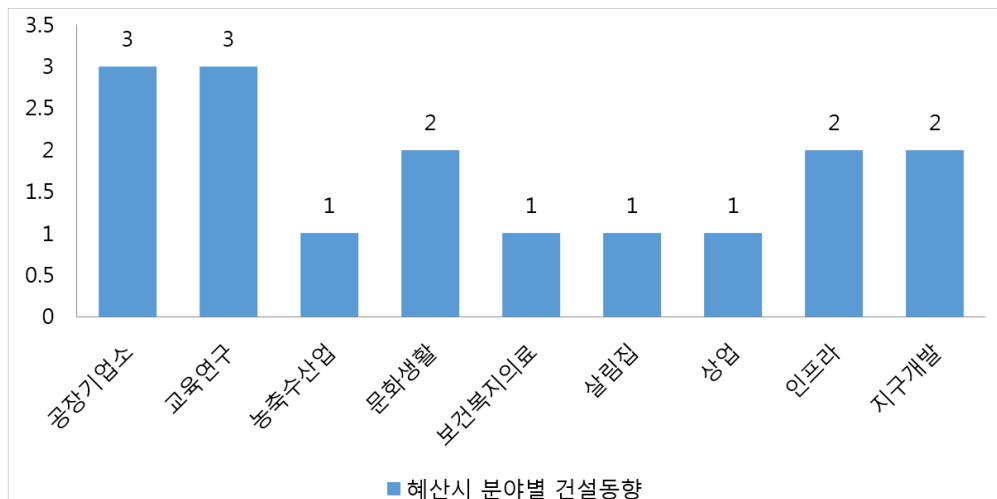
〈그림 19〉 랑강도 지역별·분야별 건설동향(2012~2022)



출처: 필자 작성.

- 혜산시 분야별 동향은 공장기업소, 교육연구, 문화생활, 인프라, 지구개발 순으로 나타남.
- 공장기업소는 혜산세멘트공장, 가방공장, 김치공장이, 교육연구는 산림과학연구소, 고아원(육아원, 애육원), 중등학원이, 농축수산업은 련봉지구 남새온실이 건설됨.
- 문화생활은 혜산청년광산문화회관, 혜산체육관, 보건복지의료는 양로원, 상업은 봉화원, 인프라는 태양빛발전소, 혜산시 정화장, 지구개발은 혜산청년광산지구, 혜산시꾸리기 사업이 완공됨.

〈그림 20〉 혜산시 분야별 건설동향(2012~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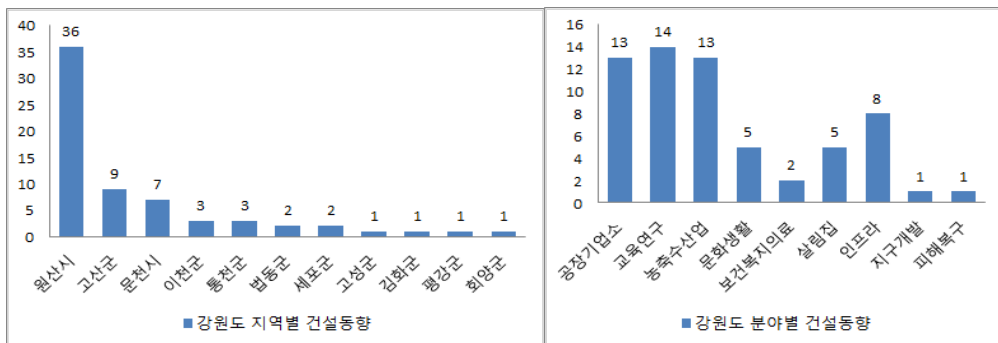
출처: 필자 작성.

- 해산시는 전국 도 소재지 중에서도 가장 정체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삼지연 관광을 연계한 위연지구 재건, 해흥동, 해장동 일부 고층건물어 건설되고, 맞은편 중국 장백지구 개발이 확대되면서 그 영향을 받아 개발이 확장될 가능성이 높음.

○ 강원도 원산시

- 강원도 지역별 건설동향은 원산시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고산군, 문천시 순으로 확인되었으며, 이외 군 단위의 건설동향은 낮거나,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됨.
- 분야별 건설동향은 교육연구, 공장기업소와 농축수산업, 인프라 순으로 나타났으며, 지구개발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21〉 강원도 지역별·분야별 건설동향(2012~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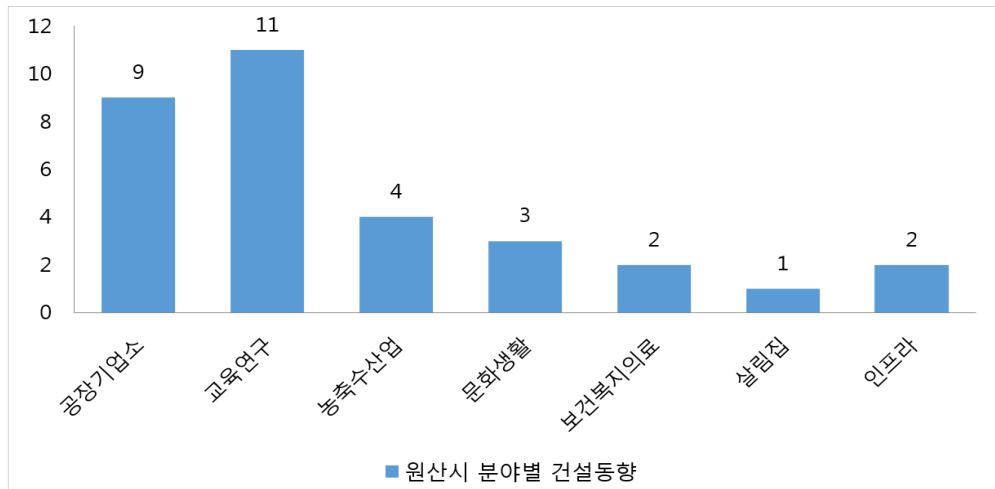


출처: 필자 작성.

- 원산시 분야별 건설동향은 교육연구분야, 공장기업소, 농축수산, 문화생활 순으로 확인됨.
- 교육연구는 농업과학연구소, 원산남새연구분소와 명석소학교, 송천고급중학교, 고아원(육아원, 애육원, 초등학교, 중등학교), 원산농업종합대학 건설(개건)이 완공됨.
- 공장기업소는 갈마식료공장, 기초화학생산공장, 매봉샘물공장, 원산구두공장(개건), 강냉이가공, 원산어구종합공장, 영예군인수지일용품공장(개건)이, 농축수산업은 강원도수산사업소, 강원도양묘장, 강원도학원물자공급소 종합축사, 송천남새전문협동농장이 건설됨.
- 문화건설은 강원도예술극장, 해안유희장, 로라스케이팅장, 보건복지의료는 수의

방역소, 강원도의약품관리소, 살림집은 원산군민발전소 종업원살림집, 인프라는 송도원역, 원산군민발전소가 건설됨.

〈그림 22〉 원산시 분야별 건설동향(2012~2022)



출처: 필자 작성.

- 원산시는 원석동, 해방동, 개선동, 양지동 일대 소규모 고층아파트와 송천남새온실이 건설 중에 있으며, 원산해양도시 개발계획은 크게 진척되지 못하고 있음.

□ 도시의 시장화와 지방건설

○ 지방도시 건설동향 특징

- 지방도시에서 건설동향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지역은 주로 도소재지와 일부 모텔화를 위한 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특히 국가적 지원을 제외한 도소재지 지역 중에서도 건설동향이 분명하게 나타나는 도시는 시장화와 밀접한 연계를 가진 도시라는 점임.

○ 지방도시 건설의 모델도시 삼지연

- 먼저 김정은 체제 이후 농촌발전의 대표적인 모델로 제시한 삼지연시는 국가적 건설역량을 집중해 2013년 1단계를 시작으로 2021년 3단계까지 완공한 대표적인 사례임.

〈그림 23〉 재건사업이 완료된 삼지연시



출처: Google Earth 캡처.

- 이러한 지방도시는 도시가 가지는 정치적 위상과 지역적 특성(관광)이 결합된 결과로 중앙에서 추진된 지방도시 건설이라는 점에서 다른 지방도시와 큰 차이가 있음.
- 물론 김정은 체제 이후 지방도시의 도시화가 빠른 속도로 추진된 측면이 있으나, 2017년 대북제재 강화로 합영 및 합작투자의 중단, 코로나19로 대외무역 중단에 따른 건설자재 수입 중단, 건설투자에 필요한 자원부족 등으로 지방건설이 위축되는 결과로 나타남.
-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건설이 일정 수준으로 지속되고 있는 지방도시는 일부 도 소재지로 도시개발에 필요한 자원이 시장화를 통해 조달되는 이른바 부자도시들이 존재함.
- 도시화가 지속되고 있는 지방도시는 청진, 평성, 강계, 혜산, 신의주(국가급전환)로 외형적으로 건설이 지속되고 있음이 확연히 드러나고 있음.

○ 청진시 개발지구와 시장화의 접근성

〈그림 24〉 청진시 해안문화도시 건설계획과 건설동향



출처: Google Earth 캡처.

- 청진시 포항구역은 도 소재지인 청진을 해양문화도시로 건설한다는 목표아래 추진된 대표적인 지방도시 건설로 2012년 포항구역 남강동 광장지구 고층아파트 건설을 시작으로 동해안 연안까지 건설을 추진하고 있음.
- 해안문화도시 건설계획에 따라 기존의 청진제강소 일부를 철거하고 철강공장을 설치해 건설에 필요한 철근자재를 현장에서 공급하고 고무산 시멘트 공장으로부터 시멘트를 공급받아 건자재를 보장함으로써 빠른 속도로 건설이 추진됨.
- 코로나19 이후인 2020년부터 2022년 사이 중앙광장과 해안광장을 완료하고, 주변의 고층형(20층이상) 주상복합 아파트의 상당부분을 완료했으며, 야외청년극장, 경성단고기집, 청진관, 청진대극장 등 문화시설 건설을 완공하는 등 주요 성과들이 확인되고 있음.

〈그림 25〉 시장화와 연계된 포항구역, 수남구역 도시화지역



출처: Google Earth 캡처.

- 시장화와 연계된 주변지역 도시화 현상은 해안문화관광 계획 구역의 큰 규모의 청년공원시장, 포항구역 수원동의 수원시장(고급상품), 수남구역 수남시장과 연계된 물류산업 및 도시화와 연계되어 나타남.
- 특히 청진시는 북한의 평성시와 함께 대표적인 종합물류 시장(북부와 남부를 연결)이 자리하는 지역으로 시장화에 따른 재원조달 용이하고 지방자체로 건재공업에 필요한 주요 산업공장들을 갖추고 있어 도시건설이 지속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음.

○ 강계시 개발지구와 시장화의 접근성

- 강계시는 산간지역에 위치한 대표적인 도 소재지로 산간벽지에 맞는 도시개발을 목표로 2012년 남문동, 부창동 아파트 건설과 정제되어 있던 독산지구 건설이 본격화되었으며, 장자강 기슭에 광장을 비롯해 강서동, 북문동, 류동지구 공공시설 및 아파트 건설로 확대함.
- 김정은의 지시에 따라 강계시를 특색 있는 산간도시로 조성한다는 계획아래 만포8월2일시멘트공장, 희천타일공장, 강계강철공장으로부터 시멘트, 타일, 철근을 공급받아 빠르게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
- 특히 대북제재와 코로나19로 대외무역이 중단되면서 재원문제, 원자재문제, 에너지문제가 상존하는 속에서도 개발 지구를 중심으로 건설동향이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여러 건설 성과들이 외형적으로 확인되고 있음.

〈그림 26〉 강계시 도시개발 현황



출처: Google Earth 캡처.

- 강계시 시장화와 연계된 개발지구는 남천동 지구와 외룡동, 독산동 지구로 도시개발에 따른 시장화의 확산으로 이어져 청진시나, 평성시와는 또 다른 형태로 도시개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됨.

〈그림 27〉 시장화와 연계된 강계시 외룡-독산, 남문-남천개발지구



출처: Google Earth 캡처.

- 강계시는 서쪽의 만포시, 북쪽의 장강군, 동쪽의 랑림군 남쪽의 성간군, 전천군, 송원군, 희천시, 향산군으로 이어지는 중심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시장의 수요가 집중될 뿐만 아니라 자강도의 종합도매역할을 함.
- 강계시의 지리적 이점은 개발지구의 시장수요를 키우는 동시에 주변의 물류산업과 주거수요를 높인다는 점에서 향후 신흥부자도시로 주목되고 있음.

○ 평안남도 평성시

- 평성시는 평안남도 도 소재지인 동시에 평양시 룡성구역 은정동과 접해있는 위성 도시로 수도의 특수를 누리는 대표적인 물류산업 도시이며, 2012년부터 중덕동, 양지동, 역전동, 냉천동 일대를 중심으로 주거 및 공공시설 개발이 점차적으로 진행되어 왔음.

〈그림 28〉 평성시 주요 개발지역(2014년 기준)



출처: Google Earth 캡처, 필자 작성.

- 평성시는 남부지역 평양시의 은정과학기술지구 개발의 영향을 받아 순천시멘트 공장과 천리마제강, 천리마타일공장 등으로부터 건재를 공급받아 도시개발 건설을 추진해왔으며, 가장 많은 변화는 역전동과 중덕동 아파트 대단지 건설임.

〈그림 29〉 평성시 역전동, 중덕동, 옥전동 지구개발 전후 모습(2013, 2021)



출처: Google Earth 캡처, 필자 작성.

- 특히 평성시의 변화는 서쪽의 신의주와 남서쪽 남포지구, 남쪽의 평양시, 북쪽의 순천, 개천, 동쪽의 원산, 함흥을 연결하는 중심지역으로 종합도매시장의 물류역할을 수행하는 도매시장도시임.
- 이러한 지리적 이점은 다른 지역의 시장수요를 공급하는 역할과 동시에 시장주변의 물류산업을 통한 거대 시장도시화로 성장하는 부자도시로 자리잡고 있음.

V. 나오며

○ 지방건설의 분야별 특징(동향에 따른 건설역량)

- 분야별로 나타나는 지방건설 동향은 도소재지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으며, 도시의 성격에 따라 분야도 다양하게 나타남.
- 분야별로 나타나는 대표적인 특징은 농업대단위를 중심으로 농축수산업시설에 대한 건설동향이 활발하며, 농촌살림집 건설 동향이 높은 것으로 확인됨.
- 또한 산간지역이 많은 동부, 북부지역에서는 발전소 완공에 따른 인프라 건설 동향이 높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음.
- 지방건설동향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대상은 산업부분에서 김치공장, 샘물공장과 같은 특정 지방공업과 교육연구는 품질분석, 산림과학연구소, 육아원, 애육원, 초등학교와 같은 국가적 건설대상들임.

○ 지방공업과 건설동향의 연관성(건설역량)

- 김정은 체제가 들어선 이후 지방도시 건설이 활발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모든 지방도시가 활발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었음.
- 지방공업이 활발한 지역이 반드시 지방도시 건설로 이어지지 않는 것으로 확인됨. 예컨대 함흥시, 원산시, 해주시도 지방공업이 다른 도소재지 지역에 비해 높은 반면 지방건설동향은 소규모로 이루어지거나 침체되어 있음.
- 대부분의 도소재지는 도시건설에 필요한 건재산업을 구축하고 있어 건설역량을 일정정도 갖추고 있음에도 청진, 강계, 평성과 같은 도시들과 달리 건설동향이 정체되어 있음.

○ 지방도시 건설의 시장화

-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하는 도소재지 신의주시와 특별시급 평양, 남포, 개성, 나산을 제외한 나머지 도소재지의 건설동향이 활발한 도시는 시장화와 연관성이 깊은 것으로 확인됨.
- 도시건설이 활발한 청진시, 평성시, 강계시의 공통점은 지리적 이점에 따른 시장화가 확산된 대표적인 도시들이라는 점임.
- 청진시는 남부와 북부, 북서부를 잇는 북부의 대표적인 종합도매시장 도시라는 점, 평성시는 남쪽의 평양, 남포, 동쪽의 원산, 함흥, 서쪽의 신의주, 서북쪽의 순천, 개천과 연계된 남부를 대표하는 종합도매시장 도시라는 점, 강계는 남부의 희천, 평성, 서쪽의 만포, 북부의 주요 군 단위수요를 공급하는 종합도매시장화가 이루어지고 있음.
- 이러한 결과는 곧 지방도시 건설의 동력 즉 건설역량은 근본적으로 지역의 시장화와 상당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으며, 외성영상을 통해 확인되는 지구개발은 시장을 통한 자원조달이 가능하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됨.

세션2

도시담론과 이데올로기로 본 김정은 집권 10년

발표1

김정은 집권 10년, 북한의 도시건설 담론
박소혜 (국회도서관)

발표2

“도시부럽지 않은”
: 김정은 집권 10년, ‘작은’ 도시 이데올로기의 출현
황진태 (통일연구원)



발표1 김정은 집권 10년, 북한의 도시건설 담론

박소혜(국회도서관)

I. 서론

2022년 북한은 미사일 도발이 급증한 해이기도 하지만 대외적 분위기와는 별개로 도시의 풍경들도 크게 달라졌다. 2021년 8차 당대회에서 선언한 평양 5만세대 살림집건설 계획에 따라 수도 평양의 도시구획을 동서 방향과 북쪽으로 확장했다. 건설은 “시대가 도달한 정신적높이와 국력의 집합체이며 문명과 발전에로의 큰걸음”이라는 김정은 위원장의 언급대로 건설에 총력을 쏟았는데, 이 모든 것은 오직 ‘인민’들을 위한 건설정책이라며 김정은의 ‘인민대중제일주의’ 사상을 대대적으로 띄웠다.⁵⁾ 그러면서도 이는 북한이라는 ‘국가’를 대내외에 보여주는 국가적 사업이기도 했다. 즉 건설은 도시의 경관을 바꾸고 인민의 생활을 바꾸며 나라의 면모를 일신시키는 것으로서 “시대를 역사에 기록”하는 작업으로 규정한다.

평양 5만세대 살림집 건설 가운데 하나인 화성지구 건설에서는 ‘화성속도, 화성신화’가 새로운 경제구호로 떠올랐고,⁶⁾ 송화거리는 ‘전면적발전의 새시대 상징의 첫 실체’로 의미가 부여되었다. 건설은 ‘우리식 사회주의문명부흥’이며, 송화거리건설은 ‘우리식 사회주의의 참모습을 힘있게 실증’하는 실체물로 간주되었다. 그러면서 수도 평양의 모습은 ‘김정은시대’를 나타내는 인민사랑의 기념비로 변모될 것이라고 전망했다.⁷⁾ 평양 중구역 경루동에는 김일성의 터전을 철거한 뒤 보통강강안 다락식주택구를 만들어 공로를 세운 인민에게 배정하며 ‘우리식 문명의 창조물’임을 강조했다.⁸⁾ 건설은 선대 지도자인

5) 김정은, “5만세대 살림집건설로 우리 수도를 다시한번 웅장하게 변모시키자: 평양시 1만세대 살림집건설 착공식에서 하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연설(2021년 3월 23일),” 『로동신문』, 2021년 3월 24일.

6) “화성지구 1만세대 살림집건설착공식 진행,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착공식에 참석하시어 뜻깊은 연설을 하시었다,” 『로동신문』, 2022년 2월 13일.

7) “우리식 사회주의문명부흥의 새 전기를 펼친 인민사랑의 기념비, 송화거리 준공식 성대히 진행,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준공테이프를 끊으시었다,” 『로동신문』, 2022년 4월 12일.

김일성의 흔적을 지속시키는 것이면서도 물리적으로는 김일성의 흔적을 지운 터전 위에 ‘김정은시대’의 상징을 쌓아 올리는 것이기도 하다. 즉 건설은 지도자의 통치와 직결된다. 평양 송화거리와 보통강강안다락주택구 준공식이 태양절을 앞둔 4월 12일과 14일에 준공되는 등 수많은 건설 사업들이 태양절이나 당창건일 등 북한의 주요 기념일을 기한으로 하거나 준공일로 한다는 점 역시 건설과 통치의 직접적 연결을 보여준다.

올해는 수도 평양 말고 농촌마을에도 속속 살림집이 들어섰다. 황해남도 청단군 금학지구, 개성시 덕암농장마을, 함흥시 동흥산구역 부민농장, 염주군 내중농장 등에 들어선 살림집에 살게 된 농업근로자들은 ‘사회주의리상촌의 주인, 사회주의문명의 창조자이자 향유자’로 묘사된다.⁹⁾ 평양을 비롯한 농촌에서의 살림집 건설은 ‘김정은 령도’를 실증한다. 사상을 강조하는 북한에서 건설은 사상의 ‘실천’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자 사상의 결과로서 입증된 ‘실물’이다.

특히 김정은 시대의 건설은 어려운 조건과 환경 속에서 북한이 북한이라는 국가를 보여주는 수단으로도 언급된다. 한미연합훈련에 대응한 미사일 발사가 이어진 가운데, “우리 국가는 남들 같으면 열백번도 더 주저앉을 미증유의 시련 속에서도 위대한 승리와 천지개벽의 역사를 펼치며 줄기찬 발전을 이룩해나가고 있다”라며 도시건설로써 북한의 건재를 대외에 과시한다.¹⁰⁾

김정은 집권 이후 건설은 인민들을 위한 문명과 발전의 실체, 국력의 과시로서 김정은 시대의 중심 사상인 ‘인민대중제일주의’와 ‘우리 국가제일주의’를 드러내고 있다. 인민대중제일주의를 대내적 차원으로, 우리 국가제일주의를 대외적 차원이라고 단순히 구분해 봤을 때, 인민대중제일주의를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건축구상과 건설정책의 결과물은 ‘도시건설과 건축물’이며, 대외적으로도 북한의 발전을 보여주는 가시적 성과이기도 하다. 따라서 김정은 정권의 통치전략 중심에 ‘도시건설’이 있다.

‘도시건설’에서 ‘건설’은 크게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가장 큰 단위에서는 ‘도시’를 건설하는 것이고, 도시는 ‘거리’ 건설들로 이뤄지며, 거리는 개별적인 ‘건축물’들의 건설

8) “우리 당의 인민대중제일주의리념과 주체건축의 비약적발전상이 응축된 평양의 새 경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보통강강안다락식주택구 준공식에 참석하시여 준공테이프를 끊으시었다,” 『로동신문』, 2022년 4월 14일.

9) 송철, “《멋진 우리 집이 솟아납니다》 새 살림집들이 일떠서고있는 여러 농촌마을에서 올려나오는 목소리,” 『로동신문』, 2022년 9월 1일.

10) 김성남, “주체조선의 도도한 진군은 우리당 혁명 노선의 과학성과 생활력의 뚜렷한 과시이다,” 『로동신문』, 2022년 11월 6일.

로 구성된다. 또한 도시건설들의 집합은 국가건설의 구체적인 모습이 된다. 김정은 정권이 김정은 시대의 국가를 건설하는 방식은 수도 평양 건설을 본보기로 삼아 지방 도시로 확대하고, 평양은 새로 조성된 거리를 중심으로 반경을 넓혀가며, 새로 지은 살림집에는 국가가 선택한 인민을 배정하면서 도시의 ‘재건설’이 전개된다. 이러한 관계들의 위상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도시-거리-건축물’ 위상과 특징

구분	단위	성격	특징
건설	국가	이념적/추상적	- 김정은 시기에는 ‘국가’도 ‘도시’도 ‘거리’, ‘건축물’, ‘인민’도 모두 ‘새롭게 건설’되는 것임.
	도시	종합적	- 김정은 시기 도시건설은 수도 평양을 ‘본보기’ 삼아 지방으로 확대한다는 논리를 제시함
	거리	구체적/종합적	- 김정은 시기 수도 평양은 ‘거리’를 중심으로 재건설되고 있음
	건축	건축물	- 살림집은 국가가 배정, 새 건축물도 이용 대상이 있음. 즉 인민은 국가에 선택되는 존재임

출처: 필자 작성.

북한 역시 건축물, 거리, 도시의 관계를 염두에 두고 “건축물의 립면이 굴곡있고 변화 있게 형성되어야 도시와 거리, 마을이 자기의 고유한 특징이 살아나게, 황홀하고 특색있게 꾸려질 수 있다”라고 설명한다.¹¹⁾ 또한 건축군과 살림집군, 도시는 개별적인 건축물과 건축군, 거리의 조화로운 결합으로 형성된다고 보고 있다.¹²⁾ 따라서 이 글에서는 북한의 도시건설 담론의 전개와 함께 구체적인 도시건설의 사례, 즉 거리와 건축물의 사례를 함께 살펴볼 것이다.

본 글의 구성은 김정은 정권의 통치이념과 목표를 살펴본 뒤 통치전략과의 관계 속에서 도시건설 담론이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를 분석한다. 이어 도시건설 담론이 구체화된 도시건설 사례를 ‘과학, 미래, 환경’이라는 3가지 키워드로 구분하여 제시할 것이다.

11) 김용혁, “건축물의 립면을 특색있게 형성하는 것은 건축창조에서 나서는 선차적이며 필수적인 요구,” 『조선건축』, 제3호(평양: 공업출판사, 2018), p. 3.

12) 박창식·리은광, “도시건축형성에서 예술적호환성에 대한 일반적리해,” 『조선건축』, 제4호(평양: 공업출판사, 2019), p. 4.

II. 김정은 정권의 통치이념과 목표

1. 통치이념의 전개

김정은 시대는 김정일의 통치이념을 이어가는 유신통치로 시작한다. 2012년 김정은은 김일성의 주체사상과 김정일의 선군사상을 계승한다는 의미에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제기하고¹³⁾ 이를 당 규약에서 조선로동당의 지도지침으로 명시한다.¹⁴⁾ 2016년 제7차 당대회에서는 ‘김일성-김정일주의’를 당의 최고강령으로 규정했으며, 2019년 헌법 개정을 통해 공화국의 유일한 지도적 지침으로 선언한다. 그러면서도 김정은은 2012년을 ‘새로운 주체 100년’으로 명명하고 ‘김정은 시대’를 만들어나간다. 2012년은 김일성이 태어난 지 100년이 되는 해로 북한식 연도 표기법인 주체년호로는 주체 101년에 해당한다. 김정은 통치의 시작과 맞물리면서 김일성의 권위를 김정은의 것으로 용어화한 것이 ‘새로운 주체 100년’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새로운 주체 100년’을 만들어가는 김정은의 통치가 펼쳐지는데, 건설은 그 구체적인 실체물이다. 김정은은 이 시기를 ‘건설의 전성기’라고 부르며 나라의 면모를 변화시켜 나가는 데 집중한다.

‘김일성-김정일주의’의 본질은 ‘인민대중제일주의’로 설명되었고,¹⁵⁾ 이후 ‘김일성-김정일주의’보다는 ‘인민대중제일주의’가 더 빈번하게 김정은의 통치이념을 뒷받침하는 사상으로 등장한다. 주체사상과 선군사상도 ‘인민대중제일주의사상’이었다며 7차 당대회에서 김정은의 사상으로 자리 잡은 ‘인민대중제일주의’는 2021년 8차 당대회에서도 전면 부각되어 김정은 시대의 핵심 통치이념임을 알린다. 2022년 현재 인민대중제일주의는 당의 근본이념이자 정치철학으로서 인민에게 보다 행복하고 문명한 생활을 안겨주는 목표와 연결되고 있다.¹⁶⁾

김정은 시대 구호 중 하나인 ‘자강력제일주의’는 2016년 신년사에서 등장한 뒤 2016년 7차 당대회에서 전략적 노선으로 강조되었다.¹⁷⁾ ‘자강력제일주의’는 대북 제재라는

13) 김정은,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의 영원한 총비서로 높이 모시고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해나가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과 한 담화(2012년 4월 6일),” 『로동신문』, 2012년 4월 19일.

14) “조선로동당규약 서문, 조선로동당,” 『로동신문』, 2012년 4월 12일.

15) 김정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제4차 세포비서대회에서 하신 연설(2013년 1월 29일),” 『로동신문』, 2013년 1월 30일.

16) “사설: 새시대 5대당건설방향을 따라 전당강화발전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가자,” 『로동신문』, 2022년 10월 21일.

17) 김정은,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한 당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2016년 5월 7일),” 『로동신문』, 2016년 5월 8일.

대외 위기 환경 속에서 등장했지만 2020년 정면돌파전을 제기하기까지¹⁸⁾ 북한은 전 분야에서 ‘자력갱생’을 강조하며 인민을 동원한다. 건설 부문에서도 외부의 도움 없이 자체의 자원과 노력으로 이룬 것을 ‘자력갱생’과 ‘자강력’의 상징으로 부각해 왔다.¹⁹⁾ 이러한 사례를 통해서도 볼 수 있듯이 북한은 대외적인 위기를 국가건설 고무에 활용해 온 면이 있다. 즉 제재 극복 수단을 대외관계에서 찾는 대신 내부에서 자력갱생으로 헤쳐나가자고 하는 면에서 건설에 인민들을 동원하고 있다.²⁰⁾

또 다른 김정은 시대의 구호로 ‘우리 국가제일주의’는 2017년 11월 29일 북한이 화성-15형 발사 성공으로 국가핵무력 완성을 선언하면서 등장했다.²¹⁾ 이후 ‘우리 국가제일주의’는 사회주의강국 건설을 위해 대내적 결속을 꾀하는 사상으로 활용되고 있다. 김정일 시대에는 ‘우리 민족제일주의’와 ‘조선민족제일주의’가 애국을 호소하는 구호였다면, 김정은 시대에는 ‘민족’ 대신 ‘국가’를 내세운 ‘우리 국가제일주의’가 경제발전을 호소하는 애국의 구호로 정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8차 당대회 이후 ‘우리식 사회주의의 전면적부흥’을 내세우며 소집된 2021년 9월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우리 국가제일주의’를 전면적으로 구현해 나가는 획기적인 발전단계에 들어섰다고 언급한다.²²⁾ 이때 ‘우리 국가제일주의’는 ‘우리식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발전’이라는 목표를 뒷받침하는데, ‘자력갱생’ 또한 수단으로 제시된다. 한편 ‘우리식 사회주의’는 김정일 시대 이후 언급됐던 ‘우리 식 사회주의’ 구호가 김정은 집권 10년을 맞아 국가목표로서 고유명사가 되었음을 ‘우리식’의 붙여쓰기 어법의 변화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²³⁾ 즉 ‘우리식 사회주의’는 김정은 정권이 내세우는 국가목표의 방향이면서 궁극적인 도달점으로서 재규정되고 있는 통치이념이라고 할 수 있다.

18)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전원회의에 관한 보도,” 『로동신문』, 2020년 1월 1일.

19) 전만길, “론설: 절세위인들을 모시여 년대와 세기를 이어 승승장구하는 주체건축,” 『조선건축』, 제5호 (평양: 공업출판사, 2018), p. 7.

20)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전원회의에 관한 보도,” 『로동신문』, 2020년 1월 1일.

21) “사설: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 민족의 대경사, 위대한 조선인민의 대승리,” 『로동신문』, 2017년 11월 30일.

22)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역사적인 시정연설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발전을 위한 당면투쟁방향에 대하여>를 하시였다,” 『로동신문』, 2021년 9월 30일.

23) 박소혜, “김정은 정권의 ‘우리식 사회주의’ 의미 변화와 시사점,” 『국가안보와 전략』, 제22권 3호(2022), p. 87.

2. 강국과 문명국의 시각화로서 도시건설

건설이 통치전략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보여주는 김정은 정권의 초기 문건으로 2012년 5월 8일 ‘국토관리총동원운동열성자대회’에서 전달된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요구에 맞게 국토관리사업에서 혁명적전환을 가져올데 대하여”가 있다.²⁴⁾ 북한의 국가목표는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이며 이를 위해 수도부터 지방도시까지, 산과 강, 바다를 아우르며 국토관리사업을 펼쳐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평양에 대해서는 혁명적수령관이 선 혁명의 수도이자 웅장화려하고 풍치수려한 세계적인 도시로 꾸려야 한다고 강조한다. 김정일이 만수대언덕에 김일성의 동상을 세웠다면 김정은은 만수대언덕에 김정일 동상을 추가하는 것과 함께 금수산태양궁전지구, 만경대혁명사적지 등을 잘 꾸리도록 하여 혁명적수령관이 담긴 평양 건설을 이어가고 있다. 정권 초기 평양은 김정일의 건설 방식을 따르는 유훈통치로 건설 계획이 세워졌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평양은 ‘선군문화의 중심이자 본보기’로 꾸려 지방도시로 퍼져나가도록 해야 하며, 수립화된 도시이자 녹음이 우거진 공원 속 도시로 꾸릴 것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김정은은 평양시의 ‘덩지 큰 건물들’에 불장식을 하여 평양시 야경을 ‘강성국가의 수도답게’ 황홀하고 희한하게 하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는 이후 김정은 정권 내내 야간열병식과 축포 등을 통해 실천된다. 이밖에도 담화에서는 ‘국토의 면모’를 일신하고 ‘풍치’를 좋게 하며, ‘도시미화’를 개선시키는 등의 미관을 중시하는 언급이 일관되게 제시된다.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은 ‘보여지는 나라의 모습’으로 증명될 수 있는 것으로써, 이는 ‘사회주의선경’이라는 말로도 설명되고 있다. 이 담화는 ‘강국’의 모습이 ‘사회주의선경’이자 ‘인민의 락원’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김정은 정권 초기의 건설담론을 보여주고 있다.

김정은 시대가 ‘우리식 사회주의의 전면적 발전’이라는 집권 10년차 국가목표를 제시하기까지 북한의 국가목표는 구체적으로 강성국가 건설과 사회주의문명국 건설이었다. 즉 ‘강국’과 ‘문명’은 김정은 통치전략의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김정은 시대 북한의 ‘부국강병’, 즉 경제와 국방을 상징한다. 김정은 시대 통치전략으로서 ‘강국’과 ‘문명’이 의미하는 바를 정리하면 다음 <표 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24) 김정은,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요구에 맞게 국토관리사업에서 혁명적전환을 가져올데 대하여: 당, 국가경제기관, 근로단체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2012년 4월 27일),” 『로동신문』, 2012년 5월 9일.

〈표 2〉 김정은 시대 통치 키워드 ‘강국’과 ‘문명’ 비교

	강국	문명	비고
나라명	사회주의강국	사회주의문명국	
목표	핵	경제	
구호	자강력제일주의	인민대중제일주의	
성격	- ‘사회주의강국’이 ‘사회주의문명국’보다 포괄적인 개념(‘나라’ 강조) - ‘강병(핵)’이 우선이지만 ‘사회주의경제강국’ 등 ‘부국(경제)’을 포함함.	- ‘사회주의문명국’은 경제사회문화를 포괄하지만 기본은 ‘경제’임(‘인민’ 강조) - 인민생활향상은 대내적 목표이지만 대외적 보여주기 의도가 있음	
키워드	과학	미래, 환경	도시건설 담론의 위치

출처: 필자 작성.

김정은 시대 통치 키워드인 ‘강국’은 대북 제재에 대응해 핵을 내세우며 ‘자강력제일주의’를 구호로 나라를 강하게 만드는 것에 집중한 북한의 목표이다. 김정은 정권 초기에는 김정일의 ‘강성대국 건설’이라는 유훈을 이어받아 ‘사회주의강성국가 건설’이라는 목표로 표현되었지만 점차 ‘강국 건설’이라는 표현으로 활용된다. 김정일 시대의 표현인 ‘강성대국’ 대신 ‘강성국가’라고 표현한 것은 ‘큰 나라’보다는 ‘강한 나라’에 초점을 맞췄다고 해석할 수 있다. ‘강국’은 경제, 과학기술, 문명, 인재, 교육, 청년, 체육, 정치사상, 핵 등을 수식어로 포괄하는 북한의 국가목표다.²⁵⁾ 김정은은 ‘사회주의강성국가’의 징표에 대해 “일심단결, 불패의 군력, 새 세기 산업혁명”이라고 규정하여 국방력과 함께 ‘과학’을 강조한 바 있다.²⁶⁾ 이는 건설 부문에서도 ‘과학’을 강조하는 기조로 연결되고 있다.

김정은 정권의 또 다른 핵심 통치전략용어인 ‘문명’은 물질문화와 정신문화의 총체로서 발전된 문화수준을 일컫는데,²⁷⁾ 2012년 4월 6일 김정은 담화에서 처음으로 등장한다.²⁸⁾ 여기서 사회주의문명국은 교육, 보건, 문학예술, 체육 등 문화건설 모든 부문의 발전을 의미한다. 특히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 법령 발포’ 이후 교육 분야의 발전에서

25) 홍민·강재연·박소혜·권주현, 『김정은 시대 주요 전략·정책용어 분석』(서울: 통일연구원, 2021), p. 31.

26) 김정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 탄생 100돐경축 열병식에서 하신 연설(2012년 4월 15일),” 『로동신문』, 2012년 4월 16일.

27) 『삼흥 3.0판 다국어대사전』(평양: 삼일포정보센터, 2004).

28) 김정은,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의 영원한 총비서로 높이 모시고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해나 가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2012년 4월 6일),” 『로동신문』, 2012년 4월 19일.

‘문명’이 강조되었으며²⁹⁾ 특히 사회주의제도를 대표하는 교육과 보건부문에서 인민들이 ‘문명한 사회주의문화’의 창조자, 향유자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부각하고 있다. 문명국이 문화부문에 그치지 않고 ‘도시건설’에 미친다는 것은 도시 건설을 강조한 부분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2013년 신년사에서 생활·정신·체육 등 문화 분야와 도시건설 등에서 ‘선진적 문명강국’을 세우도록 하는 것으로 개념화되었다. 평양을 더욱 웅장하고 품치수려한 도시로 만들며, 조국산천을 사회주의선경으로 꾸리고, 인민들을 위한 현대적인 문화후생시설과 공원, 유원지들을 더 많이 건설해 인민들이 ‘새시대의 문명한 생활’을 누리도록 해야 한다고 하여 ‘문명국’의 조건이 도시건설에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³⁰⁾ ‘사회주의문명국’ 건설은 사회주의강성국가가 되는 국가 목표이기도 하다. 모든 인민이 문화, 체력, 도덕품성을 지니고 ‘가장 문명한 조건과 환경’에서 사회주의문화생활을 누리며 온 사회에 아름답고 건전한 생활기풍이 넘치는 것이 사회주의문명국이라고 보고 있다.

조선건축가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지인 ‘조선건축’에서 ‘사회주의문명’의 본보기로 언급된 대상물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2014년에는 만수대언덕동상, 문수물놀이장, 마식령 스키장, 미림승마구락부 등 수령 기념물과 함께 인민들을 위한 체육문화시설을 본보기로 제시했다. 2015년에는 미래과학자거리, 옥류아동병원, 2016년에는 평양양로원, 미래과학자거리, 통일거리운동센터, 과학기술전당, 위성과학자주택지구와 미래과학자거리, 장천남새전문협동농장마을 등 평양의 변화와 인민의 웃음이 ‘문명생활의 높이’를 보여준다고 하였다. 2018년에는 제재결의에 도전하며 문명강국 체모와 미적지향을 강조하였으며, 2019년은 자력강생을 강조하며 경제강국 건설의 한 방법으로 ‘문명’이라는 용어를 인민생활향상과 결부해 활용하며 통치의 핵심 키워드로 활용하고 있다.³¹⁾ 건설에서 ‘문명’은 대내적으로 인민이 중심이 되어 누리는 것이지만 대외적으로도 북한의 발전을 보여주려는 의도를 확인할 수 있다. 건설 부문에서 강조되는 ‘미래’나 ‘환경’ 등은 ‘문명’의 구체적인 모습들을 설명한다.

김정은 시대의 근본이념이자 정치의 본질은 ‘인민대중제일주의’ 사상으로 전개가 되는데, 건축에 있어서도 ‘인민대중제일주의건축’이라는 용어가 2013년 12월 김정은의 건설부문일군대강습 서한에서 등장한다.³²⁾ ‘인민대중제일주의’는 2016년 7차 당대회에

29) “우리 나라 사회주의교육제도의 우월성을 더욱 높이 발양시키자,” 『로동신문』, 2012년 9월 27일.

30) 김정은, “신년사,” 『로동신문』, 2013년 1월 1일.

31) 『조선건축』(평양: 공업출판사, 2014~2019).

서 사상으로 공식화되고 2021년 8차 당대회에서 다시 한번 사상과 정치로 전면 부각된다. 이에 비해 ‘건축’이 인민대중제일주의와 결합한 것은 김정은 집권 초반으로 상대적으로 이른 시기인데, 그만큼 인민대중제일주의를 가시적 성과화하는 데 있어 ‘건축’이 중요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북한은 ‘인민대중제일주의건축’ 이념이 구현된 기념비적 창조물로 정권 초기 인민야외빙상장, 류경원, 롤러스케이트장과 같은 인민들의 문화시설과 평양 문수지구의 병원촌 등을 꼽으며 이 건설현장을 일일이 돌아본 김정은의 현지지도가 새 역사를 만들었다고 하고 있다.³³⁾

즉 ‘강국’과 ‘문명’이라는 김정은 시대 통치전략 키워드를 통해 도시건설 담론에서는 ‘과학’, ‘미래’, ‘환경’ 등의 핵심 용어를 추출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김정은 시대 도시건설 담론이 건설에서 구체화하는 모습으로서 과학, 미래, 환경 등의 키워드를 설정해 살펴본다.

III. 김정은 시대 도시건설 담론의 전개

1. ‘건설부문일군대강습’ 김정은 서한으로 본 도시건설 담론의 변화

김정은 정권이 들어서면서 지난 시기와 달리 처음으로 개최한 행사 가운데 하나가 ‘건설부문일군대강습’이다. 2013년에 제1차 건설부문일군대강습이 열렸고,³⁴⁾ 10년 가까이 지난 2022년 제2차 건설부문일군대강습이 개최되었다.³⁵⁾ 김정은 위원장은 1차와 2차 행사에서 모두 서한을 보내 건설과 관련한 구상을 밝혔다. 김정은 정권 초기와 10년 뒤인 현재의 건설구상을 비교할 수 있다는 점에서 통치전략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두 서한의 특징과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 정권이 당과 국가목표로 강국과 문명국을 건설한다는 맥락에서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다만 이를 표현하는 수사에 있어서 2013년 1차 행사에서는 ‘사회주의강

32) 김정은, “당의 주체적건축사상을 철저히 구현하여 건설에서 대변영기를 열어나가자: 건설부문일군대강습 참가자들에게 보낸 서한(2013년 12월 8일),” 『로동신문』, 2013년 12월 9일.

33) “조선중앙통신사 보도: 사회주의문명국의 휘황한 미래를 펼친 건설의 대변영기,” 『로동신문』, 2022년 2월 8일.

34) 김정은, “당의 주체적건축사상을 철저히 구현하여 건설에서 대변영기를 열어나가자: 건설부문일군대강습 참가자들에게 보낸 서한(2013년 12월 8일),” 『로동신문』, 2013년 12월 9일.

35) 김정은, “새로운 건설혁명으로 우리식 사회주의의 문명발전을 선도해나가자: 제2차 건설부문일군대강습 참가자들에게 보낸 서한(2022년 2월 8일),” 『로동신문』, 2022년 2월 9일.

국’, ‘사회주의경제강국’이라고 했다면, 2차 행사에서는 ‘문명부강한 강국’, ‘위대한 강국’이라고 한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사회주의문명국’은 두 대회 모두 공통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는 통치이념이 김정은 집권 10년을 맞아 ‘우리식 사회주의’로 공식화하면서 ‘사회주의’보다는 ‘우리식’에 강조점을 두게 된 것과 연결해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북한의 국가목표가 ‘사회주의강국’에서 ‘우리식 사회주의의 문명발전’으로 세밀하게 조정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강국’건설과 ‘문명국’건설이라는 김정은 정권의 목표는 변함없지만, ‘문명’의 개념이 좀 더 확장되며 건설담론 속에서 활용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현시대에 대한 명명의 차이이다. 2013년은 김정은 집권 초기로 “21세기 새로운 문명개화기, 새로운 주체 100년대”로 표현한다. 이는 정권의 시작을 강조한 수사로서 1912년생인 김일성이 탄생 100년이 되는 2012년에 의미를 둔 것이다. 김정은은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인 김일성에 이어 ‘새로운 주체 100년대’를 여는 지도자로서 새롭게 문명이 ‘개화’한다고 했다. ‘새로움’과 ‘시작’을 나타내는 역할을 ‘건설’에서 찾는 것이다. 이에 비해 2022년을 명명한 시대는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고조기, 전면적발전기’로서 김정은 집권 10년을 기념한 것이다. ‘고조기’와 ‘전면적발전기’에 해당하는 건설의 모습들을 보여줘야 한다는 임무를 담고 있다.

셋째, 두 시기에서 건설이 시대적으로 차지하는 위상은 ‘건설의 전성기’에서 ‘건설의 대번영기’로 이동된 것을 알 수 있다. 2013년의 건설은 ‘전성기’에서 ‘대번영기’로의 진행을 목표로 하고 있었고, 2022년 건설은 ‘대번영기’를 이룬 가운데 ‘새로운 대건설시대’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김정은 정권 초기에는 김정일 시대를 거쳐 오며 건설이 전성기를 이루었으며, 이를 이어받아 김정은 시대에는 좀더 ‘새로운’ 건설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의미가 있다. 즉 2013년의 건설은 수령의 건설구상이 실제로 드러나도록 하여 후계의 명분을 보여주는 것이었다면, 2022년의 건설은 김정은이 이끌어온 국가의 발전상과 잠재력을 실증하는 문명의 새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변화하였다. 특히 ‘번영’이라는 단어를 김정은과 매치시킴으로써 통치의 전략을 반영하고 있다.

넷째, 건설의 시대가 달라지면서 각 시기를 대표하는 건축물도 차이를 보인다. 2013년에는 수령을 기념하는 금수산태양궁전과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이 제시되었고, 짧은 기간에 완성하여 김정은의 건설 콘셉트를 보여주는 은하과학자거리, 문수물놀이장, 마식령스키장 등이 대표적이다. 2022년을 대표하는 건축물은 삼지연시가 있는데 도시의 건설을 넘어선 지방의 본보기 건설로 내세우고 있다. 김정은 시대 대표적 거리인 미래과

학자거리와 려명거리를 비롯해 인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중평남새온실농장과 과학을 강조한 과학기술전당, 양덕온천문화휴양지 등을 성과로 제시해 전반적인 인민생활향상과 자력생산을 통한 경제부흥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이 확인된다.

다섯째, 건축사상은 2013년 ‘주체의 사회주의건축’에서 2022년 ‘주체건축’으로 단순화되었다. 이 역시 ‘사회주의’라는 단어를 생략하고 ‘우리식’의 의미를 앞세운 조어이다. 북한 방식을 나타내는 ‘주체’라는 단어 하나만으로 김정은 시대 건축을 ‘주체건축’으로 표현하고 있다. 2013년에는 ‘대원수들의 건설령도’에서 ‘당의 령도’로 건설역사가 이어져 왔다고 설명했다면, 2022년 건축의 원칙으로 ‘당중앙의 유일적령도체계’가 추가되었는데, 이는 본격적인 김정은 시대를 확고히 하고 있다는 점을 나타낸다.

여섯째, 건축의 원칙에서는 2022년 ‘미학’을 강조하는 것으로 변화하였다. 2013년 건축의 원칙은 ‘선편리성, 후미학성, 선하부구조, 후상부구조건설원칙’이었는데, 2022년 건축의 원칙은 ‘선편리성, 선미학성, 선하부구조의 원칙’으로 일부 수정되었다. 즉 2013년에는 원칙들 사이의 ‘선후’를 구분했다면 2022년에는 원칙의 ‘선후’ 구분 없이 ‘강조점’을 두었다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후미학성’에서 ‘선미학성’으로 원칙으로 바뀌어 ‘미학’을 강조하게 되었음을 볼 수 있다.

일곱째, 건축에 있어서 실용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2013년에는 건설사업을 세계적 수준과 높이로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으나 2022년에는 아직까지 건설이 세계를 앞서는 시야와 안목을 갖추지 않았다고 결함을 지적하고 특히 인민의 미감과 정서를 반영해 특색있고 실용적으로 설계해야 한다는 점을 총화했다. 10년 전의 주문대로 세계적 수준으로 아직 올라서지 못했다는 점을 들어 건설이 국가사회생활의 실제적 변화와 밀착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 같은 내용 비교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건설부문일군대강습’ 김정은 서한 내용 비교

	2013년(1차 건설부문일군대강습)	2022년(2차 건설부문일군대강습)
제목	당의 주체적건축사상을 철저히 구현하여 건설에서 대번영기를 열어나가자	새로운 건설혁명으로 우리식 사회주의의 문명발전을 선도해나가자
국가목표	사회주의강국, 사회주의경제강국 사회주의문명국	문명부강한 강국, 위대한 강국 사회주의문명국
시대명명	21세기 새로운 문명개화기 새로운 주체 100년대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고조기 전면적발전기
건설의 현 시대	건설의 전성기 건설의 최전성기	건설의 대번영기 새로운 대건설시대
건설의 의미	수령의 ‘강국국가건설구상’의 현실화, 후계의 명분	우리 국가의 발전상과 잠재력 실증, 로동당시대 문명의 새모습
건설의 대표사례	금수산태양궁전,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은하과학자거리, 문수물놀이장, 마식령스키장	삼지연시와 농촌마을들, 려명거리, 미래과학자거리, 중평남새온실농장, 과학기술전당, 양덕온천문화휴양지 등
건설의 원칙	선편리성, 후미학성 선하부구조, 후상부구조건설원칙	선편리성, 선미학성 선하부구조의 원칙
건설의 방향	세계적 수준, 속도, 추세 보여줘야	인민 미감과 정서 반영하고 특색있게 실용적으로 설계해야, 세계적 수준 비약은 건설의 과제

출처: 필자 작성.

2. 김정은 현지지도로 본 도시건설담론의 전개

북한에서 진행되는 도시건설 소식은 김정은의 ‘현지지도’를 통해 상당한 양이 소개되고 있다. 즉 지도자의 통치를 대내외에 보여주려는 현지지도를 통해 건설과 통치가 밀접하게 관련된다는 것이 확인된다. 현지지도는 시각적인 면에서 ‘건설의 모습’을 배경으로 ‘통치자의 모습’이 결합된 형태이다. 지도자의 성과를 건설화된 실체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지지도는 지도자의 통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는데, 이때의 발언 역시 영향력 있는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다. 현지지도에서 이뤄진 지도자의 명명은 매체를 통해 전 지역, 각 분야에 확산되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이다. 건설과 관련해 김정은이 명명한 시대어로는 ‘마식령속도’, ‘강원도정신’ 등이 대표적인데, 이는 건설현장에서의 본보기를 통치로 전략화하는 것을 보여준다.

김정은은 2013년 6월 마식령스키장 건설과 관련해 호소문을 띄우며 남들 같으면 10년이 걸려도 해낼 수 없겠지만 건설을 맡은 인민군대는 올해 안에 스키장을 건설해 낼 것을 주문한다.³⁶⁾ 10년을 1년으로 만드는 것을 ‘마식령속도’라고 명명하는데, 이것은 ‘시

간' 자체를 빠르게 조절하는 것으로서 '미래'를 현실로 앞당기는 것에 초점이 있다. 세계적 수준으로 건설하는 마식령스키장은 '문명국' 상징의 하나가 되는데, '단숨에의 정신'으로 '마식령속도'를 창조해 '문명국' 건설을 시각화해내려는 통치자의 전략이 담겨 있다.

김정은 위원장은 2016년 7차 당 대회가 끝나고 강원도 원산군민발전소를 현지지도한 자리에서 강원도 일군과 당원, 근로자들을 “강원도정신의 창조자”라고 언급한다.³⁷⁾ 원산군민발전소는 “모든 것이 부족하고 어려운 속에서도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발휘해 ‘도 자체의 힘’으로 완공한 기적의 창조물이라는 것이다. 즉, ‘강원도정신’은 무에서 유를 창조한 건설을 본보기로 이르는 말이다. 이는 ‘사회주의강국, 부강조국건설’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나라에서 지원되는 풍부한 자원이 아니라 인민들이 각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국가의 모습을 만들어나가는 상향적 ‘자력갱생’이 필요하다는 현실을 보여준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건설의 실천적 본보기로서 ‘강원도정신’은 ‘강국’이라는 통치목표를 위한 전략적 용어이자 시대어로 제시되었다.

두 시대어를 비교해 보면, 마식령속도는 ‘강국과 문명’을, 강원도정신은 ‘강국’을 보여주는 수단이다. 마식령속도에는 국가의 지원이 있었다면, 강원도정신에서는 자력갱생을 강조한다. 따라서 ‘문명’은 나라가 부유해야 이룰 수 있는 것으로서 인민이 자력갱생으로 힘과 자원을 모아 나라를 ‘문명’국으로 이끌 수 있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자력갱생이나 문명 모두 ‘강국’을 지향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다. 다만 ‘자력갱생’과 ‘문명’은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강국’이라는 목표가 ‘문명’보다는 상위 개념이라고 파악할 수 있다.

이밖에 2022년 건설현장에서도 김정은 위원장의 시대정신 명명이 이뤄지는데, 련포 남새온실농장 착공식에서는 ‘련포창조정신, 련포불바람’을 일으킬 것이 강조되었고,³⁸⁾ 화성지구 살림집건설 착공식에서는 건설자들이 ‘새로운 화성속도, 화성신화 창조’ 의지를 결의문으로 언급하는 등³⁹⁾ 건설 현장을 통치전략으로 활용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36) 김정은, “호소문: 《마식령속도》를 창조하여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가자 (2013년 6월 4일),” 『로동신문』, 2013년 6월 5일.

37)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자력갱생의 창조물인 원산군민발전소를 현지지도하시였다,” 『로동신문』, 2016년 12월 13일.

38) 김정은, “함남도인민들을 위한 련포온실농장건설에서 인민군대의 전투적기질을 높이 떨치라:련포온실농장건설착공식에서 하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연설(2022년 2월 18일),” 『로동신문』, 2022년 2월 19일.

39) “화성지구 1만세대 살림집건설착공식 진행,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착공식에 참석하시여 뜻깊은 연설을 하시였다,” 『로동신문』, 2022년 2월 13일.

IV. 도시건설 담론의 실체로서 도시건설 사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김정은 시대 도시건설 담론은 정권 초기부터 2022년 현재까지 실제 도시건설에서 물리적 실체로 구성되어 왔다. ‘강국’과 ‘문명’을 이루기 위한 도시건설 담론이 구체적으로 반영되는 특징을 크게 3가지 키워드로 살펴본다면 ‘과학, 미래, 환경’을 꼽을 수 있다. 3개의 키워드는 성격이 명확하게 분리된 것이 아니라 서로 연관되어 있으며 서로를 구성하고 보완하는 관계에 있다. 그럼에도 도시건설 담론의 특징을 설명하기 위해 3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각각이 구체화된 사례들을 살펴본다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 과학

가. 도시건설 담론에서 ‘과학’의 의미

김정은 정권 초기부터 2022년 현재까지 꾸준히 강조되고 있는 ‘과학기술’은 도시건설과 관련해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첫째, 과학기술은 북한의 국가목표를 추동하는 강력한 수단이라는 점이다. 과학기술의 발전은 ‘건설의 대변영기’를 여는 지름길로 언급되는데, ‘자력갱생’ 구호와의 관계를 보면, ‘자력갱생’을 갖추기 위해 과학기술이 필요하다. 자력갱생의 기관차는 과학기술이며, 기본 목표는 국산화로 제시된다. 자력갱생의 선구자는 ‘자강력’으로서 2016년 ‘자강력제일주의’에 이어 2020년 ‘정면돌파전’으로 맥락적 의미가 이어지고 있다.⁴⁰⁾ 대북제재와 방역봉쇄 등 어려운 대외환경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제시된 정면돌파전에서 기본전선은 경제전선, 주타격전방은 농업전선, 열쇠는 과학기술로 설명된다. 2021년 8차 당대회에서는 그동안 과학기술이 실지 나라의 경제사업을 견인하는 역할을 못 했고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은 “국가적인 자력갱생, 계획적인 자력갱생, 과학적인 자력갱생”이 되어야 한다며 자력갱생과 과학을 다시 한번 밀접하게 연결시켰다.⁴¹⁾

둘째, 과학은 강국과 문명국을 건설하는 실용적이고 실재적 수단이면서도 교육과 인재와 관련한 ‘사상’ 차원에서 구호화하고 있다. 사상을 최우선으로 강조하는 북한 체제에서

40) “주체혁명위업승리의 활로를 밝힌 불멸의 대강, 우리의 전진을 저애하는 모든 난관을 정면돌파전으로 뚫고나가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전원회의에 대한 보도,” 『로동신문』, 2020년 1월 1일.

41) “우리 식 사회주의건설을 새 승리로 인도하는 위대한 투쟁강령,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에서 하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보고에 대하여,” 『로동신문』, 2021년 1월 9일.

과학은 ‘사상화’할 만큼 중시하고 있다는 얘기가 된다. 과학기술은 강국과 문명국이라는 목표로 가는 물질적 토대가 되기 때문이다. 과학기술을 만들고 적용하는 것은 사람이라는 점에서 ‘과학자’와 그 과학자를 키워내는 ‘교육자’가 중시된다. 또한 과학기술은 특정 직업군에 있는 사람들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과 모든 분야에 적용되므로 ‘교육’과 ‘인재’를 강조하며 건설에서도 이들을 우대하고 있다. 김정은은 2013년 제9차 전국과학자기술자대회에서 ‘과학기술발전에서 전환을 일으켜 강성국가건설을 힘있게 다그치자’라는 문헌을 전달하고 지식경제와 전민과학기술인재화를 언급하며 ‘과학기술강국’과 ‘지식경제강국’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⁴²⁾ 북한은 현시대를 ‘지식경제시대’라고 부르는데, 인민생활 전반의 향상을 의미하는 ‘경제’를 수식하는 ‘지식’은 과학기술과 교육이 핵심이라는 점에서 김정은 정권의 강조점이 드러난다.

2014년 전국교육일군대회에서도 김정은은 “새 세기 교육혁명을 일으켜 우리 나라를 교육의 나라, 인재강국으로 빛내이자”라는 문헌을 통해 강성국가건설이라는 목표를 위해서 ‘전민과학기술인재화’를 실현하여 ‘사회주의교육강국’을 만들어야 한다며 ‘과학’과 ‘교육’을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하고 있다.⁴³⁾ 과학기술 발전에 대한 세계적인 추세 역시 북한에서도 주시하고 있는데, ‘디지털 전환’에 따른 북한식 표현으로 2019년 ‘수자중시기풍’을 강조하기도 했다.

나. 도시건설에 나타난 ‘과학’의 사례

도시건설에서 ‘과학’이 구체적으로 구현된 사례는 거리와 살림집에 대한 지도자의 ‘명명’에서 드러난다. 김정은 위원장의 건설 업적은 실질적으로 2013년에 가시화되는데, 김정은 정권의 첫 살림집 거리는 ‘과학자’로 명명되었다. ‘은하과학자거리(주택)’와 ‘김일성종합대학 교육자과학자살림집’은 인민의 주거공간과 거리 앞에 ‘과학자’가 붙은 최초의 사례이다. 살림집이라는 ‘친인민’ 건설물과 ‘과학’이라는 키워드의 결합은 김정은 정권이 ‘과학’을 얼마나 최고 핵심으로 내세우고 시작했는지를 단번에 보여준다. 김일성종합대학교육자과학자살림집과 김책공업종합대학교육자살림집(2014)은 국가에서 특

42) “전국 과학자, 기술자대회 진행,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전달,” 『로동신문』, 2013년 11월 14일.

43)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새 세기 교육혁명을 일으켜 우리 나라를 교육의 나라, 인재강국으로 빛내이자》가 제13차 전국교육일군대회 참가자들에게 전달되었다,” 『로동신문』, 2014년 9월 6일.

별히 중시하는 과학자와 교육자를 위한 주택단지로 건설되었다. 살림집의 명명 자체가 교육자와 과학자들을 위한 주거공간이라는 차별적 혜택을 공공연하게 드러내는데, 과학자는 이후에도 매해 연속적으로 최우선 혜택의 대상이라는 점이 전략적으로 전시된다.

은정과학지구의 위성과학자주택지구(2014)는 북한의 인공위성인 ‘광명성’ 개발에 참여한 과학자들과 국가과학원 소속 과학자들을 위한 단지로서 ‘사회주의문명국’ 건설의 본보기로 제시된다.⁴⁴⁾ 김정은은 현지도에서 공터에 남새밭을 만들자고 제안했을 뿐 아니라 위성과학자주택지구엔 입주할 과학자들과 기념사진을 찍기 위해 일정을 바꿨다는 일화가 소개되며 이들과 국가과학원 앞에서 사진을 찍었다고 밝혀 ‘과학중시사상’을 대변한다.⁴⁵⁾ 미래과학자거리(2015)에도 김책공대교육자살림집을 비롯해 핵과 미사일 개발자 등 과학자와 기술자 살림집이 들어서 있다. 역시 ‘사회주의문명국’의 본보기이자 과학자 모범도시건설의 사례로 꼽힌다. 최근 2022년 준공된 평양 보통강강안다락식주택구도 나라의 부강발전에 이바지한 근로자들에게 배정되었는데, 여기에는 과학인재들이 포함된다.⁴⁶⁾

전민과학기술인재화 사상에 따른 건설물로는 만경대학생소년궁전 개건(2015), 과학기술전당(2016), 평양교원대학 재건립(2017)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북한은 각 군들에 꾸리는 전자도서관의 이름을 ‘미래원’으로 명명하며 과학의 힘으로 흥하고 조국의 내일을 앞당긴다는 ‘미래’ 의미도 함께 담았다. 김정은은 창성군 현지도 시 전자도서관 이름을 ‘미래원’으로 바꾸라고 지시하는 등 과학번영강국을 내세우며 전민과학기술인재화 사상을 건축물에 새겼다. 관련 행사로는 전국과학기술축전, 전국정보화성과전람회, 전국나노기술부문 과학기술전시회, 전국자연에너지 부문 과학기술성과전시회 등이 열리고 있다.

어랑천발전소도 함경북도 인민과 군인 건설자들이 자력갱생로선을 통해 이룩한 성과로 보도되었다.⁴⁷⁾ 삼지연군 건설장 현지도에서는 “자력부강, 자력번영의 한길 따라 힘

44)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새로 일떠선 위성과학자주택지구를 현지도하시였다,” 『로동신문』, 2014년 10월 14일.

45) 서주성,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길에서,” 『로동신문』, 2022년 10월 27일.

46) “조선중앙통신사 보도: 당중앙의 위대한 이민위천의 리념이 펼친 주체건축의 새로운 발전경지, 보통강강안의 성스러운 터전에 로동당시대의 문명과 부흥을 상징하는 다락식주택구의 본보기가 일떠선데 대하여(2022년 4월 14일),” 『로동신문』, 2022년 4월 15일.

47) “조선중앙통신사 상보: 우리당 자력갱생로선의 생활력을 과시하며 기념비적창조물로 일떠선 대동력기지, 어랑천발전소건설을 성과적으로 결속한 함경북도인민들과 군인건설자들의 위훈에 대하여(2022년 8월 5일),” 『로동신문』, 2022년 8월 6일.

차게 나아가자”는 표현이 나오며⁴⁸⁾ 순천린비료공장을 준공하면서는 ‘자력부강, 자력번영의 창조물’이라고 언급한다.⁴⁹⁾

2022년 건설된 연포남새온실농장은 과학기술발전 기여자들에게 ‘군사기지’를 내어준 과학자 우대 사례로 꼽힌다.⁵⁰⁾ “나라의 경제와 과학기술발전에 수고가 많은 함흥시의 로동계급과 과학자들에게 신선한 남새를 공급”한다며 새 시대 문명을 과시하는 대규모의 농장지구를 건설하고 1000여 세대 살림집 등을 건설했다. 특히 농장이 있는 함흥을 ‘과학도시’로 칭하며 ‘과학’을 부각했다.⁵¹⁾ 이는 국가의 필승불패 위상을 만방에 과시하는 계기로 삼았다.⁵²⁾

2. 미래

가. 도시건설 담론에서 ‘미래’의 의미

강국과 문명국을 향한 도시건설에는 ‘미래’라는 상징이 구현되기도 했는데, 이때 ‘미래’는 4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첫째, 나라의 미래로서 ‘문명’을 의미한다. 문명은 ‘과학’이자 ‘미래’이며, ‘환경’이기도 한데, 이 가운데 ‘미래’라는 키워드로 ‘문명국’을 해석할 수 있다. 문명은 문화예술부문에서 시작해 경제사회 전 분야로 확장되었다. ‘사회주의문명국’은 2012년 제4차 당대표자회 결정서 “지식경제강국, 사회주의문명강국을 일떠세울 것”에서 등장했으며, 2013년 신년사에서 생활·정신·체육·문화 분야와 도시건설에서 ‘선진적 문명강국’ 건설로 개념화되었다. 건설현장 현지도에서 다수 언급되었으며, 2019년 신년사에서는 ‘경제강국건설’의 한 방법으로 ‘사회주의문명’ 건설이 언급된다.

48)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삼지연군안의 건설장들을 현지도하시였다,” 『로동신문』, 2019년 10월 16일.

49) “위대한 정면돌파전사상이 안아올린 자력부강, 자력번영의 창조물 순천린비료공장 준공식 성대히 진행,” 『로동신문』, 2020년 5월 2일.

50) 조용원, “련포온실농장 준공식에서 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조직비서인 조용원동지의 준공사,” 『로동신문』, 2022년 10월 11일.

51) 김정은, “함남도인민들을 위한 련포온실농장건설에서 인민군대의 전투적기질을 높이 떨치라:련포온실농장건설착공식에서 하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연설(2022년 2월 18일),” 『로동신문』, 2022년 2월 19일.

52) “위대한 어머니당이 우리 인민에게 안겨준 또 하나의 사랑의 선물, 경사로운 10월의 명절을 맞으며 련포온실농장 준공식 성대히 진행,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몸소 준공테프를 끊으시였다,” 『로동신문』, 2022년 10월 11일.

둘째, 미래는 인민의 미래로서 후대, 즉 ‘새 세대’를 의미한다. 김정은 시대에는 특히 ‘청년’을 강조하고 있는데, 2013년에는 전국 도시군 학생소년궁전 실태를 파악하고 시설 개보수를 지시하는 등 새 세대의 교육과 복지에 관심을 쏟은 바 있다. 건설에서는 2015년 백두산청년발전소건설장이 대표적이다. 김정은은 이곳에서 ‘청년강국’을 언급한다. 2016년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대회에서도 ‘영웅청년신화’ 창조로 ‘강국’을 건설하겠다고 강조했다. 강국 건설은 ‘후대’들을 위한 것이며 이는 ‘공산주의미래’로 나아가는 후대관과 미래관을 나타낸다고 설명한다.⁵³⁾

셋째, 미래는 미래를 만들어가는 지도자인 김정은 자체를 상징한다. 김정은 시대는 ‘새로운 주체 100년’으로 시작하는데, 김정은이 지도자로 만들어가는 앞으로의 100년은 ‘문명국, 강국, 번영의 시대’라고 하여 끊임없이 미래를 불러들임으로써 김정은을 ‘미래의 상징’으로 의미화하고 있다. 태양절 등에 건축물을 완공시키면서 수령의 미래가 이어지고 있음을 상기시킨다. 건설현장에서는 ‘건설신화 창조’라는 지도자의 시대어가 속속 제시된다. 2022년 10월 련포농장 준공식에서 “련포전역에서는 시간과의 전쟁, 새 기준, 새 기적창조의 공격전이 순간도 멈춤없이 전개”된다고 하여 ‘련포불바람’과 같은 건설신화 창조를 독려하고 있다.⁵⁴⁾ 이는 전면적 국가발전의 새 시대를 열어야 한다면서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나가는 지도자의 새로운 통치를 보여주며 지도자를 미래의 상징으로 설정하고 있다.

넷째, 미래는 ‘속도’로 미래를 앞당긴다는 ‘시간’을 뜻하기도 한다. 건설에서는 공간과 시간의 결합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공간 배열을 통한 보여주기를 좀 더 극적으로 만드는 요소가 바로 속도이다. 공간이 변화하는 시간을 단축해서 보여줌으로써 극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김정은의 혁명시간’을 다룬 로동신문 기사에서 김정은은 “하루를 열흘, 백날맞잡이로 헌신”, “분과 초로 이어지는 수자의 흐름만으로는 그 의미를 다 설명할 수 없는 성스러운 시간”, “10년이 1년으로 단축되고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아침과 저녁이 다르게 모든 것이 변모되는 경이적인 현실”, “부흥강국의 시간표는 더욱 앞당겨지게 될 것” 등과 같은 표현으로 속도감 있는 시간을 표현하고 있다.⁵⁵⁾

53) 김성남, “주체조선의 도도한 진군은 우리당 혁명로선의 과학성과 생활력의 뚜렷한 과시이다,” 『로동신문』, 2022년 11월 6일.

54) 조용원, “련포온실농장 준공식에서 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조직비서인 조용원동지의 준공사,” 『로동신문』, 2022년 10월 11일.

55) 백영미,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혁명시간,” 『로동신문』, 2022년 11월 13일.

본보기 속도를 만들어 이러한 건설속도를 파급시키는 것은 북한의 건설정책 중 하나다. 김정은 시대의 속도는 마식령속도, 조선속도, 평양속도, 만리마속도 등이 순서대로 등장하는데, 각각 건설현장에서 만들어진 본보기를 속도로 명명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마식령속도’는 2013년 6월 5일 ‘마식령속도 창조’ 김정은 호소문에서 등장했는데, 10년 공사를 1년 공사로 앞당긴다는 의미이다. 이는 ‘21세기 새로운 일당백공격속도’로도 설명되고 있으며, 마식령속도로 건설되는 마식령스키장은 ‘건설의 대전성기’를 보내고 있는 문명국의 상징으로 언급된다. 김정은은 “마식령속도와 같은 시대어를 창조”해야 한다고 하여 명명을 통치의 방법으로 활용하고 있음이 확인된다.⁵⁶⁾ ‘조선속도’는 2014년 ‘조선속도창조의 불길’, ‘새로운 조선속도 창조’에서 나왔는데, 문명한 생활, 백두의 혁명 정신, 최첨단돌파전과 함께 김정은 시대의 속도로 언급되었다. ‘평양속도’는 2015년에 주로 활용되었는데 전쟁 후 건설 붐이 일었던 시기인 과거를 소환하며 ‘1950년대 평양속도창조’라고 일컬어졌다. 김일성의 천리마시대를 대표하는 평양속도는 주택건설에서 조립식건축으로 공사 기간과 비용을 절감하는 건설속도를 의미한다.⁵⁷⁾ 김정은 시대의 ‘조선속도’는 ‘새로운 평양속도’이며, 이후 등장한 ‘만리마속도’는 좀더 전진한 ‘새로운 조선속도’라고 규정되었다. 이는 2015년 조선인민군 제3차 ‘수산부문열성자회의’ 김정은 연설에서 지난날을 ‘천리마시대’라고 했을 때 김정은 시대는 이보다 더 빠른 ‘만리마시대’라며 “새로운 천리마시대, 만리마시대인 오늘날”과 같은 형태로 언급되었다. 2016년 7차 당대회에서 ‘만리마속도’가 확립되었으며, 원산군민발전소 건설자들에게 명명한 ‘강원도정신’을 ‘만리마시대의 본보기정신’으로 규정했다.

나. 도시건설에 나타난 ‘미래’의 사례

도시건설에서 ‘미래’ 역시 거리나 주택단지의 이름에서 구체적으로 구현되고 있다. 2015년 미래과학자거리와 살림집의 ‘미래’는 과학이 여는 ‘미래’를 의미한다. 2017년 준공된 려명거리의 ‘려명’은 동트는 ‘새 시대’를 의미하는 작명이라고 볼 수 있다. 북한에서는 1990년대 ‘고난의 행군’ 경제난 이후 김정은 시대 들어 다시 아파트 건설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아파트 건설 자체가 ‘새로운 100년’의 상징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56) 김정은, “혁명적인 사상공세로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제8차 사상일군대회에서 하신 연설,” 『로동신문』, 2014년 2월 26일.

57) “1만 7천 여 세대의 주택건설을 위하여,” 『로동신문』, 1958년 2월 25일.

새 세대로서 청년을 강조한 김정은 정권에서는 건설현장에서 청년들의 참여를 독려하며 새 세대가 만들어가는 도시건설을 그려 왔다. 청년들이 참여한 건설현장으로는 ‘청년 강국, 영웅청년신화’ 등을 언급한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를 비롯해⁵⁸⁾ 창전거리, 은하과학자거리, 미래과학자거리, 여명거리, 류경원, 과학기술전당, 평양국제축구학교, 삼지연학생소년궁전, 민들레학습장공장, 순천린비료공장 등이 있다. 집권 초기에는 경상유치원 현지지도에 이어 평양애육원과 육아원 건립 등으로 후대 중시사상을 보여주었으며, 만경대강반석혁명학원에 대해서는 미래의 핵심인재를 교육하는 장소로 중요성을 짚은 바 있다.

‘문명’으로서 미래가 구현된 사례는 살림집과 거리 등 대다수의 건설현장을 들 수 있다. 2021년 평양시 1만세대 살림집건설 착공식에서 김정은은 연설을 통해 “건설의 목적은 수도시민에게 안정되고 문명한 생활조건 제공”하는데 있다고 하여 건설과 문명을 직접적으로 연결시켰다. 이밖에도 “건설은 시대가 도달한 정신적 높이와 국력의 집합체, 문명과 발전에로의 큰 걸음”, “새 문명을 마음껏 창조하고 향유할 우리의 부모형제들과 자녀들을 위해”와 같은 언급을 통해 건설이 문명된 미래를 앞당기는 구체적인 실체라는 것이 확인된다.⁵⁹⁾ 2022년 련포남새온실농장 건설 착공식에서 김정은은 현장의 살림집과 공공건물 등을 아울러 “우리 시대 문명이 응축된 농장지구”로 언급하며 “우리식 농촌문명 창조의 새로운 거점”이라고 칭한다.⁶⁰⁾ 문명의 본보기는 수도 평양에서 시작되었지만, 산간도시의 본보기로 삼지연시가 부각된 뒤에는 각 지역에서 새로 건설되는 살림집 단지와 마을을 가리켜 ‘농촌문명’으로 언급하며 문명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22년 평양 송화거리도 “문명의 새 거리”로 규정되었는데, 통치이념인 ‘우리식 사회주의’와 함께 “우리식 사회주의문명부흥”으로 송화거리를 지목한다.⁶¹⁾ 이는 건설현장의 구체적인 사례에서 통치이념을 결합함으로써 새로 건설되는 도시의 모습이 곧 ‘김정은 시대’를 나타내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송화거리는 ‘문명부흥’으로서 “평양의 래일”로 의

58)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 준공식에서 하신 연설,” 『로동신문』, 2015년 10월 4일.

59) 김정은, “5만세대 살림집건설로 우리 수도를 다시한번 웅장하게 변모시키자: 평양시 1만세대 살림집건설착공식에서 하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연설(2021년 3월 23일),” 『로동신문』, 2021년 3월 24일.

60) 김정은, “함남도인민들을 위한 련포온실농장건설에서 인민군대의 전투적기질을 높이 떨치라:련포온실농장건설착공식에서 하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연설(2022년 2월 18일),” 『로동신문』, 2022년 2월 19일.

61) “우리식 사회주의문명부흥의 새 전기를 펼친 인민사랑의 기념비, 송화거리 준공식 성대히 진행,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준공테프를 끊으시였다,” 『로동신문』, 2022년 4월 12일.

미화되었고, 현장에서 보여주는 “〈북두칠성〉 글밭”을 통해 은하계로 상징되는 김정은을 북두칠성으로 표현하며 지도자가 이끄는 미래를 그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보통강강안 다락식주택지구 역시 인민의 행복을 위한 건설은 ‘문명한 미래’를 창조해나가는 백년지계 애국사업이라고 설명한다.⁶²⁾

3. 환경

가. 도시건설 담론에서 ‘환경’의 의미

김정은 시대 도시건설에서는 구체적인 실체로서 ‘환경’이 구현되고 있는데, 이때 환경의 의미는 세 가지 면에서 해석할 수 있다. 첫째, 김정은 시대가 중시하는 도시건설의 ‘미감’을 의미한다. 환경은 미감, 미학, 이상도시 등을 의미하는 ‘미적 추구’라고 풀이할 수 있다. 2013년 언급한 ‘후미학성’이라는 건설 원칙이 바로 다음해인 2014년 ‘선미학성’ 원칙으로 바뀐 것에서도 ‘미학’을 중시하는 입장이 확인된다. 건설을 통해 ‘나라의 면모’를 강조하는 담론에서도 도시건설 환경에서 시각적 미감을 중시하는 지도자의 생각을 읽을 수 있다. 특히 거리의 조화로운 구성이나 색채감, 건축물의 립면과 색채, 실내장식과 가구에서의 색채 등을 강조하는 건설에서의 ‘미감’ 담론은 대표적인 특징이다.⁶³⁾

둘째, 도시건설에서의 ‘환경’은 야간에도 경관이 드러나도록 하는 ‘야경’을 뜻하기도 한다. 북한은 새로 건설한 살림집 단지와 거리에 조명 장식을 꾸려 야간에 행사를 하거나 밤풍경 이미지를 매체를 통해 내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밤 시간의 풍광에 주의를 기울여왔다. 야경은 야간열병식과 야간공연 등으로도 꾸며지는데, 이는 국제적으로 알려진 북한의 ‘전력난’을 상쇄하려는 시각화의 의도를 포함한다. 야경의 화려함은 ‘과시적 보여주기’를 의미하며, 밝은 빛은 ‘미래, 지도자’를, 강렬한 불빛은 ‘핵, 강국’ 등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셋째, 도시건설에서 ‘환경’은 ‘친환경’을 뜻하기도 한다. 김정은 집권 초기부터 북한은

62) “우리 당의 인민대중제일주의리념과 주체건축의 비약적발전상이 응축된 평양의 새 경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보통강강안다락식주택구 준공식에 참석하시여 준공테프를 끊으시었다,” 『로동신문』, 2022년 4월 14일.

63) 김용혁, “건축물의 립면을 특색있게 형성하는 것은 건축창조에서 나서는 선차적이며 필수적인 요구,” 『조선건축』, 제3호(평양: 공업출판사, 2018); “년대별에 따르는 도시형살림집의 내부마감장식,” 『조선건축』, 제5호(평양: 공업출판사, 2018); “건축형성에서 예술성호상성, 호환성, 연결성을 보장하기 위한 몇가지 문제,” 『조선건축』, 제2호(평양: 공업출판사, 2019); “건축립체적조형성을 보장하기 위한 반복구성원칙,” 『조선건축』, 제4호(평양: 공업출판사, 2019).

‘록색건축’이라고 해서 자원을 절약하고 인민의 건강에 도움이 되며 지구환경에도 보탬이 되는 친환경 건축을 강조하고 있다. 대북제재로 인한 자원부족을 북한 내부에서 끌어내려는 자력갱생의 차원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기후변화 문제해결에 직접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정상국가 이미지를 심어주려는 의도도 있다. 이를 위해 태양열 등 재생에너지 사용을 독려하며 수립화, 원림화 등을 통해 녹지환경을 중시하는 건설정책을 펼치고 있다. 특히 2022년 9월에는 ‘원림 녹화법’이 채택되면서 ‘아름답고 문명한 사회주의 선경’을 꾸릴 것이라는 취지를 법제화하였다.⁶⁴⁾

나. 도시건설에 나타난 ‘환경’의 사례

도시건설에서 구현된 ‘미감’ 차원에서의 환경 사례로 ‘보이는 것’과 관련한 김정은 시대의 명명들을 들 수 있다. 인민생활향상을 위해 수산업을 강조하며 ‘이채어경’으로 표현한 것과 강원도 해변에 꾸려지고 있는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를 ‘인파십리’라고 부르고 있는 것도 그러한 사례이다. 또한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 상징으로 평양종합병원을 건설하고, 아동치과병원을 짓는 등 보건분야의 건축물을 ‘사회주의영상’으로 일컫는 것 역시 ‘미감’을 중시하는 도시건설에서의 명명이라고 할 수 있다. 도시미관사업으로 2013년 청진, 해주 등에 잔디연구센터와 연구소를 세우고, 2014년 강계에도 잔디연구소를 설립하는 등 녹지 조성에 관심을 쏟고 있다.

도시의 미관으로서 야경을 강조하며 북한은 2014년 1월 선경불장식연구소를 건립하고 2014년 4월 중앙과학기술축전에 ‘불장식 및 조명기구 분과’를 신설해 건설 분야에 활용하고 있다. 평양시의 야경은 ‘평양시관리법’에 의무로도 제시되었는데, 평양의 대표적인 고층 호텔인 류경호텔은 선경불장식연구소에서 움직이는 야경 형상을 위해 불장식을 한다는 소식을 전하기도 했다. 유리로 된 건물 표면에 10만개의 점광원을 부착해 105층 건물을 TV 화면 속 동영상처럼 움직이는 조명장치를 설치했는데, 평양시의 야경은 ‘강성국가’의 수도답게 황홀하고 희한하게 꾸며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직전 북미정상회담을 위해 2018년 6월 싱가포르를 방문한 김정은이 싱가포르의 야경을 감상하고 이뤄진 조치라는 해석도 있다. 지방도시 역시 야경을 강조해 북한 전역이 밤에도 경관을 잃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자강도 장자강의 불야경에 대해 “공화국 선군 13경의 하나”라고 표

6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회의 1일회의 진행,” 『로동신문』, 2022년 9월 8일.

현하거나, 원산시를 “항구문화도시의 황홀한 야경”으로 표현하는 등 대외매체를 통해 각 지역의 도시 야경을 소개하고 있다.⁶⁵⁾

또한 김정은 시대에는 새해맞이 공연을 야간에 열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2017년 새해맞이 평양얼음조각축전, 2019년 설맞이 축하무대, 2020년 평양얼음조각축전, 2021년 신년경축공연이 모두 야간에 이뤄져 야경을 강조한 바 있다. 2021년 12월 31일 밤 11시에 시작된 공연은 불꽃놀이부터 도로 주변 가로수와 연석에 불장식이 설치되고 옥류교와 대동교 사이에 레드선형을 달았으며, 삼지연시 등 지방에도 불장식을 설치해 전국적인 야경을 만들어냈다.

또한 기존 시기와는 달리 열병식도 야간에 이뤄지고 있다. 2020년 10월 10일 당 창건 75주년을 기념하는 야간열병식은 직전 8월 13일 정치국회의에서 ‘특색있게’ 준비하라는 지침에 따라 이뤄졌는데, 행사 직전 평양의 거리를 ‘불장식’으로 꾸며 평양 불꽃축제인 ‘빛의 조화-2020’을 개최하는 등 전야제를 펼쳤다. 야간에 이뤄진 열병식은 극초음속미사일과 SLBM 등을 동원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지며 코로나 방역전 속에서도 국제적인 이목을 끌었다. 이후 2021년 1월에 열린 8차 당대회와 2021년 9월 9일 공화국 73주년 기념식, 2022년 4월 25일 조선인민혁명군 창설 90주년 행사 모두 야간열병식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북한이 야간열병식을 북한 도시환경의 대표적인 상품으로 내세우고 있음이 확인된다. 가장 최근의 야간열병식인 조선인민혁명군 창설 90주년 기념식은 4월 25일을 기념하는 행사로 10년 만에 열린 것이었는데 김일성광장과 주체사상탑 사이 ‘튼다리’ 2개를 설치하고 조명과 폭죽시설을 준비하는 등 공을 들였다.

도시건설에서의 ‘친환경’ 사례로는 김정은 시대 들어 건설된 평양의 살림집 거리들이 대표적이다. 미래과학자거리의 미래와 과학자를 내세운 거리 이름처럼 에너지 절약형 ‘고리형순환생산체계를 도입한 태양열 온실’로 친환경 건설을 내세웠으며 아파트 외벽에는 네온사인 조명을 설치해 야경에 신경을 썼다. 려명거리와 평양 1만세대 살림집, 보통강강안다락지구 모두 ‘녹색건축’을 내세우고 있다. 공산주의 이상거리로 언급된 려명거리는 녹색을 건축물의 콘셉트 색으로 잡고 녹화면적을 확대해 첨단녹색건축의 상징으로 꾸미면서 전체적으로 친환경 건축물임을 직관적으로 나타낸 점이 특징이다.⁶⁶⁾ 거리

65) 이상현, “北 매체, 지방도시 야경 소개…“대북제재 의식한 선전용”, 『연합뉴스』, 2016년 7월 18일. (<https://www.yna.co.kr/view/AKR20160718064800014?section=nk/news/all>, 검색일: 2022년 12월 1일).

66) “만리마속도에 박차를 가하며 완공의 그날을 앞당긴다,” 『로동신문』, 2017년 2월 5일.

자체도 에너지절약거리로 건설되었으며, ‘불장식’ 공정이 이뤄졌다.⁶⁷⁾ 김정은조선의 대비약을 상징하는 현대건축거리의 본보기이자 표준으로 규정된다. 평양 5만세대 살림집 건설 역시 록색건축, 건식공법 등과 같은 건축기술과 건설공법을 도입해 ‘리상거리’로 건설한다는 포부를 내보였다.⁶⁸⁾ 이러한 재자원화와 공원화, 그리고 수림화와 원림화 등을 강조하며 산림복구에 신경 쓰는 건설정책은 도시건설에서 환경을 담아내려는 북한의 정책들이라고 할 수 있다.

V. 결론

김정은 집권 10년 동안 북한의 도시건설 담론의 전개를 살펴본 결과 통치전략으로 드러나는 건설 목표와 함께 세밀한 변화를 포착할 수 있었다. 먼저 김정은 시대의 도시건설은 통치이념과 국가목표를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담론을 형성하며 구체적인 실체로서 진행되어 왔다. 김정은 정권은 김정일 유훈통치로 시작되었지만 동시에 김정은 시대를 선언하며 가시적인 성과물을 제시해 왔는데, 이는 도시건설로 드러났다. 김일성-김정일주의를 내세운 정권 초기에는 만수대언덕과 금수산태양궁전 등을 중심으로 선대 수령의 통치를 계승하는 건설이 전개되었다. 하지만 김일성-김정일주의는 곧 김정은 시대의 정치사상인 인민대중제일주의로 정식화되었으며, 인민을 내세운 각종 문화시설과 보건·휴양·교육 시설 등이 ‘문명국’의 조건이자 상징으로 건설되었다. 대북제재 등 국제적 고립과 경제난 속에서 북한은 ‘우리 국가제일주의’를 통해 핵무력을 강화해 나가며 ‘강국’ 목표를 더욱 강조했고 대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 북한의 존재를 과시할 만한 시각화로서 도시건설을 만들어 왔다.

사회주의강국건설과 사회주의문명국건설이라는 국가목표는 도시건설을 통해 구체화되었는데, 김정은 시대의 도시건설은 과학, 미래, 환경 등 3가지 핵심 키워드로 요약된다. 과학기술을 강조하고 미래의 시간을 앞당기며 미학과 국제적 위상을 담아내는 환경이라는 키워드는 강국과 문명국의 기반을 형성하며 도시건설에서 구체적으로 구현되어 왔음을 볼 수 있다.

67)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려명거리건설장을 또다시 현지지도하시였다,” 『로동신문』, 2017년 3월 16일.

68) 김정은, “5만세대 살림집건설로 우리 수도를 다시한번 웅장하게 변모시키자: 평양시 1만세대 살림집건설착공식에서 하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연설(2021년 3월 23일),” 『로동신문』, 2021년 3월 24일.

북한은 김정은 집권 10년을 맞아 ‘우리식 사회주의의 전면적부흥’을 내세우며 궁극적인 도달점으로서 ‘북한 인민’과 ‘북한이라는 나라’의 ‘북한식 건설’을 확고히 하였고, 다음 단계의 도시건설 구상을 그리고 있다. 그동안 강국과 문명국의 면모를 압축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수도 평양 건설에 좀더 집중했다면, 앞으로는 이러한 건설의 본보기를 농촌과 지방단위로 확장해 나가는 모양새다. 또한 강국과 문명의 집중화된 시각화를 위해 특히 과학 인재를 중심으로 평양의 거리와 건축물을 배정해 특별한 우대정책을 시행해 왔다면 앞으로는 각 지역으로도 이 같은 본보기 사례가 확장될 전망이다. ‘과학도시’ 함흥의 농장과 살림집 건설은 대표적인 사례가 된다.

특히 김정은 정권 초기와 비교해 10년차인 현재 도시건설에서의 ‘건축미학’과 예술성 등을 더욱 강조하고 세계적 추세의 친환경 건축과 지능건축 등을 담아내려 하는 것은 북한의 도시건설이 고립된 북한의 세계화 갈망을 물리적으로 극복해 나가려 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참고문헌

1. 북한문헌

- “1만 7천 여 세대의 주택건설을 위하여,” 『로동신문』, 1958년 2월 25일.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력사적인 시정연설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발전을 위한 당면투쟁방향에 대하여》를 하시였다,” 『로동신문』, 2021년 9월 30일.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 준공식에서 하신 연설,” 『로동신문』, 2015년 10월 4일.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새로 일떠선 위성과학자주택지구를 현지도하시였다,” 『로동신문』, 2014년 10월 14일.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자력갱생의 창조물인 원산군민발전소를 현지도하시였다,” 『로동신문』, 2016년 12월 13일.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새 세기 교육혁명을 일으켜 우리 나라를 교육의 나라, 인재강국으로 빛내이자》가 제13차 전국교육일군대회 참가자들에게 전달되였다,” 『로동신문』, 2014년 9월 6일.
-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려명거리건설장을 또다시 현지도하시였다,” 『로동신문』, 2017년 3월 16일.
-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삼지연군안의 건설장들을 현지도하시였다,” 『로동신문』, 2019년 10월 16일.
- 김성남, “주체조선의 도도한 진군은 우리당 혁명로선의 과학성과 생활력의 뚜렷한 과시이다,” 『로동신문』, 2022년 11월 6일.
- 김정은, “5만세대 살림집건설로 우리 수도를 다시한번 웅장하게 변모시키자: 평양시 1만세대 살림집건설착공식에서 하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연설(2021년 3월 23일),” 『로동신문』, 2021년 3월 24일.
- _____,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제4차 세포비서대회에서 하신 연설(2013년 1월 29일),” 『로동신문』, 2013년 1월 30일.
- _____, “당의 주체적건축사상을 철저히 구현하여 건설에서 대변영기를 열어나가자: 건설부문일군대강습 참가자들에게 보낸 서한(2013년 12월 8일),” 『로동신문』, 2013년 12월 9일.

- _____,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요구에 맞게 국토관리사업에서 혁명적전환을 가져 올데 대하여: 당, 국가경제기관, 근로단체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2012년 4월 27일),” 『로동신문』, 2012년 5월 9일.
- _____, “새로운 건설혁명으로 우리식 사회주의의 문명발전을 선도해나가자: 제2차 건설부문일군대강습 참가자들에게 보낸 서한(2022년 2월 8일),” 『로동신문』, 2022년 2월 9일.
- _____, “신년사,” 『로동신문』, 2013년 1월 1일.
- _____,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의 영원한 총비서로 높이 모시고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해나가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과 한 담화(2012년 4월 6일),” 『로동신문』, 2012년 4월 19일.
- _____,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 탄생 100돐경축 열병식에서 하신 연설(2012년 4월 15일),” 『로동신문』, 2012년 4월 16일.
- _____,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한 당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2016년 5월 7일),” 『로동신문』, 2016년 5월 8일.
- _____, “함남도인민들을 위한 련포온실농장건설에서 인민군대의 전투적기질을 높이 떨치라:련포온실농장건설착공식에서 하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연설(2022년 2월 18일),” 『로동신문』, 2022년 2월 19일.
- _____, “혁명적인 사상공세로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제8차 사상일군대회에서 하신 연설,” 『로동신문』, 2014년 2월 26일.
- _____, “호소문: 《마식령속도》를 창조하여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가자(2013년 6월 4일),” 『로동신문』, 2013년 6월 5일.
- 김성남, “주체조선의 도도한 진군은 우리당 혁명 노선의 과학성과 생활력의 뚜렷한 과시이다,” 『로동신문』, 2022년 11월 6일.
- “만리마속도에 박차를 가하며 완공의 그날을 앞당긴다,” 『로동신문』, 2017년 2월 5일.
- 백영미,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혁명시간,” 『로동신문』, 2022년 11월 13일.
- “사설: 새시대 5대당건설방향을 따라 전당강화발전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가자,” 『로동신문』, 2022년 10월 21일.
- “사설: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 민족의 대경사, 위대한 조선인민의 대승리,” 『로동신문』, 2017년 11월 30일.

서주성,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길에서,” 『로동신문』, 2022년 10월 27일.

송 철, “《멋진 우리 집이 솟아납니다》 새 살림집들이 일떠서고있는 여러 농촌마을에서 울려나오는 목소리,” 『로동신문』, 2022년 9월 1일.

“우리 나라 사회주의교육제도의 우월성을 더욱 높이 발양시키자,” 『로동신문』, 2012년 9월 27일.

“우리 당의 인민대중제일주의리념과 주체건축의 비약적발전상이 응축된 평양의 새 경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보통강강안다락식주택구 준공식에 참석하시여 준공테프를 끊으시였다,” 『로동신문』, 2022년 4월 14일.

“우리 식 사회주의건설을 새 승리로 인도하는 위대한 투쟁강령,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에서 하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보고에 대하여,” 『로동신문』, 2021년 1월 9일.

“우리식 사회주의문명부흥의 새 전기를 펼친 인민사랑의 기념비, 송화거리 준공식 성대히 진행,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준공테프를 끊으시였다,” 『로동신문』, 2022년 4월 12일.

“위대한 어머니당이 우리 인민에게 안겨준 또 하나의 사랑의 선물, 경사로운 10월의 명절을 맞으며 련포온실농장 준공식 성대히 진행,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몸소 준공테프를 끊으시였다,” 『로동신문』, 2022년 10월 11일.

“위대한 정면돌파전사상이 안아올린 자력부강, 자력번영의 창조물 순천린비료공장 준공식 성대히 진행,” 『로동신문』, 2020년 5월 2일.

“전국 과학자, 기술자대회 진행,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전달,” 『로동신문』, 2013년 11월 14일.

『조선건축』(평양: 공업출판사, 2014~2019).

“조선로동당규약 서문, 조선로동당,” 『로동신문』, 2012년 4월 12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전원회의에 관한 보도,” 『로동신문』, 2020년 1월 1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회의 1일회의 진행,” 『로동신문』, 2022년 9월 8일.

“조선중앙통신사 보도: 사회주의문명국의 휘황한 미래를 펼친 건설의 대번영기,” 『로동신문』, 2022년 2월 8일.

“조선중앙통신사 보도: 당중앙의 위대한 이민위천의 리념이 펼친 주체건축의 새로운 발전경지, 보통강강안의 성스러운 터전에 로동당시대의 문명과 부흥을 상징하는 다락식주택구의 본보기가 일떠선데 대하여(2022년 4월 14일),” 『로동신문』, 2022년 4월 15일.

“조선중앙통신사 상보: 우리당 자력갱생로선의 생활력을 과시하며 기념비적창조물로 일떠선 대동력기지, 어랑천발전소건설을 성과적으로 결속한 함경북도인민들과 군인건설자들의 위훈에 대하여(2022년 8월 5일),” 『로동신문』, 2022년 8월 6일.

조용원, “련포온실농장 준공식에서 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조직비서인 조용원동지의 준공사,” 『로동신문』, 2022년 10월 11일.

“주체혁명위업승리의 활로를 밝힌 불멸의 대강, 우리의 전진을 저애하는 모든 난관을 정면돌파전으로 뚫고나가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전원회의에 대한 보도,” 『로동신문』, 2020년 1월 1일.

“화성지구 1만세대 살림집건설착공식 진행,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착공식에 참석하시어 뜻깊은 연설을 하시였다,” 『로동신문』, 2022년 2월 13일.

2. 국내문헌

박소혜, “김정은 정권의 ‘우리식 사회주의’ 의미 변화와 시사점,” 『국가안보와 전략』, 제22권 3호(2022)

홍민·강채연·박소혜·권주현, 『김정은 시대 주요 전략·정책용어 분석』(서울: 통일연구원, 2021).

3. 기타

『삼흥 3.0판 다국어대사전』(평양: 삼일포정보센터, 2004).

이상현, “北 매체, 지방도시 야경 소개…“대북제재 의식한 선전용”, 『연합뉴스』, 2016년 7월 18일. (<https://www.yna.co.kr/view/AKR20160718064800014?section=nk/news/all>, 검색일: 2022년 12월 1일).

발표2 “도시부럽지 않은” : 김정은 집권 10년, ‘작은’ 도시 이데올로기의 출현

황진태(통일연구원)

I. 서론

지난 김정은 집권 10년 동안 평양을 중심으로 다양한 건축, 건설이 전개되었고, 이러한 사업들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이데올로기가 고안되었다. 대표적으로 인민대중제일주의는 건축과 긴밀한 연관성이 강조된다. 하지만 이러한 지배 이데올로기는 거시적, 추상적 이어서 북한 당국의 의도대로 북한 주민들이 그러한 이데올로기에 동의하고, 자신의 것으로 체화시키는 것은 쉽지 않다. 본 연구는 그러한 거시적, 추상적 지배 이데올로기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북한주민들의 욕망이 반영된 ‘작은’ 이데올로기가 필요하며, 구체적으로는 “도시부럽지 않은” 표현의 출현을 주목한다.

본 연구를 위하여 김정은 집권 시기동안의 노동신문에서 “도시부럽지 않은” 표현이 들어간 기사수를 시기별로 파악하고, 지도화를 통해 표현이 언급된 지역의 시계열적 공간 패턴을 포착하고자 했다. 또한 주요 기사들에 대한 담론분석을 통하여 해당 표현의 증가한 이유를 해석하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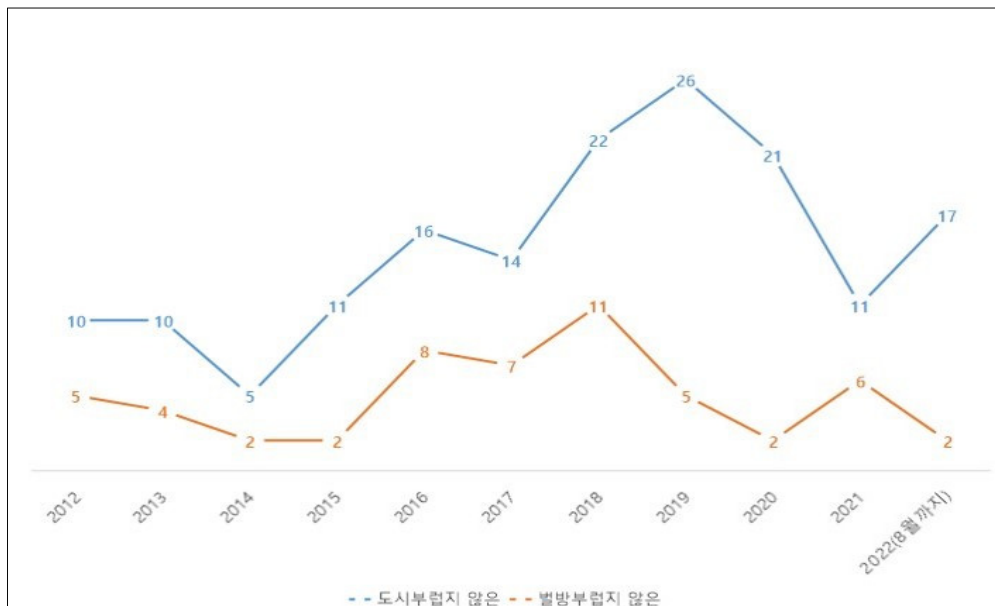
II. “도시 부럽지 않은”의 시공간적 분석

김정은이 집권한 2012년부터 현재(2022년 8월까지)까지 “도시부럽지 않은” 표현이 언급된 기사수의 시계열적 빈도를 살펴보면,⁶⁹⁾ <그림 1>에서 보듯이, 집권 초기에는 기사

⁶⁹⁾ 그래프에 반영된 기사수의 계산은 하나의 기사에 “도시부럽지 않은”이 여러 번 언급되더라도 한 번 언급된 것과 동일한 기사 1건으로 간주했다. 유사 표현들(예, “도시아이들 부럽지 않은”)이 들어간 기사들도 합계에 포함했다.

수가 적었지만, 해가 지나면서 지속적인 상승 패턴을 나타내어 코로나19 발생 직전인 2019년에는 2012년의 3배에 달하는 기사 수가 확인된다.⁷⁰⁾ 도시부럽지 않은 표현을 살피기에 앞서 이 표현이 출현하기 이전에 산간지역 주민들의 부러움의 공간으로 인식되어 온 ‘별방부럽지 않은’ 표현이 포함된 기사 수의 시계열적 빈도 변화를 간략히 살펴보는 것도 도시부럽지 않은 표현의 위상의 변화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림 1〉 노동신문(2012-22)에서 “도시부럽지 않은”, “별방부럽지 않은”이 언급된 기사수



출처: 필자 작성.

경사도가 가파른 산지지형의 특성상 논농사가 어려운 산간지역 주민들에게 논농사 중심의 별방은 김정은 집권 이전부터 풍족한 지역으로 인식되었고, 자신의 거주지역보다 나은 비교의 대상이었다.⁷¹⁾ 그러나 김정은 집권 이후 도시를 부러움의 대상으로 언급된

70) 코로나19로 인한 국정보세 2년 차에 들어간 2021년은 방역 보도가 중심이 되면서 도시개발 관련 보도도 상대적으로 줄어들면서 도시 부럽지 않은 언급 기사수는 급감했다. 하지만 2022년 5월 북한 내부의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는 농촌 살림집 건설 관련 보도가 증가하면서 도시 부럽지 않은 표현이 들어간 기사도 증가하기 시작했다.

71) 본 연구에서는 김일성, 김정일 집권 시기의 “별방부럽지 않은” 표현의 증가세 분석까지는 하지 못하였다. 다만 도시의 대립되는 공간은 산간과 별방을 포함하는 촌락인 반면에 별방의 대립되는 공간은 산간이라는 점에서 이 글에서 주목하는 별방과 산간의 대립구도는 도시와 촌락의 대립구도의 하위에 속한다고 볼 수 있으며, 북한 당국도 이러한 별방과 산간의 차이는 자연지리적 특성의 차이로 간주하고, 통치의 차원에서 해결되어야 할 사회문제로 인지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별방의 생산량과 산간의

기사수에 비해 별방을 언급한 기사 수는 확연히 줄어든다. 다만 <그림 1>에서 보듯이, 언급횟수는 적지만 2014년부터 2018년까지는 도시와 유사한 상승 패턴을 나타냈는데, 이는 “눈물 속에 살아오던 창성사람들 도시부럽지 않게, 별방부럽지 않게 살도록 하시려고”(노동신문 2013.9.8.), “오늘은 별방도시 부럽지 않은 고장으로 전변”(노동신문 2016.7.3.), “도시나 별방학교 부럽지 않은 현대적이면서도 아담한 새 교사”(노동신문 2017.1.5.), “도시나 별방아이들 부럽지 않게”(노동신문 2018.11.12.)처럼 주로 산간 지역 주민들의 발언에서 도시와 별방을 함께 언급하면서 유사 패턴이 나타난 것이다. 하지만 2019년부터는 더 이상 그러한 패턴은 유지되지 않고, 별방의 언급횟수는 확연히 감소된다. 방역을 이유로 국경봉쇄가 2년차에 접어든 2021년에는 건설활동 또한 줄어들면서 “도시부럽지 않은” 표현도 급감했지만, 새로운 사회주의농촌건설강령이 채택된 2022년부터는 농촌 살림집 건설이 증가하는 것에 조용하여 해당 표현이 증가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별방부럽지 않은” 표현은 “도시부럽지 않은”과 달리 증가세가 미미한데, 이는 산간지대 주민들에게 별방이 부러움의 대상으로서의 위상이 더욱 약화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렇다면 비도시 지역주민들에게 새로운 부러움의 대상을 표현한 “도시부럽지 않은”은 북한 매체에서 일반적으로 어떤 상황, 의미로 사용되는지를 살펴보자.

“도시부럽지 않게 꾸려진 목욕탕과 이발실, 식당, 광부들의 휴게실, 탁구장은 물론 목욕탕의 폐열을 이용하는 건조실까지 훌륭히 꾸려져 있다”(노동신문 2016.8.12.)

“도시부럽지 않은 체육관, 은덕원, 문화회관, 미래원 등이 일떠서고 군소재지 도로가 번듯하게 포장되었으며 ...”(노동신문 2018.8.31.)

“도시부럽지 않은”은 표면적으로는 부럽지 않은 것으로 읽히지만, 역설적으로 부러움을 촉발시킨 도시를 호명함으로써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한 부러움을 드러낸다.⁷²⁾

생산량에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두 공간 간의 불균등발전 메커니즘은 존재하겠지만, 별방과 산간 모두 도시를 위한 식량기지 역할이 부여된 촌락으로서 도시와의 관계에서 형성되는 불균등발전이 보다 근본적이라고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별방부럽지 않은 표현은 도시와 촌락(별방 + 산간)의 대립구도가 전제된 도시부럽지 않은 표현과는 동격으로 볼 수 없다.

72) 남북한 간에 부럽다의 의미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 가령, 한국의 가수 장기하의 <부럽지가 않아>(2022)에서 “너네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해. 난 괜찮어. 왜냐면 나는 부럽지가 않아. 한 개도 부럽지가 않아”라는 가사는 실은 매우 부러워하는 상태임을 잘 보여준다.

위에 인용된 기사 내용을 보면 도시에 비하여 촌락 지역의 열악하고 부족한 시설들(목욕탕, 체육관 등)을 개선내지 신축하여 비록 도시 거주민들이 누리는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더라도 자신들이 살아가는 저발전된 촌락이 발전된 도시의 삶에 가까워지게 된 것에 만족해하는 주민들의 내적 타협내지 절충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

부러움의 대상인 도시가 발전하고, 미디어를 통하여 발전된 도시의 이미지를 접할수록 부러움의 수준은 더욱 고양될 수 있다. 김정일 정권에서 착공된 평양의 창전거리가 김정은 집권 직후인 2012년에 완공된 것을 시작으로 김정은은 미래과학자거리(2015년), 려명거리(2017년) 등을 잇달아 건설하면서 화려한 색깔과 디자인의 초고층 건물들로 평양의 스카이라인이 바뀌었고, 외신에서는 뉴욕의 맨해튼을 닮은 ‘평해튼’이라는 신조어를 만들 정도로 선대와는 차별화된 도시개발을 선보였다. 이처럼 새롭게 형성된 대규모 도시경관은 새로이 등극한 최고지도자가 국가권력을 신속히 확보하고자 하는 욕망으로 해석될 수도 있지만(홍민, 2017), 동시에 그러한 스펙터클을 목도한 북한주민들에게는 그곳에 살고 싶다는 부러움의 욕망을 자극할 수 있다.

“초고층아파트들과 함께 봉사망까지 새로 건설되면 이 일대의 면모가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것이라는 목소리도 울려나오고 텔레비존으로 보니 뽀니뽀니해도 부엌이 널찍하고 흰한 것이 제일 부럽더라는 여인들의 속삭임 소리도 울린다”(노동신문 2013.10.1., 밑줄은 인용자주)

집권 초기인 2013년에 게재된 위 노동신문 기사에서는 아파트의 공간적 특성(“부엌이 널찍하고 흰한 것”)을 매개로 주민들의 욕망(“제일 부럽더라”)을 확인할 수 있다.⁷³⁾ 흥미롭게도 이 기사의 제목이 “초고층아파트아래서 흐르는 민심”인 점은 아파트를 통해 표출되는 주민들의 ‘욕망’을 ‘민심’으로 동일시한다는 점에서 북한 당국은 정권의 이러한 주민들의 욕망 표출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위 기사에서 주목할 지점은 TV, 신문 등의 미디어를 통하여 아파트를 중심으로 발전된 도시의 이미지가 촌락/지방 주민들에게 전달되고 있다는 점이다.⁷⁴⁾ 지난 김정은 집권 10년 동안 평양에서 집중적

73) 당시 촌락뿐만 아니라 평양 이외 다른 도시들에서도 아파트를 통한 욕망의 표현이 확인된다. 예컨대, 창전거리를 방문한 한 소년은 “내가 사는 도시에 이런 멋있는 아파트들을 많이 일떠세워 온 세상에 자랑하겠어”(노동신문 2012.6.4.)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74) 유니세프의 지원을 받아 북한 통계국이 2017년에 발표한 다중지표균집조사(MICS)에 따르면 북한

으로 전개된 대규모 도시개발을 미디어를 통해 목도한 북한주민들에게 부러움의 감정과 자신이 살아가는 저발전된 지역에 대한 부끄러움의 감정이 형성되었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단초들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새로운 살림집이 조성된 검덕지구에 입주하게 된 한 주민은 “TV화면을 통해 삼지연시에 펼쳐진 인민의 이상향을 보면서 정말 부러움을 금치 못하였다. 그런데 나에게도 이런 꿈같은 행복이 차례졌다. ... 도시부럽지 않은 멋진 새집을 마련해주신 ...”(노동신문 2022.1.1. 밑줄은 인용자주)이라 말하면서 평소 도시에 대한 부러움을 갖고 있음을 내비쳤다. 다른 기사에서는 한 광산지역 거주자가 “신문과 방송, 텔레비존으로 소개되는 사회주의선경으로 꾸민 모범적인 단위”를 소개하는 기사들을 접해왔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자신의 거주지는 “자랑거리가 많지 못하다”(노동신문 2016.8.12., 밑줄은 인용자주)며 부끄러움을 드러내었고, 또 다른 지역의 주민은 자신이 사는 지역이 미디어로부터 도시부럽지 않은 성공 사례로 소개되는 것을 자랑스러워한다⁷⁵⁾고 밝힌 점에서 북한주민들의 도시에 대한 공간적 인식과 심리적 변화에 있어서 미디어의 영향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간과해선 안 될 지점은 도시부럽지 않은 표현의 출현과 확산은 온전히 북한주민들의 인식과 의지에 의해서만 추동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모든 인민이 평등한 사회를 표방한 북한에서 도시와 촌락의 경계를 중심으로 경제-사회-문화적 격차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부정하고, 동일한 “우리”를 앞세우는 북한 체제 하에서 “우리” 내부의 균열을 전제하는 도시 부럽지 않은 표현이 나온 것은 당의 의도와 이 표현의 출현이 무관한 우발적인 사건이기보다는 오히려 당의 의도가 섬세하게 반영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앞서 확인했듯이, 그동안 노동신문에서 자신의 체제 우수성을 대외적으로 선전하면서 유사 표현인 “남부럽지 않은”을 사용했음을 감안하면 언급횟수가 적다는 사실만으로 도시 부럽지 않은 표현에 대한 주목의 필요성을 축소할 수 없는 것이다. 노동신문이 “대내외 모두에 공개되는 텍스트로 당의 공식 입장과 정제된 대외 보도 태도”(홍민 외, 2021, 6)를 견지하려는 매체적 특성을 갖고 있음을 감안하면, 노동신문에서 개인의 심리와 욕망이 담긴 도시부

TV 보급률은 평양은 100%, 가장 적은 지역은 자강도로 96.4%이다(UNICEF·DPRK, 2018: 31). 이 조사가 북한주민들에 대한 전수조사가 아니고, 북한통계의 근본적 신뢰도 문제, 보급률이 높더라도 전기공급의 제약으로 인한 TV 시청 가능시간의 지역별 차이 등의 한계가 있지만, TV를 중심으로 북한주민들도 미디어에 노출되어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75) “TV와 신문을 통해 날마다 변모되는 영진리의 모습이 소개될 때면 저도 모르게 어깨가 으쓱해...”(노동신문 2022.7.13., 밑줄은 인용자주).

렵지 않은 표현이 당의 지배 이데올로기(가령, 인민대중제일주의)나 선전구호에 비해 언급횟수가 적은 것은 자연스럽다. 그렇다면 분석의 초점은 김정은 집권 시기동안 북한 당국이 도시부럽지 않은 표현의 사용을 허용내지 조장한 의도가 무엇인지로 향할 필요가 있다.

첫째, “우리 인민”은 모두가 평등하다는 공산주의 이념을 내세우는 것으로는 더 이상 북한의 불균등발전 상황을 숨기기 어려운 지점에 이르렀고, 이 상황에 대한 당의 책임을 전면에 드러내는 것에 대한 정치적 부담을 갖고 있는 북한 당국이 자신을 대신하여 북한 주민의 ‘입’을 통해 불균등발전의 산물인 도시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도시부럽지 않은 표현을 발화케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주민들에게로의 ‘책임전가’는 촌락 지역의 저발전의 원인을 촌락의 고유한 공간적 특성으로부터 기인한 것으로 묘사하는 서사와도 결합된다.

“우리가 농촌에서 산다고 하여 대충 살아가는 버릇을 고치지 못한다면 아무리 훌륭한 조건과 환경이 마련되여도 우리 생활은 언제가도 문명해질 수 없고 또 우리의 자식들은 그런 부모들에게서 무엇을 본받고 따라 배우겠소?”(노동신문 2015.2.22.)

“산골이라고 외모까지 도시사람들에게 짝지겠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 고향사람들을 도시사람들 부럽지 않게 내세울 수 있겠는가 … 산골사람들은 한뼘 외모에서도 도시사람들을 따라갈 수 없단 말인가”(노동신문 2016.1.25.)

위 기사들은 촌락의 저 발전을 거주민들의 습성⁷⁶⁾이 결정적인 것으로 전제하거나 심지어 도시와 촌락 사람들의 외모의 차이를 우등과 열등으로 나누는 인식마저 확인된다. 이처럼 촌락의 저 발전 원인을 온전히 촌락 주민들에게 귀속시키는 서사구조는 현재의 불균등 발전 상황에 당국이 기여한 측면은 비가시화시킨다.

둘째, 대북제재와 국제사회로부터의 고립의 장기화로 인하여 중앙이 각 지역의 불균등

76) 촌락이 아닌 도시에만 거주했던 최고 지도자들의 눈에 촌락에 거주하는 인민들은 “의식 속에 낡은 사상 잔재”(김일성), “머릿속에 남아 있는 낡은 사상”(김정은)을 갖고 있는 열등한 존재로 인식되어왔다(황진태, 2022: 5).

발전을 해결할 자원과 역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지역 스스로 불균등 문제에 앞장서게끔 유도하는 통치술의 의도가 확인된다.

“얼마 전까지 낡은 단층건물이었던 그 학교가 불과 한 달 남짓한 사이에 현대적 건축미를 뽐내는 2층짜리 교사 두동과 체육관, 수영장을 갖춘 몇쟁이학교로, 태양 에너르기에 의한 전력보장체계까지 갖추어진 도시부럽지 않은 학교로 전변된 현실은 자력자강의 창조정신으로 마음먹고 달라붙으면 못해낼 일이란 없음을 웅변으로 뚜렷이 실증해주었다”(노동신문 2016.12.28.)

“봄부터 가을까지 전투에서 전투로 이어지는 바쁜 농사일을 하면서 농장자체의 힘으로 덩치 큰 교사건설을 한다는 것은 보통의 각오와 열정으로는 어렵도 없었다. 하지만 후대들을 위한 일을 국사 중의 국사로 내세우는 우리 당의 숭고한 뜻을 심장깊이 새긴 이곳 일군들은 주저와 동요를 몰랐다. 학교를 지을 바에는 도시학교 부럽지 않게 지어주자!”(노동신문 2017.7.23., 밑줄은 인용자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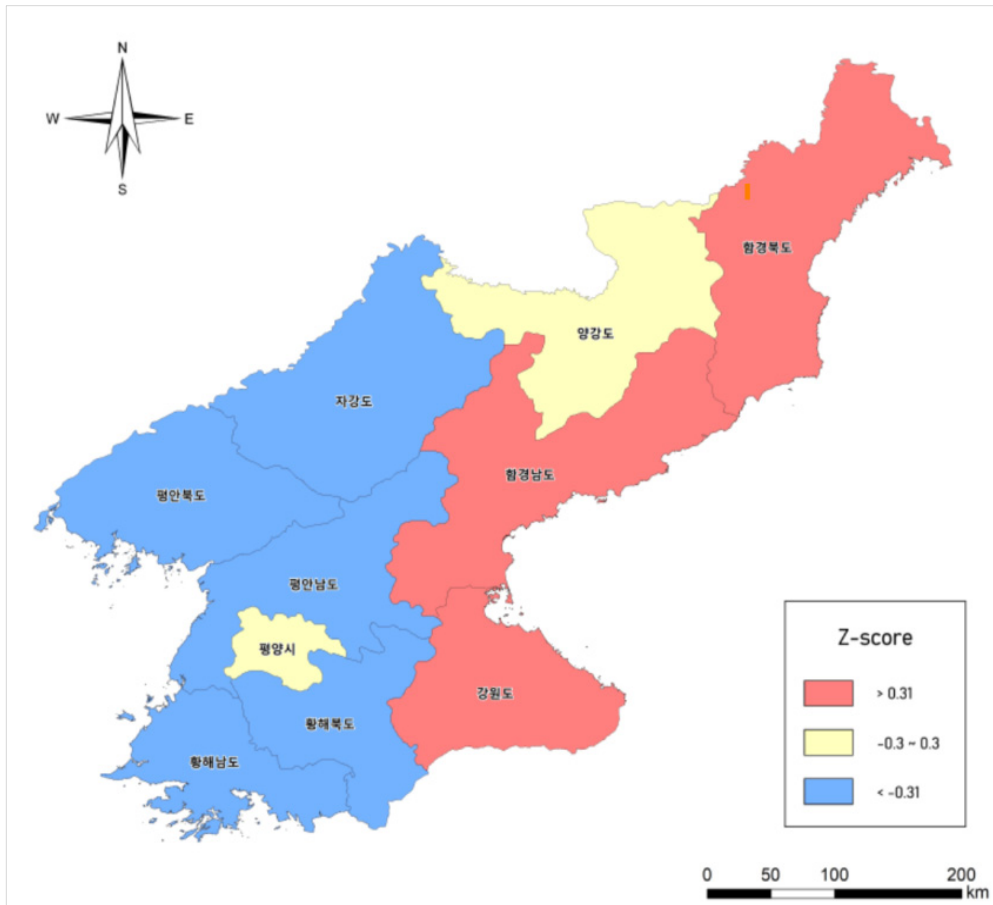
즉, 중앙의 제한된 자원으로 지역의 불균등발전을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북한 당국은 “자력자강”, “자력갱생”이라는 추상적인 기치들을 지역에서의 인력, 자원을 최대한 동원(“농장자체의 힘”)하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지게끔 한 것이다. 앞서 첫 번째 의도인 저발전의 원인을 원천적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돌리는 서사마저 결합된다면 중앙의 지원 없이 오로지 지역의 인력과 자원 총동원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지역주민들의 불만 표출이나 저항의 가능성은 더욱 낮아진다.⁷⁷⁾

집권 초기에 통치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정책옵션이 제한된 상황에서 선택된 대규모 도시개발은 새로운 통치자의 능력을 가시적으로 인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효과적 방식일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평양 중심의 도시개발은 중앙과 지방, 도시와 촌락의 격차를 심화시키면서 장기적으로는 통치에 부담을 줄 수 있는 불균등발전 문제를 잉태했다. 더구나 미디어를 통해 발전된 도시 이미지의 전국적 확산은 그러한 공간으로부터 소외된 촌락주민들의 부러움과 거주하고 싶은 욕망을 자극했다. 김정은 집권 10년 동안 도시부

77) 한 보도에 따르면 지역주민들에게 채소 공급을 목적으로 세워진 함경남도 연포온실농장의 조성과정에서 중앙이 도 차원의 지원을 촉구하면서 지역주민들의 노동력 및 자원들이 상당히 동원되어 주민들의 불만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데일리NK, 2022.3.4.).

럽지 않은 표현의 출현이 지속적으로 증가해온 상황은 불균등발전에 직면한 북한 당국으로서의 문제의 원인인 발전된 도시에 대한 비도시 지역 주민들의 욕망의 가시화를 용인하면서도 그러한 욕망이 형성된 주민들이 자신들의 지역에 직면한 저발전 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장서도록 유도하는 통치의 논리가 상호 연결되었다.

〈그림 2〉 “도시부럽지 않은”이 언급된 지역의 전반기(2012-2016)/후반기(2016-2021) 시계열 변화



출처: 필자 작성.

앞에서는 도시부럽지 않은 표현이 담긴 기사들의 시간적 추이에 집중했다면, 다음으로 는 그러한 시간적 변화에 따라서 도시부럽지 않은 표현과 연동된 지역들을 언급한 기사수 의 변화를 살핍으로써 공간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우선 “도시부럽지 않은” 언급 기사들에서 나타난 지역명을 수도 평양과 9개 도를 기준

으로 정리한 데이터를 만들었다. 지역별 기사수의 1개년도 변화를 살펴보려하면 그 변화가 점진적이지 않고 편차가 크게 나와 전체적인 추이나 패턴을 파악하기 어려워 5년 단위(전반기/후반기)로 나누었다. 데이터는 표준화(standardization) 방식을 사용했다. 전반기의 데이터와 후반기의 데이터는 그 값(전반기 연도별 평균 4.6개/후반기 연도별 평균 10.6개)에서 큰 차이가 있어서 시계열 분석을 위해서는 표준화 과정이 필요하다. 표준화는 데이터 간의 단위 및 특성의 불일치 등이 발생했을 때 이를 같은 기준으로 분석하기 위한 기법이다. 표준화를 시행시 Z값 0(평균)을 기준으로 해당 데이터가 어느 서열에 위치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즉, 지역별 단순 언급횟수의 증가를 보려는 것이 아니라 지역 간 증가한 정도의 차이를 포착하는데 방점을 둔다. 결과적으로 <그림 2>에서 파란색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하여 전반기에 상대적으로 언급이 많았던 지역을 가리키고, 붉은색 지역은 후반기에 다른 지역에 비하여 언급이 많았던 지역을 가리킨다. 노란색 지역은 상반기와 후반기를 통틀어 평균 수준으로 언급된 지역을 가리킨다.

<그림 2>에서 가장 눈에 들어오는 패턴은 “도시부럽지 않은” 표현이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공간이 김정은 집권 전반기에는 서부지역이고, 후반기에는 동부지역이라는 점이다. 다시 말해, 전반기에는 평안북도, 평안남도를 중심으로 서부지역에 기사수가 많았고, 후반기에는 함경남도와 함경북도를 중심으로 동부지역에 기사수가 집중적으로 증가한 양상이다. 북한의 지방주민들이 저발전에 대한 불만과 평양과 같은 발전된 도시에서 살고 싶다는 욕망을 동일하게 갖고 있다고 가정한다면, 전반기에 유독 서부지역에서 도시부럽지 않은 표현이 증가한 것은 당국이 서부지역을 동부지역보다 도시부럽지 않은 발언이 나올 계기를 제공할 지역사업들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실제 중앙이 지방에 지원을 했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서부지역에 정책적 관심을 두는 공간선택성(spatial selectivity)이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공간선택성은 도시에 대비된 동일한 저발전된 촌락 이더라도 촌락들 간의 자연·인문지리적 특성의 차이가 북한 당국의 입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서부지역은 동부지역에 비하여 고도와 경사도가 낮다는 점에서 인간이 거주하기에 좋은 평지가 많다. 산간지대도 상대적으로 동부지역에 비해 서부지역은 가파르지 않아서 정주 조건이 좋다. 이러한 공간적 특성으로 인하여 수도 평양을 중심으로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평양과 평안남도는 북한에서 인구밀도가 가장 높고, 동부지역은 몇몇 도시(청진, 함흥 등)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인구밀도가 낮은 편이다(국토교통

부·국토지리정보원, 2017: 48). 또한 북중교역의 60~80%를 차지하는 대표 관문도시인 신의주로부터 유입된 물류의 흐름이 서부지역의 평안북도와 평안남도에 위치한 도시들을 관통하면서 도시를 기반으로 부가 축적되었고(북한도시사연구팀, 2014; 홍민, 2015),

이들 도시와 지리적으로 인접한 촌락주민들이 자신의 지역을 도시부럽지 않게 만들기 위한 자원을 확보하는 것도 용이할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지방에 대한 지원을 해줄 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중앙은 ‘자력자강’의 기치 하에 도시부럽지 않은 촌락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을 갖춘 서부지역에 위치한 촌락들을 우선적으로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게 효과적일 것으로 고려했을 수 있고, 다른 한편 서부지역 촌락의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동부지역에 비해 발전된 도시와의 지리적 인접성으로 인해 미디어를 통해서뿐만 아니라 실제 발전된 도시를 방문하거나 방문했던 사람들과의 접촉으로 도시부럽지 않은 삶에 대한 욕망이 동부지역 보다 선명하게 존재할 수 있었을 것이다. 결국 이러한 북한당국과 서부지역 주민들의 이해가 맞아 들어가면서 전반기에는 도시부럽지 않은 표현이 서부지역을 중심으로 나타났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III. 결론

본 연구는 김정은 집권 10년 동안 북한 매체(특히, 노동신문)에서 언급이 증가하기 시작한 “도시부럽지 않은” 표현이 갖는 의미를 분석하고자 했다. 김정은 정권에서 새롭게 제안된 인민대중제일주의와 같은 거시적 차원의 지배 이데올로기가 실제 주민들이 동의하고, 체화되기 위해서는 보다 ‘작은’ 이데올로기가 필요하다고 보고 “도시부럽지 않은”이라는 북한 주민들의 욕망이 담긴 표현이 거시적 지배 이데올로기의 확산과 이식을 보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았다.

김정은은 평양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도시개발을 새로운 정치지도자로서 자신의 입지를 굳히기 위한 전략으로 활용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평양과 몇몇 주요 도시에 기반한 도시개발이 도시와 촌락 간의 불균등발전을 심화시키는 계기가 되었고, 더불어 그러한 개발된 도시에 대한 이미지가 미디어를 통하여 나머지 저발전 지역으로 확산되면서 비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로 하여금 도시에서의 삶을 욕망하게 만들었고, 북한 당국으로서는 도시와 촌락 간의 불균등발전 문제를 보다 심각하게 인지하기 시작했다. 도시부럽지 않은 표현은 한편으로는 주민들의 욕망을 가시화하는 것을 허용하면서도 동시에

지방발전을 지원할 자원이 부족한 중앙이 도시부럽지 않은 지역을 만들고 싶어 하는 지역 주민들 스스로 지역의 발전을 위해 인력, 자원의 동원을 유도하는 통치전략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김정은 집권 전반기와 후반기로 구분하여 전반기에는 서부지역(특히, 평안북도, 평안남도)을 중심으로 도시부럽지 않은 표현이 집중된 것을 통해 기존에 인구가 집중되어 있고, 동부지역에 비하여 경제적으로 부유한 서부지역에 속한 촌락들이 동부지역에 비하여 지역의 개발사업을 추진할 자원이 있고, 주민들 또한 발전에 대한 욕망이 보다 고양된 점을 고려하여 당에서 서부지역에 보다 정책적 관심을 두는 공간선택성이 나타난 것으로 분석했다.

후속적으로 필요한 연구는 후반기에 동부지역에서 도시부럽지 않은 표현이 집중된 원인의 규명이다. 전반기에는 가시적인 성과를 얻기 위하여 자력갱생에 의한 도시부럽지 않은 지역을 만들 수 있는 서부지역에 집중했지만, 근본적으로 불균등발전은 도시와 촌락뿐만 아니라 서부에 비하여 인구가 적고, 산간지대인 동부지역의 저발전에 대한 해결이 필요하다. 따라서 북한 당국으로서는 후반기에 들어서는 서부지역 다음으로 동부지역에 집중하려는 행보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단순히 순서의 측면에서 서부지역 다음 지역으로 자연히 동부지역에 도시부럽지 않은 표현이 증가했다기보다는 다른 우발적 상황들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 우선 최고 지도자 김정은이 도시부럽지 않은 표현을 직접 언급한 횟수가 증가했다는 점이다. 공식 매체를 통하여 그가 도시부럽지 않은 표현을 사용한 것은 전반기인 2016년에 평안남도 시찰을 하면서였고, 하반기 들어서는 삼지연시(2017년), 평안북도 신도군(2018년), 함경북도 증평남새온실농장(2019년), 함경남도 홍원군 태풍 피해지역 방문(2020년) 등의 동부지역을 집중방문하면서 도시부럽지 않은 표현을 지속적으로 사용했다. <그림 1>에서 2019년에 도시부럽지 않은 표현의 언급횟수가 정점을 찍은 것은 김정은이 증평남새온실농장을 직접 방문하고, 삼지연시와 함께 본보기로서 증평남새온실농장을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업으로 규정하면서 관련 보도가 많았기 때문이다.⁷⁸⁾ 2017년 5월 제7차 당대회에서 자강력 제일주의가 전면에 나왔다가 2018년 ‘한반도의 봄’ 시기에 다시 수면 아래로 들어가는 형세였다가 2019년 2월 하노이 협상 결렬로 인한 정치적 위기에 직면했

78) “앞으로 산간지대의 군들은 삼지연군과 같은 기준에서 건설하며 농촌마을은 경성군 증평남새온실농장 마을수준으로 건설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었다”(노동신문 2019.10.18.).

고, 다시 자력갱생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지역주민이 아닌 최고지도자의 입을 통하여 도시부럽지 않은 표현이 발화된 것은 보다 직접적으로 현존하는 불균등발전의 존재를 최고지도자가 인정하고, 주민들이 도시에 대한 욕망을 드러낸 것을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혹은 정치적 위기 돌파의 일환으로 자력갱생이 제안되고, 그러한 지도자의 정치적 위기회피의 일환으로 호명된 도시부럽지 않은 표현은 주민들의 욕망의 표출과는 거리가 더 멀어지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이러한 다양한 지점들에 대한 논의가 후속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국토교통부·국토지리정보원, 2017, 『대한민국 국가지도집 I』.

북한도시사연구팀, 2014, 『함흥과 평성』, 한울.

홍민, 2015, 『북한의 시장화와 사회적 모빌리티: 공간구조·도시정치·계층변화』, 통일연구원.

홍민, 2017, 『김정은 정권의 통치 테크놀로지와 문화정치』, 통일연구원.

UNICEF·DPRK, 2018, *2017 DPR Korea MICS*.

로동신문.

세션3

도시 스카이라인과 군사지리의 블랙박스 열기

발표1

김정은 시대의 평양, 평해튼,
그리고 평해트니즘(Pyonghattanism)
안진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발표2

군사화 경관으로 본
한반도 군사지리와 공간적 스펙터클
홍 민 (통일연구원)



I. 들어가며

1. 연구 배경과 목적

초고층 건축물은 그것을 건설해내기까지 드는 권력의 힘을 연상시키곤 한다. 호콘 예로브와 칼 크루센(Haakon Gjerløw and Knutsen, 2017)는 도시의 마천루를 ‘하얀 코끼리’에 비유하며 독재 통치자들의 시각화된 권력으로 해석한다. 만약 이 하얀 코끼리가 하나가 아닌 여럿이고 그것이 한 사람의 통치에 의한 것이라면, 그 도시의 모든 마천루의 높이와 개수는 한 통치자의 권력 그 자체가 될 것이다. 이 글은 김정은 집권 10년 동안 평양에 건설된 마천루를 바탕으로 도시 권력의 총량을 측정해 보고자 하는 시도다.

평양에서 초고층 건축물은 창전거리, 려명거리, 최근 건설된 송화거리 등에서 볼 수 있는데, 하나의 거리에 여러 채가 모여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모습 때문에 김정은 시대의 평양은 ‘평해튼’이라 불리기도 한다. 초고층 빌딩이 서로 가까이 모여있는 것을 뉴욕 맨해튼에 비유한 말이다.

맨해튼은 1900년대부터 뉴욕에 건설된 마천루의 숲이다. 렘 콜하스(Rem Koolhaas, 1978)는 맨해튼을 건축 기술의 발전과 도심화 현상 사이에서 발현된 초현실적인 산물로 보았다. 그는 이 대도시의 형성과정을 지배한 도시 이데올로기를 ‘맨해트니즘’(Manhattanism)으로 진단했다.

르 코르뷔지에(Le Corbusie)는 도시에서의 업무 효율과 근로자 편의를 추구하며 빛나는도시(The Radiant City, 1924)를 계획했다. 도심에 초고층 건축물을 집중시키는 한편, 그곳에 경제 생산을 주도하는 인구를 입주시키는 것을 기본 내용으로 한다. 이후 파리 중심부에 부아쟁(Voisin) 설계로 이를 구체화했다(Le Corbusie, 1925). 그러나 실현되

지는 않았다.

위 두 도시 중 하나는 자본주의 도시를 대표하고, 나머지 하나는 현대 도시에 대한 비판에서부터 출발한 사회주의 도시의 청사진이다. 두 도시는 양극단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초고층 건축물을 공통분모로 한 유사점들이 발견된다. 실제로, 쿨하스는 빛나는도시 계획이 맨해튼에 대한 비판적 시각으로부터 출발했다는 점을 지적한다(Koolhaas, 1978).

한국전쟁 이후의 평양에서는 르 코르뷔지에의 아이디어를 찾아낼 수 있다. 생산과 생활 거점을 근거리에 접목시킨 직주근접 개념에 따른 건축물 배치가 그러하다. 그러나 김정은 시대의 평양은 사회주의 도시계획과는 전혀 연관성이 없을 것 같은 맨해튼에 비유된다. 최근의 평양을 두고 단지 외관 차원의 변화만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아니면 이전과 구분되는 도시 이데올로기의 전환이 일어나는 중일까? 이 글은 평양의 마천루를 중심으로 김정은 시대의 ‘평해트니즘’을 탐구하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가. 김정은 체제와의 비교 범주 설정

김정은 집권 시기에 건설된 건축물의 변화 여부는 그 이전 시기와의 비교를 통해 차이를 파악할 수 있다. 건축에 관한 김정일은 관심은 그의 저작 『건축예술론』으로 알려져 있고, 건축 분야에서의 지도 활동에서도 드러난다. 김정일은 1980년 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후계자로 공식 인정받은 이후, 같은 시기 동평양지구 개발의 시작점이라 할 수 있는 문수거리 건설에 관여하게 된다(전영선, 2022: 148). 이러한 정황에 따라 건축 분야에서 김정일의 활동 시기는 1980년대를 시작으로 볼 수 있다.

한편, 1990년대 북한의 경제적 어려움은 도시 건설의 수평적 규모를 줄어들게 했으나 수직적 규모에서는 큰 도전들이 있었다. 1990년 신년사에서 5만 세대 살림집 건설이 사회주의 건설 목표로 제시되어 통일거리에 42층 높이의 초고층 살림집이 들어서게 된다. 비록 완공되지 않았지만 1987년 착공한 105층 규모의 류경호텔 건설 노력도 있었다.

2012년 창전거리의 완성은 김정은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창전거리 재개발은 2008년 시작된 평양 10만 세대 건설사업 중 하나로, 2009년에 『로동신문』에 만수대거리 아파트가 소개됐을 때쯤 본격화됐다(로동신문, 2009). 2010년은 내부적으로 김정은이 상당한 권위를 갖고 경제사업을 지도하던 시기로, 창전거리 공사 또한 김정은이

지휘하게 된다.

김정일과 김정은 모두 후계자로 떠오르는 시기에 각각 문수거리와 창전거리 건설을 지휘한 공통점이 있다. 이 글은 두 지도자가 집권 이전부터 관여한 건설 결과물들이 완성된 시점을 각각의 시간적 범위로 정해 비교한다. 김정일은 1981년부터 2011년까지, 김정은은 2012년부터 현재인 2022년까지 건설된 마천루가 비교 대상이다.

나. 마천루의 위치에너지 측정 및 비교

마천루에 투영된 권력자 간 힘의 대소를 비교하기 위해, 유현준(2018)이 제시한 건축물의 위치에너지 산출을 통한 권력값 측정 방법을 참고한다. 위치에너지를 권력의 정도로 보는 관점은 건축물의 높이를 그것을 짓기 까지 드는 비용과 그에 동원되는 노동력의 값으로 보는 관점에 기인한다(유현준, 2018). 북한은 민영 건설회사가 없고 중장비와 숙련된 인력이 군에 집중된 관계로 대형 건설 현장에 수만 명의 북한 군인들이 동원된다(김규현, 2015). ‘속도전’ 하에 국가가 군인 건설자들의 노동력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결과물인 건축물은 국가, 즉 지도자의 권력을 측정하기에 적절한 수단이라 할 수 있다. 이 글은 건축 분야에서의 김정일과 김정은의 활동 시기, 이 두 시기 동안 지어진 마천루의 위치에너지 값을 도출하여 그 합을 비교한다. 산출식은 다음과 같다.

$$mgh=1/2 \times mv^2$$
$$\Rightarrow \text{위치에너지} = \text{질량} \times 9.8(\text{중력가속도}) \times \text{높이}^*$$

*건축물은 재료에 따라 질량이 다르지만, 이글은 같은 재료로 가정하여 부피로 질량을 대체한다. 다음으로, 위치에너지 값의 상대적 비교가 목적이기에 상수인 중력가속도 9.8을 삭제한다. 따라서 이 글에서의 위치에너지는 건축물의 부피에 높이를 곱한 값이다.

평양 초고층 건축물의 외관은 스카이스크래퍼페이지(Skyscraper Page) 웹사이트의 건축 다이어그램을 참고하여 건축물마다 위치에너지 값을 산출하기에 적절한 간격을 정했다. 건축면적은 『조선』에 실린 정보를 활용했다. 정보가 부재한 경우, 구글어스가 제공하는 위성사진에서 해당 건축물의 면적을 측정했다. 이는 촬영 각도에 따라 오차의 여지가 있어 시기별로 촬영된 여러 사진에서 면적을 구해 평균값을 구했다.

다. 프로그램 분석 틀 도출과 평양 대입

이 글에서 ‘평해트니즘’은 콜하스가 뉴욕 맨해튼에 대한 건축적 개념을 ‘맨해트니즘’이

라고 일컬은 데서 착안한다. 콜하스는 저서 *Delirious New York*(1978)에서 고밀도와 고층으로 점철된 대도시의 현상을 고찰하기 위한 분석 모델로써 맨해튼을 선정했다(김원갑, 2001: 47).

한편, 르 코르뷔지에에는 파리 한복판에 모든 역사적 흔적을 말끔히 지워 버리고 그곳에 “최초의 반맨해튼을 만들려는 의도”를 계획했다(Koolhaas, 1978: 293). 그는 저서 *Urbanisme*(1925)에서 도시가 엄격한 질서에 의해 지어졌을 때 현대도시의 목적에 최적화될 수 있음을 주장했다. 중세의 비계획적인 도시의 흔적이 남아있던 파리 도심부를 60층의 고층 빌딩과 주거용 건물의 합으로 전면 전환시킬 것을 주장한 부아쟁 설계는 도시계획에 관한 그의 사상이 점철된 청사진이다.

맨해튼과 파리 부아쟁에 투영된 빛나는도시 계획은 도시계획 측면에서 서로 반대되는, 맨해튼-반맨해튼의 관계에 놓이지만 그만큼의 유사성 또한 찾아볼 수 있다. 그리드를 바탕으로 하는, 초고층 건물 중심의, 건축물 외관을 고려한, 도심 속 정원을 포함하는 계획이란 점이다. 이 글은 평양의 마천루를 위 네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고, 반맨해튼(빛나는도시)과 맨해튼 사이에서 과거와 현재의 평양이 위치하는 지점을 해석한다.

II. 평양에 구현된 시대별 권력

1. ‘초고층’과 북한

초고층 건축물에서 ‘고층’은 어느 정도의 높이를 말하는 것일까. 고층을 넘어 도시에 독창적인 경관을 남기는 초고층 건축물은 ‘마천루’(skyscraper)로 그 의미가 한 층 더 강조된다. 마천루는 그것이 가리키는 특정 높이나 층수가 있기보다는 주변 건축물에 비해 압도적인 수직성을 보일 때 부여되는 상대적 개념에 가깝다(구동회, 2015). 마천루는 시대에 따라 그것이 가리키는 높이가 점차 상승했다. 19세기 후반 뉴욕과 시카고의 초기 마천루는 6~7층의 높이 35m 정도다(Peet, 2011). 현재 독일 부동산 정보회사인 엠포리스(Emporis)는 높이 100m 이상, 위키피디아는 40층 이상, 브리टे니커 백과사전은 40~50층 이상의 건물을 마천루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 건축법 시행령(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 200m)을 포함한 마천루 높이의 정의 중 가장 낮은 기준이다(구동회, 2015: 693).

1970년대 북한이 살림집 건설에서 강조하던 ‘속도’는 1980년대에 들어 ‘높이’로 전환

된다. 88서울올림픽 개최에 대한 대응으로 북한은 1985년에 안골체육촌과 그와 인접한 곳에 광복거리에 아파트를 건설했다(전영선, 2022: 153). 계획 규모는 2만 6천 세대 수용, 최고층은 42층 높다. 광복거리 아파트 중 3~5동은 35층에 높이는 122.5m로, 1980년대에 이미 엠포리스와 위키피디아가 정한 마천루 기준 높이를 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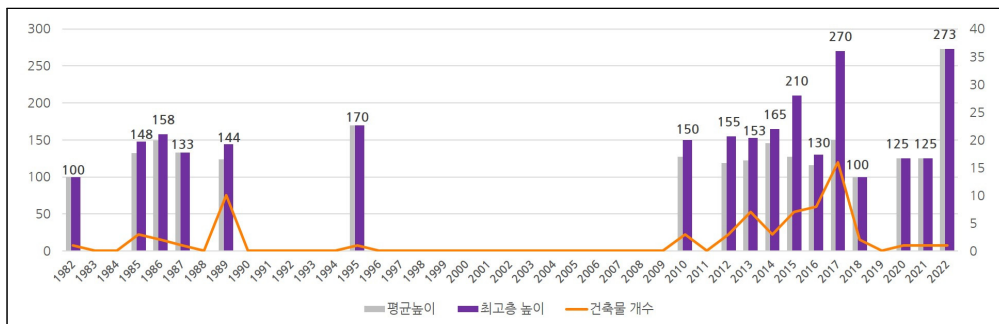
엠포리스 기준에 따라 높이 100m 이상의 건축물을 북한의 마천루라 한다면, 그 높이 이상의 건축물은 평양에 총 79채다. 류경호텔을 현재 활용되지 않고 있어 개수에 포함하지 않았다. 2012년을 기준으로 그 전후의 마천루를 분류하면 전자 동안 총 22채, 후자가 총 57채로, 김정은 집권 시기에 2.6배 정도 더 많은 개수의 마천루가 건설됐다.

〈그림 1〉은 1980년대부터 매해 평양에 건설된 마천루의 개수, 연도별 최고층의 높이, 연도별 평균 높이를 나타낸 그래프다. 1980년대부터 활발했던 높이에의 강조,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사이의 성과 공백, 그리고 2010년대 마천루 건설의 부활을 알 수 있다. 연도별 최고층의 높이는 1982년 100m, 1986년 158m, 1995년 170m, 2015년 210m, 그리고 2022년에 273m로, 점차 높아지는 초고층의 기준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평양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은 2022년 건설된 송화거리 메インタ워(높이 273m, 80층), 2017년 건설된 려명거리 살림집(높이 270m, 82층), 2015년 건설된 미래과학자거리 은하타워(높이 210m, 55층) 순이다(그림 2). 모두 김정은 집권 시기에 건설되었다. 그다음은 1995년 건설된 양각도호텔로, 높이 170m에 47층 규모다(그림 2). 초고층의 기준이 김정은 집권 시기에 올라갔지만, 15년이라는 공백을 두고도 김정일 집권 시기 건축물이 높이에서 상위에 속한다.

2. 김정은 시대 도시 권력의 증감

〈그림 1〉 연도별 평양에 건설된 초고층 건축물 개수, 건축물 평균 높이, 가장 높은 건축물 높이



출처: 필자 작성.

김정은 체제의 살림집 건설 사업은 인민이 좋은 집에서 살기 위한 국가적 대 건설 차원의 것이며, 『로동신문』은 이른 ‘김정은 시대 인민사랑의 기념비’라 자평한다(로동신문, 2022). 초호화 주택을 선물해 충성심을 끌어내는 선물 정치는 북한의 오랜 통치 수단이다(박은경, 2021). 김정일 집권 시기는 ‘고난의 행군’으로 어려웠지만, 그 이전까지는 마천루 건설이 이뤄졌다. 두 지도자 모두 마천루의 건설 의지가 있고 그것이 도시 권력의 형태로 평양에 전개됐다면, 김정은 시대에는 그 권력이 이전 대비 어느 정도 증가했을까?

두 지도자의 도시 권력의 측정을 위해, 앞서 제시한 총 79채의 마천루에 대한 위치에너지 지를 계산한다. 그 결과, 김정일의 건축 분야 활동 시기부터 실질적 집권 시기까지 건설된 마천루의 위치에너지 값은 총 4억 5백만 대(405,535,720)이며, 김정은은 10억 1천8백만 대(1,018,077,215)이다. 김정은이 김정일보다 2.5배 높다. 다만 이는 여러 채의 위치에너지 값을 합한 정량적 수치로, 시기별 북한의 경제적 상황과 건설 경기, 그리고 마천루 건설 기술의 발전 정도를 반영하지는 못한다.

만약 북한의 경제적 상황이 마천루의 개수를 결정한다고 가정하면, 마천루의 위치에너지 총합을 건축물의 총 개수로 나눈 평균값은 각 시기의 경제 상황을 반영한 도시 권력의 정도로 추정할 수 있다. 1980년대에 들어 속도에서 높이로 전환된 건축 방향은 더 많고 더 빠르게 건축물을 짓기 어려운 상황일 경우, 하나의 건축물을 더 높이 짓는 대안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위 가정에 따라 마천루의 위치에너지 총합을 건축물의 개수로 나눈 평균값을 경제 상황을 감안한 도시 권력의 정도로 추정하여 앞서 구한 위치에너지값을 건축물의 개수로 나누면, 그 값은 김정일과 김정은 순으로 각각 1천8백4십만 대(18,433,441.81)와 1천7백8십만 대(17,861,003.77)다. 이는 마천루 한 채에 드는 위치에너지의 평균이다. 김정은 보다 김정일 활동 시기에 마천루 건설에 평균 1.03배 정도 높은 위치에너지가 동원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그 값은 두 시기가 거의 비등하다.

〈그림 2〉 왼쪽부터 평양 송화거리, 려명거리, 미래과학자거리, 양각도호텔



출처: SPN서울평양뉴스, 뉴스원

북한은 김정은의 집권 10년을 맞아 건설 분야가 비약적으로 발전한 시기라고 자찬하며 “위대한 당 중앙의 독창적인 건축 발전 구상과 탁월한 영도 밑에 지난 10년간 건설에서 일대 혁명이 일어”났다고 주장한다(연합뉴스, 2022). 그러나 앞서 비교한 마천루의 위치에너지는 개수의 증가 그 이상을 말하지는 않는다. 김정일과 김정은은 주어진 상황에서 최대한의 수직적 권력을 행사했고, 행사하고 있다. 마천루로 본 김정은의 ‘권력’은 스스로 얻어낸 것이기보다는 전 세대로부터 그대로 물려받은 것임을 보여주는 단면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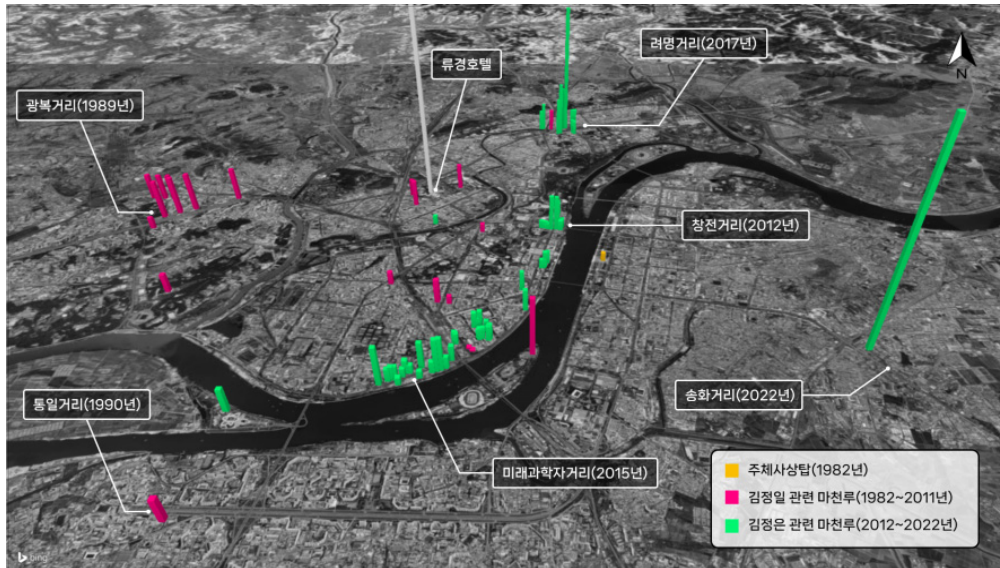
3. 평양 마천루 지도

〈그림 3〉은 평양에 마천루의 위치에너지를 시각화한 지도다. 입체 막대그래프는 마천루가 위치한 지점에서 해당 위치에너지의 높이만큼 올라간다. 분홍색 그래프는 김정일, 초록색 그래프는 김정은의 집권 시기와 관련된다. 노란색 그래프는 주체사상탑이다. 이 지도에서 주체사상탑은 평양 중심부에 위치해 그래프의 전체적 높이를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이다. 주체사상탑의 위치에너지 값을 1로 변환한 후, 이를 기준으로 한 나머지 건축물의 증감 정도가 지도에 시각화했다.

지도에서 입체 그래프의 바닥면적은 모두 같다. 따라서 입체 막대그래프의 높이는 모든 마천루가 같은 건축면적을 지닌다고 가정했을 때 그것이 올라가는 정도를 보여준다. 건축물이 고층이면서 그 매스가 클수록 그래프의 높이는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진다. 송화

거리 메인타워와, 러명거리 살림집이 다른 건축물에 비해 그래프가 압도적으로 높은 것도 이 때문이다.

〈그림 3〉 평양 마천루 시각화 지도(Excel 3D Maps에서 작업)



출처: 필자 작성.

그래프 높이 편차는 마천루가 모여있는 구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지도에서 마천루가 모여있는 곳은 광복거리(1989년 준공), 창전거리(2012년 준공), 미래과학자거리(2015년 준공), 러명거리(2017년 준공)다. 광복거리 외에는 모두 김정은 집권 시기에 준공됐다. 2022년에 준공한 송화거리는 메인타워만이 이 글이 정한 초고층에 해당하고 나머지는 제외되어 지도에서 마천루의 모임으로 표현되지 않았다.

광복거리, 창전거리, 미래과학자거리, 러명거리는 마천루가 모여 있으면서도 그 모습에 차이가 있다. 먼저 건축물 간의 높이 차가 있다. 광복거리는 건축물 간의 높이가 거의 같지만, 창전거리, 미래과학자거리, 러명거리는 건축물 간의 높이 차이가 크다. 그다음은 모여 있는 건축물 간의 간격 차이다. 광복거리는 유사한 높이의 건축물이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지만, 나머지 셋은 사이의 거리가 매우 가깝다. 마지막으로 건축물들의 입지 특성의 차이다. 김정은 집권 시기에 지어진 건축물일수록 그 입지는 대동강을 향한다. 그 외에 김정은 집권 시기의 건축물 외관에서 그 전보다 건축물 간 구분되는 개성이 나타나는 점이 있다.

김정은 체제의 마천루는 ‘한 구역 내 건축물 높이 다양화’, ‘건축물의 밀집’, ‘강변으로의 건축물 이동’, ‘건축물의 외적 다양화’로 그 특징을 정리할 수 있다. 이는 지난 10년간 평양에 나타난 급진적 변화이므로, 최근의 평양이 평해튼으로 불린 것과 연관이 있을 것이다. 반면, 그 이전 시기의 특징은 평해튼에 구체화된 이미지를 제공한 맨해튼과 차이를 보일 것이다. 다음 장은 이러한 예측을 확인해볼 수 있는 분석틀에 관한 것이다.

III. 맨해튼-반맨해튼 스펙트럼

맨해튼 역사에 관한 쿨하스의 사유와 르 코르뷔지에의 이상적 도시계획은 각 도시 형성의 목적에 부합하는 최적의 형태로서 고려되었다. 마천루를 연결고리로 유사한 지점을 지닌 이 두 이론은 ‘계획 단위’, ‘내부 프로그램’, ‘건축물 외관’, ‘도시 녹지’의 측면에서 서로의 차이를 비교해볼 수 있다.

1. 계획 단위

쿨하스는 맨해튼이 초밀도 도시에 이르게 된 원인으로 ‘그리드’를 꼽는다. 맨해튼은 바다로 둘러싸인 섬이다. 단가가 높은 이 섬을 최대한으로 이용하는 방법은 공간을 균등화하는 것이다. 이에 1800년대 초반 계획 당시 대지는 일정한 간격으로 나뉘어 모든 블록이 같아졌다. 쿨하스에 따르면 2,028개의 블록을 만들어낸 그리드는 다닥다닥 붙어 있는 직각의 주택을 유도하며, 더욱 많은 인구에게 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공평함의 상징이다(Koolhaas, 1978: 23).

직선이 강조된다는 점에서 맨해튼과 유사해 보일 수 있으나, 코르뷔지에의 직선은 그가 “당나귀의 길”(Le Corbusier, 1925: 19)이라 부른 전통적 도시의 구불구불한 길에 대한 비판에서 유래했다는 점에서 다르다. 그는 “현대도시는 직선에 의지하여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더욱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Le Corbusier, 1925: 24). 직선으로 이뤄진 계획 단위의 크기는 400미터와 200미터다. 이 단위가 만들어낸 바둑판무늬는 고가도로, 업무·주거지역, 정원으로 이뤄진 현대 도시의 삶에 적합한 효율적 체계를 담아낼 수 있는, “혼돈의 뉴욕”을 정복한 “빛 아래에 있는, 현대의 도심지”다(Le Corbusier, 1925: 184).

2. 구성 프로그램

과거 수평적으로 전개됐던 생활양식이 철골구조로 층층이 쌓이게 되면서, 예전의 단독 주택과 부수적 기능들, 건축 양식들과 정원 등과 같은 삶의 형태는 인공적 층별로 전시되었다(Koolhaas, 1978: 97). 마천루에 독립적 생활이 쌓이는 구조는 몇몇의 새로운 생활 양식을 탄생시켰다. 하나는 개인적 생활이다. 각각의 층에 주거나 업무, 어떤 삶이 들어가더라도 외적으로는 드러나지 않게 되었고, 이로서 내부는 건축물 외부부터 완전히 분리되었다. 쿨하스가 “뇌엽 절제 수술”(Koolhaas, 1978: 121)이라 칭하는 이러한 분리는 내부의 화려함과 은밀함을 증폭시켰다. 맨해튼의 어떤 건축물 중 한 층은 영국식 정원을 이식한 실내 골프장이 되기도 했다.

르 코르뷔지에의 마천루는 건축물이 서로 최대한 멀리 떨어도록 계획되었다. 건축물을 가르는 길의 교차점은 대도시에서의 사무활동을 위한 교통의 핵이다(Le Corbusier, 1925: 121). 르 코르뷔지에에는 빠른 속도의 교통을 포함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기존의 도심지를 파괴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고, 파리 중앙부에 계획했던 부아쟁 계획은 그러한 생각의 집약체라 할 수 있다. 그에 따르면 도심지 중앙은 근대 산업활동의 구심점이 되어야 하므로 그곳의 마천루는 사무실이 되어야 한다(Le Corbusier, 1925: 108). 업무의 최대 효율성을 위해 주거시설은 사무실 가까이에 배치된다. 하나의 건축물이 단일 프로그램을 가지되, 도심의 교통 인프라를 중심으로 점차 확장되는 구조가 르 코르뷔지에 도시계획의 특징이다.

〈표 1〉 반맨해튼-맨해튼 스펙트럼

기준	맨해튼		반맨해튼(빛나는도시 계획)
계획 단위	✓대지면적 대비 최대한의 공간 활용	...	✓현대 도시의 효율성 위한 넓은 간격
내부 프로그램	✓건축물 내부로 빨려 들어간 전통적 도시의 흔적들	...	✓교통인프라 중심의 구역 계획 ✓하나의 건축물에 하나의 프로그램
건축물 외관	✓전통을 쌓아 만들어낸 새로운 외관	...	✓표준화, 일관성, 전체적 조화 ✓내부 기능을 그대로 드러낸 투명성
도시 녹지	✓공원과 도시	...	✓공원 속 도시

출처: 필자 작성.

3. 건축물 외관

맨해튼의 그리드는 도시가 예전의 관습적인 방법으로는 성장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Koolhaas, 1978: 23). 전통적 도시 디자인이 서로 다름을 만들어냈던 방식 대신, 그리드는 건축물 사이에 새로운 경쟁을 만드는 매체가 되었다. 싱어(Singer) 빌딩이 그 사례다(Koolhaas, 1978: 106). 이 건축물은 1899년에는 14층의 블록형이었지만, 1908년에는 블록 위에 타워가 추가로 얹히게 된다. 타워 최상부에는 등대처럼 도시를 비추는 서치라이트가 설치됐는데, 이러한 형태적 특징은 맨해튼의 건축물이 ‘빌딩’에서 ‘마천루’로 바뀌 불리게 된 계기가 되었다(Koolhaas, 1978: 106).

르 코르뷔지에(1925: 81-83)는 도시계획에서 표준화, 세부의 일관성, 그리고 전체적 조화의 운동을 강조했는데, 마천루는 그러한 계획의 형태적 구현이다. 쿨하스에 따르면 르 코르뷔지에에게 건축물의 외관이란 건축물의 기능 그 자체였는데, 이러한 생각은 마천루의 밑바닥과 꼭대기를 구분할 수 없는 가장 순수한 형태로 발현되었다(Koolhaas, 1978: 290-291).

4. 도시 녹지

맨해튼에서 녹지는 ‘공원과 도시’로 존재한다. 맨해튼을 그리드로 계획한 이후 1850년까지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자 녹지를 남겨두기 위한 급박한 계획이 만들어졌고, 이것이 지금의 센트럴파크다(Koolhaas, 1978: 26). 그리드가 공간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각형의 건축물을 유도한다면, 센트럴파크를 구성하는 곡선의 호수와 산책로는 그곳이 원래부터 있었던 거대한 자연처럼 보이도록 사람들의 시각을 유도한다.

빛나는도시 계획에서 녹지는 ‘공원 속 도시’로 존재한다. 르 코르뷔지에에게 마천루는 그 높이에 해당하는 만큼의 도시 면적을 정원과 산책로로 돌려주기 위한 수단이다(Le Corbusier, 1925: 238). 마천루 사이로 확보된 넓은 폭의 공간은 고속차량을 위한 대규모 횡단도로뿐만 아니라 정원과 공원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Le Corbusier, 1925: 179). 위 네 가지 측면의 비교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맨해튼-반맨해튼 스펙트럼은 <그림 4>와 같다.

IV. 평해튼의 조건들

사회주의 도시와 자본주의 도시는 이름만으로는 서로 다른 모습을 떠올리게 하지만, 공간 구조와 그에 따른 생활양식에서 닮아가는 부분이 발생하기도 한다. 자본주의 도시에 대한 비판으로서 사회주의 도시에서 탄생했지만 지금은 세계 어느 도시에서나 볼 수 있는 주상복합아파트가 대표적이다(전영선, 2022, 82-83). 빛나는도시 계획과 맨해튼을 동일한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으면서도 그 안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 또한 이러한 배경에서 설명 가능하다. 이 장에서는 앞서 도출한 분석 틀을 토대로 최근의 평양이 과거와 구분되는 지점을 살펴본다.

1. 김정은 집권 전후 평양 마천루의 계획 단위 변화

약 30년의 시간차를 두고 건설된 광복거리와 려명거리는 계획 단위에서의 변화를 보여주는 예다. 광복거리에 대해 『로동신문』은 이 거리의 중심 도로 폭이 100미터로 “넓고 시원하게 뻗어” 있고, 그 양옆으로 건축물이 형성되었다고 설명한다(송대명, 1986). 구역 건설에서 직선의 넓은 간격 확보가 중요함을 알 수 있다.

2017년 건설된 려명거리는 넓은 간격보다는 공간의 최대 활용이 중시된다. 『조선건축』에 따르면 려명거리의 건축물은 “부지리용률을 최대한 높이고 거리안에 거리를 형성”하는 방식으로 지어졌다(정성철, 2017: 41). 주어진 대지면적을 건축물로 최대한 활용하고자 했으며, 이로서 건축물 사이의 간격이 이전보다 가까워지게 되었다.

2. 김정은 집권 전후 평양 마천루의 구성 프로그램 변화

1980~90년대 건설된 광복거리와 통일거리, 김정일 집권 시기에 건설된 미래과학자거리의 거리 구성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핵심 인프라의 변화를 볼 수 있는 예다. 『로동신문』에서 광복거리는 구역 내 위치한 교통 인프라가 거리를 기능적, 미적 측면에서 돋보이게 해준다는 점이 강조된다.

“광복거리 대도로에 건설된 립체다리는 평양시 중심부와 만경대지구의 여러곳을 연결하는 훌륭한 구조물로서 경쾌한 도로들, 주변건물들과 조화롭게 어울리면서 광복거리의 품치와 건축미를 더욱 돋구어준다(로동신문, 1989).”

〈그림 4〉 미래과학거리를 내려다보는 입주민들



출처: 로동신문.

“거리에는 지하철도망과 발달된 지상교통망이 함께 건설되어 이 거리에서 살게 될 사람들의 편의를 최대한 보장해주게 된다(송대명, 1986).”

통일거리 소개 기사에서도 거리의 장점으로 중심도로와 입체적 도로망이 소개되었다. 1980~90년대 고층 살림집 건설에서 교통인프라가 구역의 핵심 구성요소임을 알 수 있다.

“90년대의 첫 거리로서의 통일거리는 도로시설망도 새 맛이 나게 참신하게 형성되었다. 광복거리의 중심도로와 같은 120미터 폭에 수키로메터의 연장길이를 가진 중심도로… 다양한 형식으로 도로망을 연결해주는 로성립체다리(명홍숙, 1992).”

2015년 건설된 미래과학자거리에서는 입지를 결정하는 핵심 구성요소에 ‘강변’이라는 변수가 등장한다. “풍치수려한 대동강기슭을 따라 웅장화려하게 일떠”섰다는 『로동신문』의 소개는 미래과학자거리가 바꾼 강변의 경관을 강조한다(리철옥, 2015). 이에 더해, 〈그림 4〉에서 미래과학자거리의 입주민들은 고층에서 야경을 내려다본다. 강변이란 입지는 마천루가 만들어낸 새로운 경관뿐만 아니라 그곳에 입주한 사람들이 보게 될 전망을 건축물의 가치에 포함시키고 있다(김치곤, 2015).

북한에서 영화관은 체제를 선전하며 도시의 발전상을 보여주는 상징물이다. 김수현은 해방 후 북한이 발행한 사진엽서들에 새로 건설된 거리의 건축물과 같은 북한이 홍보하고

싶은 모습이 담겨 있음을 제시하는데, 그 중 1955년 스탈린 거리에 건설된 대동문영화관도 포함된다(김수현, 2011: 180). 인민문화궁전, 락원영화관, 선교영화관, 동대원영화관, 락랑영화관, 통일거리 영화관 등이 평양의 영화관으로, 이들은 모두 독립된 건축물이다.

상징적 의미의 프로그램이 기념비적 건축물로서 하나의 형상을 갖췄던 반면, 김정은 집권 시기에서는 관념의 전환이 일어난다. 미래과학자거리 김책공업대학 교육자살림집 저층부에 위치한 룰동영화관은 살림집을 편리한 문화생활 공간으로 만들어 주기 위한 프로그램으로서 건축물 내부로 흡수되었다. 이에 더해, 미래과학자거리와 2012년 건설된 창전거리의 다양해진 간판 디자인은 예전보다 다수의 프로그램이 초고층 건축물에 흡수되었고, 이를 적극적으로 드러내고자 함을 보여주는 사례다(그림 5).

〈그림 5〉 려명거리와 미래과학자거리 간판



출처: 조선건축.

3. 김정은 체제 전후 평양 마천루의 외관 변화

통일거리는 “병풍식, 탑식, 묶음식으로 조화를 이루며 ... 웅장화려함을 더욱 부각시켜 주는 덩치 큰 살림집들”을 특징으로 한다(명홍숙, 1992). 통일거리의 건축물이 몇 가지의 유형으로 구성되었고, 건축물의 유형화를 통해 거리 전반의 조화로움을 추구함을 알 수 있다. 다만 여기서의 다양성이 건축물 각각의 다름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조선건축』은 광복거리에 대해, 하나의 기본 구성단위에 한 가지 형태의 살림집만을 배치하는 방식으로 다양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음을 밝힌다(최웅술, 2006: 35). 유형화된 건축물의 형태는 그 평면도만으로도 전체를 파악할 수 있다. 마치 평면도를 바닥에 놓고 Z축을 향해

늘린 것처럼 층마다의 입면이 반복되는 것이 이 시기의 건축물들 전반의 특징이다.

김정은 집권 시기에 건설된 건축물들은 입면의 화려함과 건축물의 각기 다름이 가장 먼저 눈에 띈다는 점에서 이전의 것과 구분된다. 이러한 특징은 2015년 미래과학자거리 건설에서부터 두드러지기 시작한다. 앞서 통일거리가 유형별 건축물이 동시적으로 건설되었던 것과 달리, 미래과학자거리에서는 김책공업대학교육자살림집이 먼저 지어진다. 김책공업대학교육자살림집은 2014년에 완공되어 10월에 교육자들이 입주했다(홍서현, 2014). 하지만 미래과학자거리의 준공식은 1년 뒤인 2015년 11월이다(승철진, 2015). 한 구역의 건설이 동시적으로 진행되기보다는 우선순위에 따라 독립적으로 이뤄지는 한편, 각각의 건축물 또한 서로 구분되는 외관을 갖춘 점이 김정은 집권 시기 건축물의 특징이다. 북한의 과학기술 중시 정책의 형상화를 건축물의 입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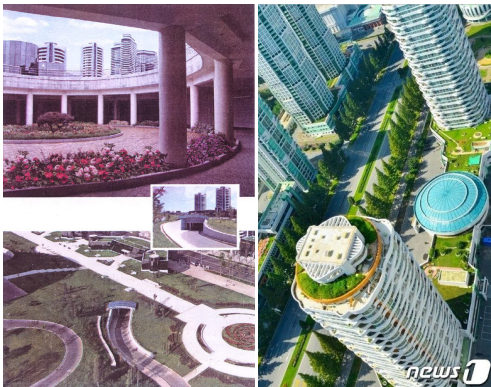
4. 김정은 체제 전후 평양 마천루 주변 도시 녹지 변화

『공원속의 도시 평양』(한번조 외, 2002)은 저서 제목 외에도 북한의 여러 문헌에서 관용적으로 쓰이는 표현이다. 1985년 『조선예술』에 실린 선전화의 제목 〈우리가 사는 거리를 아름다운 공원속의 도시로!〉에서 그 시작을 찾을 수 있다. 평양을 공원 속에 포함시키겠다는 의지의 시작이 1980년대 중반인 것에서 볼 수 있듯, 녹지 조성은 당시 본격화된 대규모 구역 단위 건설 계획의 일환이었다. 『조선건축』은 광복거리에 대해, “매 구획에는 자연기복과 연결되어 풍치구를 이루는 공원과 휴식구들이 꾸려져있고 물놀이장, 분수, 수영장, 놀이터, 소공원들이 조직되어있다. 그리하여 매 구획이 마치 공원속에 들어앉은 듯한 감을 안겨준다”고 설명한다(권영태, 1990: 6). 하나의 구역 단위에서 녹지가 기존의 자연녹지와 연결고리를 이루는 것이 경관 측면의 완성도를 의미함을 알 수 있다.

〈그림 6〉 반맨해튼-맨해튼 스펙트럼에 적용한 김정은 체제 전후 마천루의 변화(1)

반맨해튼	김정은 체제 이전 ... 김정은 체제 10년	맨해튼
1. 평양 마천루의 계획 단위 변화		
		
균일한 높이와 넓은 간격 광복거리(사진=조선건축)	다양한 높이와 가까워진 건축물 간격 려명거리(사진=로동신문/통일뉴스)	
2. 평양 초고층 건축물의 구성 프로그램 변화		
		
교통인프라 중심의 단지 배치 광복거리 초입 순환도로(사진=로동신문)	전망 중심의 단지 배치 미래과학자거리(사진=로동신문)	
		
기능에 따른 수평적 배치 개신영화관(사진=북한자료센터)	마천루로 흡수된 프로그램 미래영화관(사진=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그림 7〉 반맨해튼-맨해튼 스펙트럼에 적용한 김정은 체제 전후 마천루의 변화(2)

반맨해튼	김정은 체제 이전 ... 김정은 체제 10년	맨해튼
3. 평양 초고층 건축물의 외관 변화		
		
		
유형화된 건축물의 합과 통일성 통일거리(사진=로동신문)	우선순위에 따른 독립적 건축물 김책공업대학교육자살림집(사진=로동신문/데일리NK,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4. 평양 초고층 건축물의 도시 녹지 변화		
		
규모와 연결성이 강조된 녹지 통일거리(사진=조선건축)	수직 방향으로 분배된 녹지 창전거리, 려명거리(사진=조선건축, 조선/뉴스1)	

2012년 창전거리에서는 지상에서 지하로 이어지도록 한 전이공간에 녹지가 조성되었다.

“지하도로위에 꾸려진 공지에서보면 더욱더 이채로운 세부들을 많이 느낄수 있다. 파아란 잔디밭속에서 설레이는 나무들, 갖가지 화단들이며 독특하게 설계된 의자들...지하도로위에 이런 공원이 번듯하게 건설된것도 좋다. ...거리에서 식당으로,

식당에서 지하도로예로, 지하도로에서 지상공원으로, 지상공원에서 식당예로...유
기적으로 결합시켜놓으니 얼마나 좋은가(김충성, 2012)."

창전거리가 지하 방향으로 녹지를 확장한다면, 려명거리는 초고층 건축물에서 활발한
옥상·지붕 녹화 사업을 보여준다.

"30층, 바로 여기에 그 특색있는 집이 자리잡고있었다...드넓은 공간에 장기와
윗놀이등 각종 오락은 물론 학습을 할수있게 의자를 비롯한 여러 시설들이 곳곳에
갖추어져 있는 것이 꼬 야외공원에 나선 듯 한 기분이었다...아파트앞에도 공원,
아파트안에도 이런 훌륭한 휴식터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구름우에 자리잡은 이
휴식터...(본사기자, 2013)."

윗글은 점차 줄어드는 녹지를 확보하는 방법으로 그 원인을 제공한 마천루의 수직성을
통해 극복하고자 하는 모습으로 해석된다. 계속되는 신도시 건설, 그리고 한 구역 안에서
점차 밀집되는 건축물은 녹지를 공중과 지하를 향하도록 만든다. 이 새로운 녹지의 특징
은 공공에서 개인의 영역으로 이동한다는 데 있다. 개인의 감상으로 전해질 수밖에 없는
Z축 녹지에서 공원 속 도시 평양의 급진적 변화를 읽어낼 수 있다.

V. 평해트니즘의 미래

김정은 체제의 마천루는 그 이전 체제와 마찬가지로 높은 층으로 이뤄진 생활양식을
통해 주민의 삶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국가 차원의 건설사업 기조를 유지한다. 반맨해튼
과 맨해튼 사이에서 살펴본 최근의 평양은 점차 계획 단위, 내부 프로그램, 건축물 외관,
도시 녹지 차원에서 맨해튼을 향하는 양상을 발견할 수 있다. 한 구역에 있는 건축물의
다양한 높이와 가까워진 건축물의 간격, '교통'에서 '전망'으로 옮겨간 거리의 핵심 인프라,
독립적인 건축물에서 점차 마천루로 흡수된 프로그램, 통일성과 조화를 추구하는 동
시적 건축에서 우선순위에 따른 각기 다른 외관의 건축, 그리고 수평에서 점차 수직 방
향으로 분배 방향을 달리하는 녹지, 이들은 평양이 '평해튼'이라 불리는 충분조건을 마련했다.

만약 평양이 마천루로 이뤄진 도시의 밀집과 고도화를 추구한다면, 앞서 충분조건에 따라
그 모델인 맨해튼의 발전 방향과 궤를 함께할 것이라 가정해볼 수 있다. 평양은 마천루를

통한 도시 이상향을 앞으로도 진행할 수 있을까? 이를 계속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레인 노에(Rain Noe, 2021)는 뉴욕의 마천루가 오늘날의 모습을 갖추게 된 데에는 그곳에 거주하는 이들의 삶을 위해 건축물에 가해졌던 규제가 지배적으로 작용했음을 강조한다. 1916년 뉴욕의 조닝 결의안(Zoning Resolution)은 당시 한정된 그리드 내에서 가능한 한 최대 크기의 건축물을 만들면서 발생한 그림자 문제를 제재하기 위한 것이었다. 건축물의 높이는 마주한 도로 폭이 결정하며, 더 높은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는 건축물의 상부를 그만큼 더 축소해야 하는 것이 그 내용이다. 맨해튼에서 볼 수 있는 마천루 꼭대기로 갈수록 좁아지는 형태는 이러한 규제에서 유래한다.

1961년에는 여러 방면의 오픈스페이스의 마련을 조건으로 더욱 거대한 매스의 건축이 가능하도록 용적률을 조정하는 새로운 건축규제안이 통과한다. 도시에서 볼 수 있는 건축물 사이사이, 개방된 저층부, 지하, 옥상 등을 활용한 녹지를 포함하는 건축물 형태는 이러한 규제와 무관하지 않다. 우리나라에도 건축법 내 도로사선제한, 일조권 관련 법규에서 유사한 내용을 찾을 수 있다. 어떤 도시든 마천루가 있다면 그 형태는 단계적 또는 급진적 발전상을 가지며, 이는 그 도시의 상황과 긴밀한 관계에 놓여 있다.

노에(2021)가 진단한 그다음 단계의 건축물은 뒤집힌 형태다. 아래는 좁게, 상부는 그보다 커지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술과 자본을 필요로 한다. 위치에너지 측정 이론에서 높은 부분의 부피가 클수록 에너지값이 커지는 것 또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유현준, 2018). 높은 곳에 매스를 올리는 것은 어려운 기술이기에, 그만큼 과시의 권력으로 치환된다.

앞서 살펴본 김정은 체제의 마천루는 높이, 형태의 다양성, 그리고 녹지의 분배 측면에서 그 전의 평양과 다르다. 이는 평양의 마천루가 그것이 위치한 도시의 상황과 동떨어지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그렇다면 평양의 마천루는 기술력의 발전을 토대로 한 지금 이상의 권력을 보여줄 수 있을까?

류경호텔을 덮은 조명은 마천루를 통한 권력의 전시가 일어나고 있음을 증명한다. 김정일이 짓기 시작한 류경호텔은 아직도 북한에서 가장 높다. 상층부로 갈수록 정직하게 좁아지는, 여전히 공실인 피라미드에서는 그 이상의 기술과 발전상을 발견하기 어렵다. 대신 마천루의 개수만큼 밝힌 화려한 조명으로 이러한 어둠을 덮을 뿐이다.

평양의 마천루로 본 김정은 체제의 권력은 계승 받은 만큼의 힘에서 그 이상의 확산을 꾀하고 있지만, 그 방향과 속도에서 상당히 정체되어 있다. 김정은 체제의 빛나는 마천루 도시는 이러한 정체를 감추는 시각적 전략이다.

참고문헌

- 구동회(2015) “마천루의 의미와 상징성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지리학회지』 21(4), pp.691-703.
- 권영태(1990) “우리 식 거리의 또하나의 훌륭한 본보기: 광복거리의 건축형성상 몇가지 특징에 대하여,” 『조선건축』 1990(4), pp.2-6.
- 김규현(2015) “건설현장에 대규모로 동원되는 북한군대,” 『송대시보』 9월 7일.
(<http://www.ssu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709>)
- 김수현(2011) 『제국의 억압과 저항의 사회사: 사진과 엽서로 본 근대 풍경』, 서울: 민속원.
- 김원갑(2001) “렘 콜하스 작품에서의 사회적 응축기의 의미,” 『광기와 밀집문화의 건축: 밀집문화의 건축』, pp.9-67.
- 김충성(2012) “립체적으로 결합된 지상, 지하공간,” 『로동신문』 6월 28일, 3면.
- 김치곤(2015) “붉바른 창가에 어린 공민적자각,” 『로동신문』 11월 20일, 5면.
- 리철옥(2015) “세계와 겨루는 우리의 건축예술,” 『로동신문』 12월 14일, 5면.
- 명홍숙(1992) “당의 구상따라 웅장하게 솟아난 통일거리,” 『로동신문』 2월 1일, 3면.
- 박은경(2021) “‘살짜기’ 김정은의 살림집 선물 정치,” 『경향신문』 9월 19일.
(<https://www.khan.co.kr/politics/north-korea/article/202109190916001>)
- 본사기자(1989) “로동당시대의 대기념비적 창조물로 일떠선 광복거리,” 『로동신문』 5월 3일, 4면.
- 본사기자(2009) “선군시대의 본보기로 일떠선 만수대거리의 만점짜리 살림집들,” 『로동신문』 10월 22일, 4면.
- 본사기자(2013) “류다른 휴식터,” 『로동신문』 10월 19일, 4면.
- 본사정치정보도반(2022) “우리식 사회주의문명부흥의 새 전기를 펼친 인민사랑의 기념비 송화거리 준공식 성대히 진행,” 『로동신문』 4월 12일, 1면.
- 송대명(1986) “광복거리가 새로 일떠선다,” 『로동신문』 4월 1일, 1면.
- 승철진(2015) “새집들이경사로 흥성이는 미래과학자거리를 찾아서,” 『로동신문』 11월 9일, 5면.

- 연합뉴스(2021) “북한 ”김정은 10년간 건축분야 혁명…살림집을 첫 자리에,” 『연합뉴스』 2월 8일.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202087808Y>)
- 유현준(2018)『어디서 살 것인가 : 우리가 살고 싶은 곳의 기준을 바꾼다』, 서울: 을유문화사.
- 정성철(2017) “러명거리건축형성의 몇가지 특징,” 『조선건축』2017(5), p.41.
- 전영선(2022) 『북한아파트의 정치문화사 : 평양건설과 김정은의 아파트 정치』, 서울: 경진출판.
- 최웅술(2006) “건축적다양성보장문제의 독창적인 해결,” 『조선건축』2006(4), pp.33-37.
- 한번조 외(2002) 『공원속의 도시 평양』, 평양: 조선화보사.
- 홍서현(2014) “우리 교육자들이 안겨사는 품,” 『로동신문』 10월 23일, 3면.
- Knutsen, C. H., Gjerløw, H.(2017) “Autocrats and Skyscrapers: Modern White Elephants in Dictatorships,” *SSRN Electronic Journal*, April 2017, pp.1-37.
- Koolhaas, R.(1978) *Delirious New York: a retroactive manifesto for Manhattan*, New York: Monacelli Press, 김원갑 역(2001) 『광기와 밀집문화의 건축: 광기의 뉴욕』, 서울: 세진사.
- Le Corbusier(1925) *Urbanisme*, G. Paris: Crès & Cie, 정성현 역(2007) 『도시계획』, 서울: 동녘.
- Noe, R.(2021) “Shape of New Luxury Condo Building is a Perfect Metaphor for Our Society,” *Core77*, September 21. (<https://www.core77.com/posts/110081/Shape-of-New-Luxury-Condo-Building-is-a-Perfect-Metaphor-for-Our-Society>)
- Peet, G.(2011) “The Origin of the Skyscraper,” *CTBUH Journal*, 2011(1), pp.18-23.
- Skyscraper Page (<https://skyscraperpage.com/>)

I. 하나의 창, 문제적 무기와 한반도

군비경쟁과 무기시장의 동학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하나의 사례를 통해 군비경쟁의 현주소, 동북아 군사지리의 실태를 들여다보고자 한다. ‘사드’ 배치를 촉발시킨 요인 중 하나인 ‘S-400’의 실체와 이를 둘러싼 움직임이다. ‘S-400’은 ‘사드’와 함께 동북아 군비경쟁의 현주소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논쟁적인 무기체계이며, 남북한 미사일 경쟁, 그리고 북한의 핵·미사일과도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본 글에서는 ‘S-400’ 대공 미사일 요격체계를 둘러싼 동북아 국가들의 움직임이 사드 배치, 그리고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살펴본다.

1. S-400, 현존 세계 최고의 지대지 대공 미사일 요격체계

러시아가 개발한 ‘S-400’(Triumph: 트리움프, 나토 제식명 SA-X-21)은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 기술 수준에 있어 세계 최고의 지상기반 대공 미사일 요격체계(GBI)로 평가받고 있다. 최근 스웨덴의 한 유력 일간지는 ‘세계를 떨게 하는 러시아 10대 무기’ 중 하나로 S-400을 선정하며 국제 전력 균형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무기체계로 꼽은 바 있다. 러시아 방산업체 알마즈 안테이(Almaz-Antey)가 설계·제작한 S-400은 1993년 개발에 착수해 2007년에 실전에 배치되었고 처음 공개된 것은 2009년 5월 대독전쟁 승리 축하 기념행사로 모스크바 붉은 광장에서 거행된 대규모 군사퍼레이드에서였다.⁷⁹⁾ 현재 러시아는 자국 영토에만 S-400 4개 연대를 배치하고 있는데, 2개는 모스크바(2007년, 2011년 배치), 하나는 남북 군관구(2012년), 하나는 극동지역 북한 접경지역(2012년)에 배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⁸⁰⁾

79) ‘러시아, 최신행 S400 지대공 미사일 첫 공개’, 『뉴시스』(2009. 5. 10)

S-400은 중·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저고도로 비행하는 크루즈미사일, 전투기 및 전폭기 등을 가리지 않고 모두 요격할 수 있다. 최대 사거리 400km, 요격고도 30~185km, 속도 마하 14로 대출력 레이더를 이용해 최대 300개의 표적을 포착할 수 있으며, 한꺼번에 100개의 표적을 추적할 수 있고 동시에 24개의 표적을 동시에 공격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춘 것으로 알려져 있다. 50개 표적을 추적하고 5개의 목표와 동시 교전할 수 있는 미군 PAC-3(요격고도 15km)에 비해 월등할 뿐만 아니라 사드 보다 사거리 및 요격고도 범위가 넓다. 또한 S-400은 스텔스 탐지능력이 뛰어나 미군 B-2, F-117 폭격기는 물론 5세대기인 F-35 스텔스기 등 미군 전투기를 격추할 수 있는 ‘게임 체인저(game changer)’로 평가받기도 한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미국의 토마호크 크루즈미사일(시속 885km)을 손쉽게 탐지해 요격할 수 있다는 점이다. 미국으로서는 이를 대체할 차세대 초음속 크루즈미사일 개발이 절실한 상황이다.⁸¹⁾

러시아는 한 발 더 나아가 최대 사거리 600km, 최고 요격고도 200km, 마하 20 속도의 능력으로 종말단계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및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을 10발까지 동시 요격할 수 있는 최첨단 S-500 ‘트리움파터(triumfator) 고고도 미사일을 중심으로 종합방공망 구축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S-500 미사일은 실전에 이미 배치된 중·단거리 대공 미사일 요격체계인 S-300과 S-400 후속타로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MD)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해 온 비장의 5세대 대공 미사일 요격체계다. 요격고도로만 본다면, 미국의 ‘사드’(최대 사거리 200km, 요격고도 40~150km, 속도 마하 8.2)와 ‘SM-3 Block 1A’(최대 사거리 70km, 요격고도 500km) 등의 능력과 중첩된다고 볼 수 있다. 러시아는 S-500을 기존의 S-400 및 S-300과 함께 묶어 다층 요격망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⁸²⁾

80) ‘러, 북 접경지 최신 미사일 방어 시스템 설치’, 『서울신문』(2009. 8. 27)

81) 미국은 현재 중국과 러시아의 S-400에 대응해 마하 3.2의 속도와 스텔스 기능까지 갖춘 차세대 크루즈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82) S-500은 개발 단계를 아직 확인할 수 없어 그 능력을 정확히 가늠하긴 힘든 상황이다. 다만 알려진 바로 S-500은 정찰위성 탐지를 피할 수 있는 특수제작 컨테이너에 담겨져 있으며 가변주파수를 사용해 전자전 공격도 차단할 수 있다. S-500은 2012년 초 기술적 설계 국면이 끝났고, 이르면 2017년 초 실전 배치될 것이란 전망도 있지만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 중국의 'S-400' 구입과 주한미군 사드 배치 논의의 본격화

중국은 러시아의 S-400 도입을 숙원사업으로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러시아는 S-400이 전략 균형에 영향을 미치는 무기체계란 점에서 해외 판매에 신중해 왔다. 그러다 2014년 5월 상하이에서 개최된 '아시아 교류 및 신뢰구축 회의'(CICA)에서 시진핑-푸틴 정상회담을 계기로 S-400 판매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당시 러시아는 크림반도 사태로 미국과 유럽의 경제제재에 직면해 있었고, 중국은 향후 30년간 4,000억 달러에 이르는 러시아 가스 수입 계약을 체결하면서 S-400 구입의 돌파구를 열었다. S-400은 2017년 3월 중국으로 인도가 시작되었으며 2019년 마무리될 예정이다.⁸³⁾ 이로써 중국은 러시아의 S-400 첫 대외판매 국가가 되었다. 이 계기로 러시아와 중국은 2016년 처음으로 미사일 방어 합동훈련도 진행했고 이후 지속할 예정이다. 중국은 이미 자체적으로 개발한 홍치(HQ)-9와 러시아로부터 도입한 Tor-M1 저·중고도 대공미사일, S-300으로 일정하게 MD망을 구축해 놓은 상태다. 기존에 러시아로부터 도입한 S-300의 성능은 미국의 최신형 PAC-3 수준이며 중국의 MD 수준은 미국의 PAC-3 수준에 가까웠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상황에서 중국의 S-400 도입은 미국의 입장에서는 중국과 미·일 동맹 사이의 전략적 균형을 일정 부분 역전시킬 수 있는 '사건'으로 볼 수 있다. 그것을 증명하듯 중·러 사이의 S-400 판매 합의 한 달 뒤인 2014년 6월 3일에 당시 주한미군사령관인 커티스 스캐퍼로티(Curtis Scaparrotti)가 갑작스럽게 사드 배치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주한미군의 사드배치 논의는 바로 중국의 S-400 대공 미사일 요격체계 구입이 결정적이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미국 국방부가 매년 의회에 제출하는 '중국 군사력 보고서' 2016년판은 중국의 S-400 체계가 중거리 탄도미사일(MRBM) 요격에 적합하다고 지적하고 있다.⁸⁴⁾ 이는 한반도는 물론, 대만해협, 남중국해 해역에 진입하는 미군, 일본, 대만의 항공기나 함정이 중국의 대공·방공 사정권에 들게 됨을 의미한다.

83) "러시아, 중국에 첨단 방공미사일 S-400 공급 개시"(연합뉴스, 2017. 3. 21)

84) Office of the Secretary of Defense, Annual Report to Congress: Military and Security Developments Involving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016, pp. 61.

3. 중국의 S-400 배치, 동북아 전략 균형에 미치는 영향

앞서 언급했듯이 S-400은 중·단거리 탄도미사일 및 크루즈미사일, 전투기, 폭격기를 가리지 않고 모두 요격이 가능하다. 바로 이 부분이 전략적 환경 변화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중국이 S-400을 동북 3성, 산둥성, 대만해협, 하이난다오 등지에 실전 배치하게 되면, 한반도, 대만, 남중국해 등에서 분쟁이 발생할 때, 미군의 군사 활동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 센카쿠 무력 충돌시 일본 항공자위대와 미군 활동의 제약, 주한미군 기지에서 발진하는 미군 전투기의 활동도 견제할 수 있다. 또한 중국이 북한 접경지역과 산둥반도에 S-400을 배치하면 북한 전역이 작전 권역에 들어오게 된다. 중국은 한반도 유사시 미군과 한국군의 북한에 대한 공습 억제수단으로 S-400을 활용할 수 있다. 결정적으로 S-400은 한반도 유사시 서해로 진입하려는 미 항공모함 전단을 위협할 수 있다. 중국이 S-400을 도입한 가장 큰 이유가 여기에 있다.

중국은 미군 전력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반접근/지역거부’(A2/AD)전략⁸⁵⁾ 차원에서 미국 항공모함 킬러로 유명한 동평(DF)-21D 탄도미사일과 신형 대함순항미사일(ASCM), 핵추진 잠수함 등을 개발 배치해 두고 있다. ‘동평(DF)-21D’ 미사일은 미국 항모뿐만 아니라 일본 열도와 오키나와 등 전체를 사정거리에 두고 있고, 잠수함이나 구축함에서 발사하는 중국의 동하이(DH)-10 크루즈미사일도 위협적이다. 이에 대응하여 미국이 내세우는 것이 바로 오하이오급 잠수함을 특수 개조한 전략원자력잠수함(SSBN)이다. 크루즈미사일 154발을 각각 장착한 4척의 잠수함이 중국 해군이 지키는 제1도련선(일본-오키나와-타이완-필리핀) 밖에서 중국 미사일 기지를 초토화할 수 있다. 그런데 중국 연안에 S-400을 배치하게 되면 이런 대응이 상당 부분 무력화된다. S-400이 미국의 크루즈미사일(토마호크)을 쉽게 요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S-400 요격체계를 뚫고 미국이 전력을 투사하기 위해서는 잠수함을 한국 영해인 서해로 진입시켜 베이징을 타격하거나 주한미군 기지에서 베이징으로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거리가 너무 짧아서 S-400이 막기 힘들다는 것이다. 사실 중국이 북한의 위협을 명분으로 미군의 항모나 잠수함이 한국의 서해(중국 황해)로 들어오는 것에 극도로 민감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결국 유사시 미군이 서해로 파고들면 중국은 주한미군 기지를 공격할 수밖에 없게 된다. 지린성 창바이산(백두산) 첩첩산중에 배치돼 있는

85) 반접근/지역거부(Anti-Assess/Area Denial) 전략은 대만이나 센카쿠(다오위다오) 분쟁 등 유사시 미군 전력의 접근을 차단하고(반접근) 미군의 효과적인 기동작전을 막겠다(지역거부)는 전략이다.

미사일 기지에서 DF-21D(사거리 1,800~3,000km, 속도 마하 10)⁸⁶⁾로 주한미군 기지를 타격할 수 있다.⁸⁷⁾ 그런데 이때 방패로 등장하는 것이 주한미군의 ‘사드’인 것이다. 중국이 공격시, 주한미군 기지를 보호하는 데 사드가 필요한 것이다.

주한미군이 사드를 보유하면 중국은 주한미군 기지를 견제할 수단을 상실하게 된다. 중국이 사드 반대의 이유로 전략적 균형의 훼손 등을 강조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한미군 사드 배치에 대해 반발하고 있는 중국이 S-400을 도입하면서 한국을 비롯해 주변국들에 전혀 양해를 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사드만 문제 삼는 것이 이율배반적인 이유이다. 결국 사드를 배치하면 중국은 주한미군 기지에 대한 견제 수단을 새로 확보하기 위해 대안을 찾을 수밖에 없다. 결국 미·중 간 군비경쟁을 넘어 동북아 군비경쟁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게 된다. 러시아는 이 틈을 타 S-400, S-500을 비롯한 첨단 전략무기의 대외판매를 통해 미국을 견제하며 러시아의 전략적 위상과 과거 군사강국의 영광을 찾고자 할 것이다.

4. 분쟁 속 ‘S-400’, 전 세계 미사일 방어 경쟁과 냉전

현재 S-400은 전 세계 분쟁과 갈등이 첨예한 곳에 어김없이 등장하고 있다. 크림반도(2016년 배치), 시리아(2015년 배치), 이란(2016년 배치), 인도(구매 협상 중), 터키(구매 협상 중), 말레이시아(구매 타진), 알제리(구매 타진) 등 이미 배치되었거나 도입 추진 중에 있는 곳은 분쟁 중이거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지역이다. 이 과정에서 ‘사드’가 대항 체계로 등장하면서 ‘S-400’과 ‘사드’는 미사일 방어 경쟁의 화두로 회자되고 있다. 사우디, 아랍에미리트(UAE), 카타르, 바레인, 쿠웨이트 등 기존에 미국 패트리엇을 보유하고 있던 국가들에서 사드 도입 및 발주, PAC-3 보강 요청이 들어오고 있다. 한편 발트해 인근 나토(NATO)와 러시아 군의 대치 상황은 냉전시대를 방불케 할 정도이다. 그 시작은 미국의 유럽 MD 구축이었다. 유럽 MD 문제는 2014년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지기

86) 중국은 지린성 창바이산(백두산) 일대에 중거리 탄도미사일 동풍(東風·DF)-21D를 실전 배치해 놓았다. DF-21D는 미국 항공모함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이 2013년 실전 배치한 세계 최초의 대함 탄도미사일(ASBM)이다. 200~500kt의 핵탄두 장착이 가능하며, 해상뿐만 아니라 지상목표 공격도 가능하다. 비행 마지막 단계에서 궤도를 바꿔 목표물을 정확히 공격할 수 있어 요격이 매우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백두산 배치로 일본 열도 전역은 물론 오키나와 등에 있는 주일 미군기지와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전략 거점인 괌까지 타격 가능하다.

87) 중국 로켓군은 2016년 1월 창설 직후 2월 3일 춘제를 앞두고 동북지역에서 DF-21D 등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훈련을 실시한 바 있다.

전까지 미국과 러시아 관계를 악화시킨 최대 이슈였다.⁸⁸⁾ 결국 큰 그림에서 보면, 주한미군 사드 배치 논쟁은 유럽, 중동, 그리고 동아시아로의 미사일 방어 군비경쟁 확산과 연동돼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미사일 방어 경쟁이 가열되면서 미국과 러시아는 무기체계 수출에서 독특한 재미를 보고 있다. 국지적 분쟁과 긴장들은 탈냉전 이후 무기수요의 감소를 만회하는 기회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세계 무기시장이 미사일 방어 경쟁 속에서 생기를 찾으며 신냉전의 회귀에 일조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5. 'S-400'을 활용한 남북한의 미사일 고도화와 북핵 문제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북극성-2형'은 모두 러시아의 S-300 및 S-400의 지대공 미사일을 응용한 것으로 평가된다. 2020년 4월 15일 열병식에 등장한 KN-06(번개 5호) 역시 러시아 S-300 및 중국 홍치(HQ)-9와 유사한 콜드론칭(cold launching)⁸⁹⁾ 방식의 대공 미사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S-400 기술을 활용한 것은 북한만이 아니다. 한국 역시 경협차관 대가로 러시아 방산업체 '알마즈-안테이'로부터 들여온 S-400 기술을 응용해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천궁'(M-SAM, 개발 프로젝트명 '철매2')을 개발·완료하여 2016년부터 양산하고 있다. 또한 한국 국방과학연구소가 주도해 개발하고 있는 SLBM과 방공 시스템(L-SAM)의 핵심 테크놀로지 역시 S-400의 기술이 채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⁹⁰⁾ 아이러니하게 북한과 한국 모두 러시아의 S-300 및 S-400의 '콜드론칭'과 핵심 기술을 기반으로 미사일 고도화를 추진하며 상대를 겨누고 있는 것이다.

'S-400'과 '사드'로 대변되는 동북아 군비경쟁 구도는 김정은 정권에게 하나의 기회라고 할 수 있다. 국력 열세와 고립을 지정학적 냉전 복원으로 만회하려는 전략의 차원에서 본다면, 동북아의 갈등과 긴장은 정권 유지에 긍정적이다. 사실 북한은 지금까지 미국과 중국의 갈등을 부추기는 결정적인 타이밍과 소재를 제공해 왔다. 가령 연평도 포격은 미국 항모 전단의 서해 진입과 중국의 군사적 수치심을 자극했고, 교묘한 타이밍에 미사일

88) 미국은 루마니아와 폴란드 MD 기지 외에도 스페인에 배치된 미군 구축함의 요격미사일, 덴마크와 네덜란드 함정에 설치된 레이더 시스템, 터키에 설치될 조기경보시스템, 독일의 지휘통제센터 등을 통합된 유럽 MD 시스템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89) 콜드론칭은 화약이 아닌 가스압 방식으로 수면 위에서 미사일을 점화시키는 SLBM의 핵심적인 기술로 북한이 실험하고 있는 SLBM이나 이것을 지상형으로 개량한 북극성-2형은 러시아의 S-400의 기술을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90) "한국형 SLBM 이미 개발 중...4년 뒤 실전배치"(중앙일보, 2016. 5. 27)

발사와 핵실험을 감행하여 사드 배치나 안보 갈등을 부추기거나 미국의 ‘압박’ 명분과 중국의 ‘난처함’을 자극해 왔다. 사실 동북아 국가들은 ‘핵 이빨을 가진 굼주린 쥐’로 북한을 간주하며 자신들에게 유리한 카드로 활용해 온 측면이 있다. 북한은 기꺼이 그 카드 역할을 자임하여 갈등에 기생하며 핵·미사일을 통한 정권 유지전략을 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이 동북아를 한층 더 고도로 무장시키게 하는 끝없는 연쇄반응을 불러일으킨다는 점이다. ‘S-400’과 ‘사드’는 그런 구도 안에 있는 것이다. 결국 북핵 문제 해결의 출발점은 갈등을 활용할 수 없도록 하는 ‘협력’의 창출에 있다고 볼 수 있다.

II. 적대적 무기체계와 북한의 당군산복합체

1990년대 초 이후 북한의 ‘핵문제’는 ‘위기’의 이름으로 주기적으로 호명돼 왔다. 한반도 위기와 정세 불안정성을 북한의 ‘핵문제’와 비정상적 군사주의로 환원하여 보는 방식은 북한의 핵개발 의욕이 제기된 이후 북한 ‘문제화’의 핵심적 인식 틀이 돼왔다. 한편 ‘핵무기’를 통해 자신의 체제 생존과 존재를 대변하고자 부단히 노력해 온 북한의 전략이 나름대로 성공적으로 ‘문제화’된 결과라고도 볼 수 있다. 이처럼 한반도 분단은 북한 ‘핵무기’가 갖는 불안정성과 군사주의의 비정상성을 통해 보는 인식 틀이 형성돼 있다.

그러나 분단 역사를 상호 적대적 ‘무기 시스템’의 구축이라는 차원에서 인식하면 북한의 ‘핵무기’는 북한의 비정상성만으로 해석되기 힘들다. 상호 적대의 기술과 과학, 상식과 표준, 제도와 조직, 관습과 정서, 동맹과 외교를 만들어 온 과정을 균형 있게 보는 것이다. 상호 적대적 무기시스템의 창출, 사회-기술적 시스템이다. ‘무기’는 살상이나 안보를 위한 사물 또는 도구 이상의 행위성(agency)을 갖는다. 우선 생산(도입), 운영·관리, 사용, 유지를 위한 기술시스템이다. 둘째, 국방정책 및 정치과정, 안보·국방 관련 여론 형성 등 정치적인 것과 결합이다. 셋째, 군인, 과학자, 엔지니어, 국회위원, 외교관, 로비스트, 에이전시 등과 같은 사회적 네트워크의 작동이다. 넷째, 에너지, 금융 및 실물경제, 무역, 정보·통신, 기술협력 등 경제적인 것과도 연동된다. 마지막으로 무기는 협정문, 합의서, 구매계약서나 군사훈련을 통해 동맹과 외교를 매개하고 분쟁을 야기하기도 한다. 무기는 거대한 사회-기술적 시스템이다.

한반도 위기와 정세 불안정성은 상호 적대적 ‘무기’의 창출이라는 보다 견고한 사회-기술적 시스템을 통해 수행(performing)되는 것이다. 북한의 핵무기 고도화 역시 ‘당·군·산복합체’의 형성과 구조화라는 차원에서 볼 필요가 있다. 당·군·산복합체는 핵무기 개

발에 적합한 자원동원 및 배분, 연구·개발, 지휘·감독체계, 실험 및 실전화 등 일련의 과정이 당 군수공업부, 전략군, 특수 병종, 군수산업이 연계된 폐쇄적인 시스템이다. 안보(국가안보, 정권안보, 리더십안보), 경제(자원동원·배분), 그리고 무기개발이 결합된 ‘수령체제’의 핵심 근간이다.

원래 ‘군산복합체’는 냉전기 미국, 소련, 중국, 프랑스, 영국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나타났다. 미국의 경우, 군은 기업에게 군사기술을 이전해 군수산업을 육성하고 기업은 군에게 무기를, 정부에게는 정치자금과 세금을 제공하며, 정부는 해외에서 기업을 보호하는 역할을 통해 상호 유착 관계를 형성했다. 막대한 정부 재원과 보호 속에서 군산복합체는 시장 논리와는 별개로 정부와의 독점적 거래를 통해 공통처럼 비대하다. 미국 남부에 주로 위치한 군산복합체와 군부대는 ‘건벨트(Gun belt)’를 형성하고 있다. 군산복합체는 무기 수출을 통해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를 대체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군산복합체 이해에 따라 국방정책과 군사전략이 좌지우지된다. 군산복합체는 미국의 전세계 미군기지 네트워크와 함께 한다. 주한미군도 예외가 아니다.

2000년대 들어 당경제(제2경제), 핵·미사일 개발(제2자연과학원), 미사일 실전화(전략군)가 결합되면서 당·군·산복합체가 전략무기 개발의 핵심으로 자리 잡았다. 최근 관련 인물들이 당과 군 요직으로의 약진이 두드러진다. 그러나 이런 시스템과 달리 북한은 사정은 어렵다. 재래식 무기 대부분 외화에 의존한다. 가령 미사일의 경우 관성유도장치가 필요한데 100% 수입이다. 이밖에 연료, 포탄, 탄알(로켓탄)은 고체연료를 사용하는데 5~10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해야 한다. 해군은 말할 것도 없고 탐지기를 비롯해 교체해야 하는데 모든 것이 비용이고 외화 없이는 불가능하다. 남북한 상호 윈-윈 할 수 있는 것은 당장 ‘안보’에서 찾을 필요가 있다. 적대하는 제도와 무기를 조금씩 협력적으로 제거가는 협력안보다.

III. 무기와 (탈)냉전, 그리고 분단

‘냉전’과 ‘탈냉전’이란 말은 시대를 구분하고 인식하는 하나의 상식으로 군림해 왔다. 그러나 여전히 세계는 각종 분쟁과 살상의 비참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냉전 지형의 유산 속에서 자유롭지 못한 실정이다. 그리고 한반도 역시 군사적 대결의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던져 보아야 할 것 같다. 과연 누구의 냉전이었고 누구의 탈냉전이었는가? 오히려 수많은 냉전들과 분단들이 여전히 수행되고 있고, 우리

는 미국과 소련이라는 그들만의 ‘탈냉전’을 통해 세계를 인식해 온 것은 아닌지 되물어 봐야할 것이다. 냉전과 탈냉전의 이분법이 세계를 보는 인식을 어떻게 번역해 내고 있는가를 메타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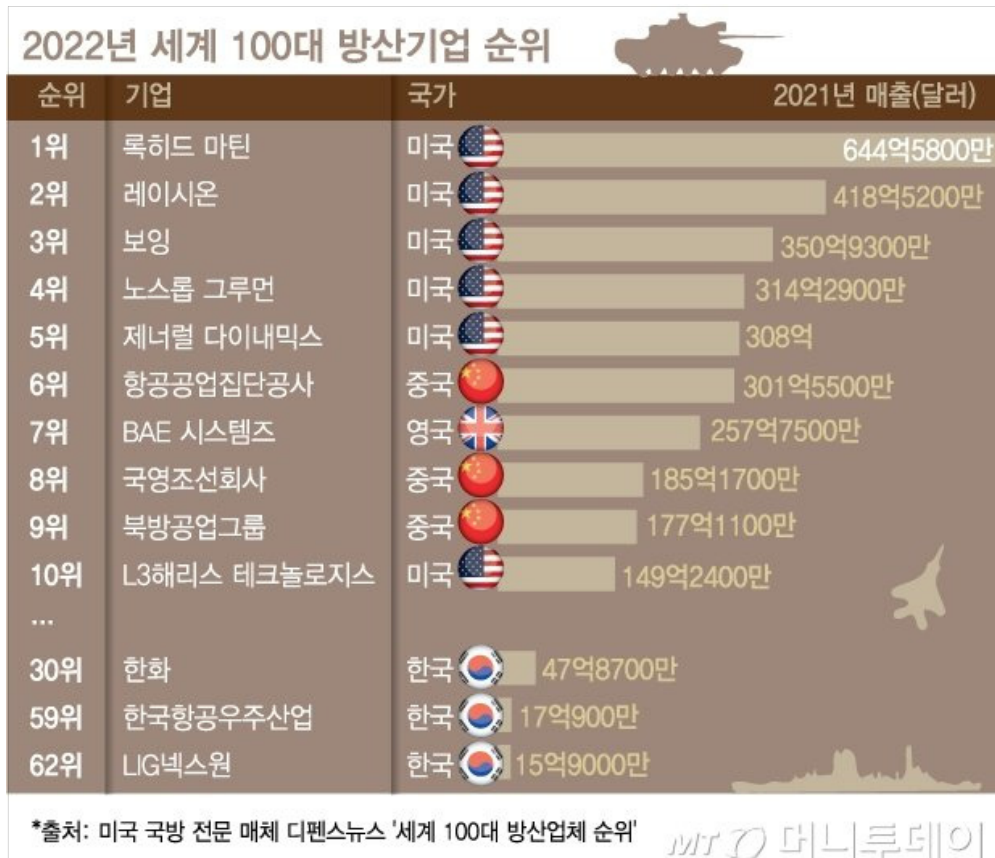
지금까지의 냉전-탈냉전 서사(narrative)와 인식이 갖는 문제점은 탈냉전의 세계와 냉전의 세계가 근본적으로 다르며, 새로운 세계에는 새로운 서술 및 분석 수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전제하고 있다는 데 있다. 대부분의 시각은 세계 2차 대전 전후부터 동유럽 사회주의 붕괴기까지의 냉전 시대 전체를 하나의 완결적인 역사적 시기(era)로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미국과 소련이라는 양대 초강대국간의 외교 관계에만 착목하여 기존 냉전 연구가 사실상 양대 초강대국만의 대외정책 연구에 집착해 왔다는 점이다. 소위 말하는 냉전연구(Cold War Studies)의 주요 해석적 관점으로 이야기되어 온 정통주의, 수정주의, 후기수정주의 역시 이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냉전과 탈냉전의 구분법을 탈피하여 새롭게 세계 인식을 시도하기 위한 단초로 ‘무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냉전은 무기체계의 진영 간 경쟁과 진영 내 규격화를 의미했다. 절대무기인 핵무기를 큰 축으로 양 진영은 거대한 무기의 사회-기술적 시스템의 구축을 통해 냉전의 이념적·정치적 대결을 정당화·확대재생산했고 게임의 규칙을 강요했다. 무기는 이념적·정치적 대결의 수단으로서 뿐만 아니라 대결을 창출하는 강력한 행위성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냉전은 무기라는 행위체, 매개물, 네트워크, 시스템, 문화를 통해 구성되고 수행되는 세계였다. 한편 탈냉전은 양 진영 무기체계라는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것을 의미했고 온갖 종류의 분쟁이 ‘해방’되어 나왔다. 소련이나 유고 슬라비아가 해체되는 과정, 이라크 전쟁,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진영의 무기체계와 네트워크를 통해 봉인돼 있던 갈등이 분출하는 것이었고, 한편으로 이들 분쟁들은 탈냉전 이후 공급과잉 상태에 있던 무기들의 새로운 수요처가 되었다.

세계는 표면적으로 국가 간 외교관계를 통해 표상되지만, 이면의 무기 거래를 둘러싼 수직적 위계와 수평적 네트워크를 통해 구성되기도 한다. 탈냉전 이후에도 이런 냉전시기의 위계와 네트워크는 관성을 갖고 지속되고 있다. 첨단무기의 생산과 수출은 소수의 선진 방산국가들의 전유물로서 세계 무기수급구조는 선진국에 의한 생산과 후진국의 수입이란 형태의 수직적 구조가 정형화되어왔다. 냉전시기에 첨단무기부터 중·저급 수준의 무기까지 구입·보유할 수 있는 무기의 성능에 따른 위계는 곧 진영 내 위계구조와도 직결되었다. 탈냉전 이후에도 세계 무기시장은 강한 독과점 형태를 띠고 있으며 불평등

한 교역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소수 무기 생산 및 수출국이 주도하는 무기시장은 무역수지의 불평등한 구조를 확대재생산하는 역할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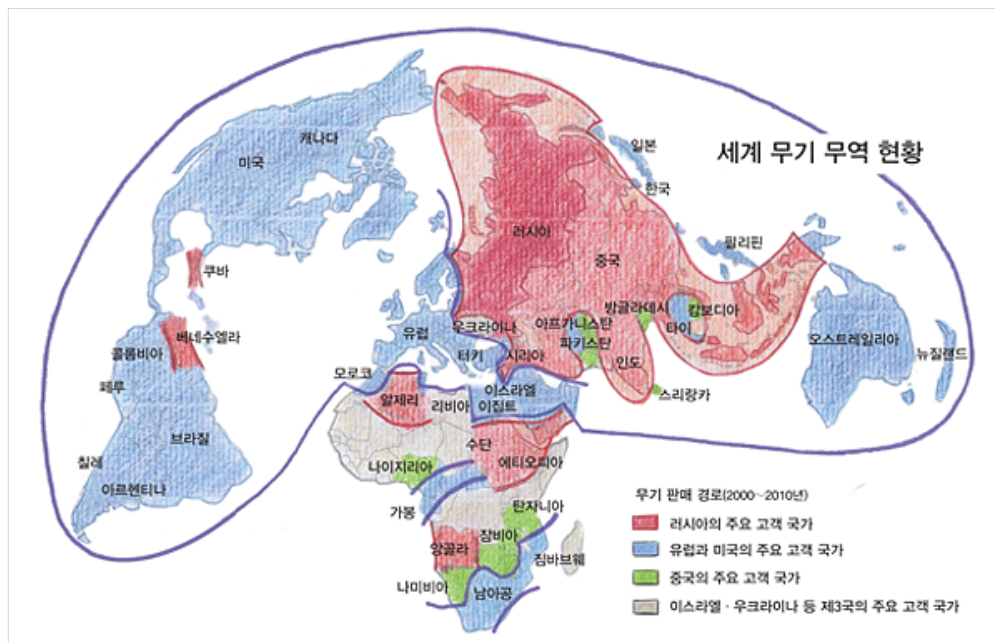
〈그림 1〉 세계 주요 무기 생산업체 판매량(2007)



출처: 머니투데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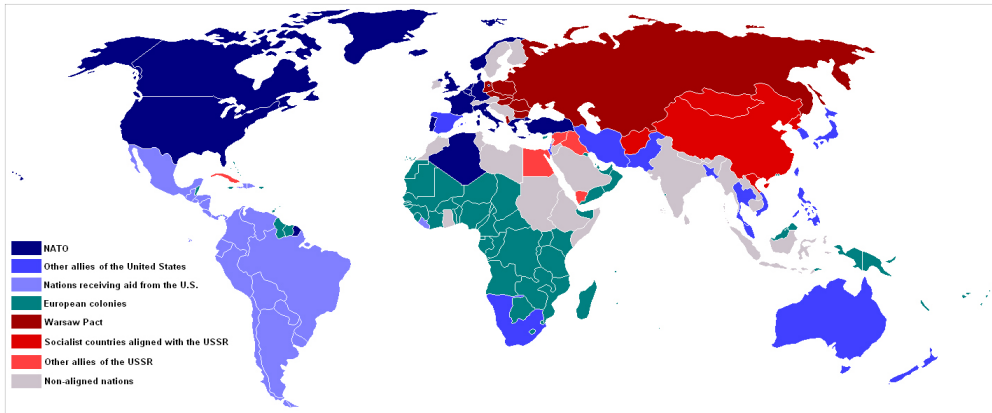
그런 측면에서 무기는 국가 간 금융 및 실물경제, 무역구조, 에너지 및 자원 이동, 정보 유통 등과 밀접하게 연동돼 국제질서를 조형하는 힘을 갖는다. 탈냉전 이후 오히려 다양화되고 격화되고 있는 전면적·국지적 분쟁들은 탈냉전 이후 무기수요의 감소를 만회하는 기회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세계 무기시장은 메커니즘에서 독특한 성격을 갖는다. 그것은 안보 불안, 갈등과 분쟁, 전쟁 등을 통해 시장성을 확보한다는 점이다. 무기는 분쟁에 기생하는 수동적 측면과 분쟁의 형식 및 구도를 창출하는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도 한다. 결국 무기는 (탈)냉전의 성격을 규정하기도 하고 변화된 세계에 맞게 사회-기술적 시스템(socio-technical system)을 조정해 나가는 행위성(agency)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그림 2〉 세계 무기 무역 현황



출처: 「LE MONDE diplomatique」(한국판) 2010.10.10. (제37호)

〈그림 3〉 냉전의 지형도



출처: 위키미디어(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Cold_War_Map_1959.png).

이런 관점에서 무기라는 사회-기술적 시스템을 통해 (탈)냉전 국제질서의 동학을 이해함으로써 그 역학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한반도 분단체제를 새롭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보통 냉전과 탈냉전은 사회주의 진영의 몰락이라는 ‘사건’을 통해 구분된다. 그러나 냉전과 탈냉전의 관계를 무기의 사회-기술적 시스템 차원에서 본다면, 이들의 관계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듯 단절적이거나 구분되는 것으로 보기 힘든 부분이 있다. 세계의 리얼리티(reality)는 보다 물질적이고 기술적이고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차원에서 지속성과 관성을 갖는다. 한반도 분단체제도 이런 지속성과 관성과 깊게 연관돼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무기를 통해 형성되는 물질-에너지의 흐름체계, 사회-기술적 시스템의 차원에서 (탈)냉전과 분단체제의 위상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사실 냉전의 동학(dynamics)은 시차를 두고 서로 모방과 반발로서의 추구된 무기체계, 그리고 이 경쟁에 맞게 각 사회를 조형하며 거대한 무기의 사회-기술적 시스템을 구축해 온 과정이기도 하다. 따라서 무기의 사회-기술적 시스템은 냉전의 지구사(global history) 또는 횡단적 냉전사(transnational Cold War history) 차원에서 볼 필요가 있다. 두 진영 관계, 상호 대립과 모방의 동학, 그리고 그것의 관성과 모멘텀이 (탈)냉전 연구의 시야로 들어올 필요가 있는 것이다. 무기의 소비에트화(Sovietization)와 미국화(Americanization)라는 진영 사이의 역학, 진영 내부의 역학, 그리고 개별 국가의 역사적 특수성 역시도 중요하게 고려해야만 한다.

사실 냉전은 미국과 소련이 자신의 외부 세계를 진영으로 포섭하기 위해 벌인 경쟁의 체계를 뜻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들은 일방적으로 다른 국가들에게 영향을 미쳤다고만 볼 수 없다. 양 진영 내 국가들과 제3세계 국가들은 오히려 이들 두 강대국을 경쟁을 이용하고 그들에게 유리하게 상황과 물질적 지원, 무기체계를 전유하는 전략을 수행하기도 했다. 일방적인 소비에트화나 미국화만 진영 내부에서 존재하였던 것은 아니다.⁹¹⁾ 이처럼 무기의 사회-기술적 시스템은 미·소의 경쟁, 미·소 경쟁을 이용한 동맹국과 제3세계 국가의 전략이 만나는 지점에서 형성돼 왔다. 탈냉전 이후의 세계도 이런 관성과 역학 속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한반도에서 냉전의 지속은 북한의 비정상성이나 분단의 독특한 메커니즘으로 설명되고 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분단 그 자체가 실제 무엇으로 구성되고 움직이는가에 대한 분단 실재들(realities)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분단은 표면적으로 이념과 정치의 반복에 기초하고 있지만, 분단의 지속성은 그에 걸 맞는 사회적이고 물질적인 것, 문화적이고 심리적인 것,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것을 네트워킹(networking) 수행하는 사회-기술적 시스템을 수반하는 것이다. 이들 물질적 기반과 사회-기술적 시스템의 리얼리티를 통해 분단을 새롭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북한 ‘핵문제’를 둘러싼 한반도의 군사·외교적 긴장이 그 어느 때보다 고조돼 왔다. 지금까지 한반도 위기의 원인으로 공통적으로 지목되는 것은 북한의 호전적이고 도발적인 군사주의가 갖는 비정상성이다. 한반도의 위기와 불안정성을 북한의 ‘핵문제’와 비정상적 군사주의로 환원하여 보는 방식은 북한의 핵개발 의혹이 제기된 이후 북한 ‘문제화’의 핵심적 인식 틀이 되어왔다. 한편 ‘핵무기’와 군사주의를 통해 자신의 체제 생존과 존재를 대변하고자 부단히 노력해 온 북한의 전략이 나름대로 성공적으로 ‘문제화’된 결과라고도 볼 수 있다. 이처럼 한반도 분단은 북한 ‘핵무기’가 갖는 불안정성과 군사주의의 비정상성을 통해 보는 인식 틀이 형성돼 있다.

91) Anne E. Gorsuch & Diane Koenker eds., *Turizm: The Russian and East European Tourist under Capitalism and Socialism* (Ithaca, 2006) 참조.

그러나 한반도 위기와 불안정성은 북한의 비정상성이나 군사주의만으로는 설명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 북한의 ‘핵무기’와 군사주의로 귀착되고 문제화되는 일련의 구성과 접힘(folding)의 과정을 이해하고 한반도 위기와 불안정성을 냉전과 ‘분단’의 동학(dynamics)과 교차하여 볼 필요가 있다. 그것은 60여년이 넘는 분단 역사가 무기라는 사회-기술적 네트워크와 시스템의 구축을 통해 상호 적대의 기술과 과학, 상식과 표준, 제도와 조직, 관습과 정서, 동맹과 외교를 만들어 온 과정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따라서 전경으로 도드라지는 북한의 군사주의와 배경에 자리하고 있던 한반도 무기의 사회-기술적 시스템을 교차하여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분단을 행하고(doing) 있는 한반도 무기의 사회-기술적 시스템을 이해하는 것을 통해 분단의 위상을 새롭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IV. 무기의 사회-기술적 시스템

무기체계(weapon system)는 ‘유도무기, 항공기, 함정 등 전장에서 전투력을 발휘하기 위한 무기와 이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장비, 부품, 시설, 소프트웨어 등 제반 요소를 통합한 것’으로 정의되며(「국방전력발전업무 훈령」), ‘자족성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관련 장비, 물자, 서비스, 인력과 투발 및 전개수단을 포함한 하나의 혹은 다수 무기의 복합체’를 의미한다(미국 국방부 「군사용어사전(JP 1-02)」). 따라서 무기체계의 개념은 하나의 무기 또는 유형을 달리하는 다수의 무기와 관련한 개발, 생산, 유지, 관리 등과 보유 무기들의 상호 전략적 연계구조, 균형 등을 의미하는 군사·기술적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무기’(weapon)는 살상이나 안보를 위한 사물 또는 도구 이상의 행위성(agency)을 갖는다. 사실상 무기는 도구 이상의 인간 기관의 연장(extension)이다. 모든 사물이 마찬가지겠지만 무기는 도구 이상으로 누군가의 손에 쥐어 지는 순간 인간의 행위성을 변화시킨다. 그것은 인간 의지 문제 이상의 인간과 비인간(자연, 인공물, 제도 등)이 결합되면서 발생하는 제3의 행위성이라고 할 수 있다. 무기는 그런 측면에서 심리의 연장, 사회의 연장, 정치의 연장이다. 무기체계는 사회와 결합되어 있다는 점에서 자체의 진화적 생명성을 갖고 있다. 무기는 인간에 의해 조정되는 것이 아니라 역으로 무기에 의해 인간이라는 사회가 조직되고 인간의 행위성이 생겨나고 확장된다.

우선 무기는 무기체계 상의 전략적 균형은 물론 구상, 연구, 설계, 개발, 제조, 실험, 생산, 배치, 유지(수리, 정비, 개량), 관리 등 기술적 과정 자체만으로도 복잡한 기술 시스템(technological system)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기술적인 것(the technological)’이다.

둘째, 무기는 국내외의 금융 및 실물경제는 물론 세계경제와도 밀접하게 연동돼 있다. 외환보유고, 무역수지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돼 있으며, 국제 교역수지의 불평등한 구조에서 공식·비공식 무기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 정부 외화예산의 대부분은 국방 관련 분야가 차지하고 있다(한국 정부 외화예산 78.1%). 또한 무기 생산·유지·관리와 관련한 정부 부처와 국내외 기업들의 경제적 네트워크를 광범위하게 형성한다는 점에서 ‘경제적인 것’(the economical)이다.

셋째, 무기는 개발·생산·유지에 많은 에너지와 자원의 공급을 필요로 하고, 이들 정부 국영기업과 방위산업체, 민간기업 사이의 네트워크를 통해 산업적 연관을 가진다. 또한 국방 및 안보의 산업화에는 민간의 사회적 단체들도 광범위하게 연계된다는 점에서 ‘산업적인 것’(the industrial)이다.

넷째, 무기는 관리 조직과 운영시스템, 대규모 군 관리 인력, 주둔지 및 인공물, 법적 근거(방위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와 제도, 여론과 사회적 합의, 입법 절차 등을 요구한다. 또한 무기와 관련된 기술, 조직, 관리의 기법은 군수와 상업적 활용을 오가며 군과 사회를 연결한다. ‘사회적인 것’(the social)과의 결합을 통해 구체화된다.

다섯째, 무기는 국내의 정치적 과정과 이해관계를 대변하며, 협정문, 합의서, 구매계약서 등의 형태나 합동 군사훈련을 통해 동맹과 외교 관계를 매개하거나 분쟁과 긴장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는 점에서 ‘정치적인 것’(the political)이다.

마지막으로 무기는 그 도입·생산·유지의 과정 및 조직화를 통해 사회와 다양한 상호작용을 한다. 조직문화, 관리시스템 및 기술의 사회적 적용, 안보 담론과 상징의 생산, 국가 정체성의 형성 등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문화적인 것’(the cultural)인 것이다.

다시 말해 무기는 기술적인 것, 경제적인 것, 산업적인 것, 사회적인 것, 정치적인 것, 문화적인 것 등이 결합된(collective) 사회-기술적 시스템(socio-technical system)인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무기는 국가 또는 국가 사이에 거대한 사회-기술적 시스템을 구성하는 행위체라고 할 수 있다.

무기라는 사회-기술적 시스템의 거대기계(megamachine)⁹²⁾는 그 자체의 방법과 철학, 그리고 종교를 지닌 기술숭배주의와 관료주의, 지정학적 인식과 담론의 결합을 통해 작동한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제어불가능하고 정복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런 측면에서 무기를 사회적 관계(social relations), 이해(interests), 그리고 정체성들(identities)의 그물망 내부에 묻혀(embedded) 있는 사회적 행위체로서 인식할 필요가 있다.⁹³⁾ 성공적인 사회-기술적 시스템은 이질적인 동맹군들(인간-비인간의 행위자-네트워크)의 다양한 배열을 만들고 유지하는 거대한 연합(coalition)이 다양한 상식, 기준, 표준, 제도, 관습, 관행 등을 통해 세상을 특정한 방식으로 대변하며 번역을 수행할 때이다. 바로 이런 수행은 광범위한 사회적 지지와 안정성이란 외관을 갖는다. 집합적 정체성(Collective identities)은 '정상'(normal)으로 받아들여지는 기대들, 가치들 그리고 이미지들의 안정된 구성(component)에 기초하여 작동된다. 따라서 무기의 위협성을 제거한다는 것은 무기 자체의 감축이나 폐기로만 달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체성의 재편성, 이해관계를 생산하는 정치적, 문화적, 경제적 그리고 기술적 시스템의 해체를 요구한다. 물론 무기의 행위자-네트워크는 자동적으로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불안정하고 가변적인 것으로서 끊임없이 매끄러운 상식으로 남기 위해 번역을 수행한다.

그런 측면에서 냉전/탈냉전 및 분단체제를 무기의 사회-기술적 시스템이 갖는 행위성(agency)의 차원에서 이해해 볼 필요가 있다. 무기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행위성을 변화시키는 물질성(materiality)을 갖는 행위체라고 볼 수 있다. 무기는 확장과 이전을 통한 이동성(mobility)을 갖는 한편 그 보유 자체로 타인(타국)에 대한 영향력과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원격성(remoteness)을 갖는다. 또한 무기는 기술적인 것, 사회적인 것, 정치적인 것, 경제적인 것 등등 이질적인 것의 결합을 통해 실체와 효력을 갖게 된다는 점에서 혼종성(hybridity)을 가지며, 무기는 국가라는 영토성에 기초하여 적과 동맹을 구분하고 물리적·정치적·심리적 사정거리를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공간성

92) 뎀포드는 기술이 더 시스템 중심적이 되면 될수록, 그것은 점점 더 자율적이고 살아있는 것처럼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러한 기술은 인간의 통제로부터, 심지어 '기술과 경영 엘리트들'의 통제로부터도 벗어났으며, 과학기술의 제도와 관료적 기구를 흡수해서 '거대기술' 혹은 '거대기계(megamachine)'로 진화했다고 주장한다. Lewis Mumford, "Authoritarian and Democratic Technics," *Technology and Culture* 5(1964), 1-8, on p. 1, 5. Mumford, *The Myth of the Machine: I Technics and Human Development*(1964). Mumford의 megamachine에 대해서는 Mendelsohn, "Politics of Pessimism," pp. 167-170.

93) Nick Ritchie, Relinquishing nuclear weapons: identities, networks and British bomb, *International Affairs* 86: 2 (2010), p. 466.

(spatiality)을 갖는다. 무기의 사회-기술적 시스템은 이런 여러 성격이 총체화된 다양체(multiplicity)로 볼 수 있으며, 특정한 질서를 수행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무기의 사회-기술적 시스템이 갖는 이런 행위성이 (탈)냉전과 분단을 어떻게 수행하며 근대 국가가 화폐, 에너지, 식량, 자원, 기술, 통신 등의 물질-에너지의 기반 속에서 자신의 국가성(stateness)을 획득할 수 있다. 이 물질-에너지들은 상호 연계와 네트워크 속에서 국가의 생존과 지속성, 국가 사이의 관계를 만들어낸다. 세계 냉전체제 역시도 대립과 경쟁을 동력으로 삼아 양 진영으로 분할된 거대한 물질-에너지의 흐름체제 속에서 작동해 왔다고 볼 수 있다. 한반도 역시 냉전체제의 거대한 물질-에너지 흐름 속에서 상호 대립과 적대를 매개로 분단의 물질-에너지 흐름을 만들어 왔다.

지금까지 냉전/탈냉전은 자본주의체제와 사회주의체제의 이념적 대립, 미소로 대표되는 양 진영의 군사·외교적 대결과 긴장이라는 측면에서 이해돼 왔다. 상대적으로 국가의 경계를 넘나드는 식량, 에너지, 화폐, 무기, 기술, 정보 등 물질-에너지의 흐름과 엮임 등이 만들어내는 ‘관계들’을 통해 냉전/탈냉전의 물질적 기반, 동북아 및 한반도 분단, 남북한 사회를 인식하는 경우는 매우 미약했다. 특히 냉전이 상호 배타적 ‘이념’과 ‘무기’라는 두 축을 통해 작동했었다는 점에서 냉전의 국제사회를 이해하는 데 있어 ‘무기’라는 사회-기술적 시스템에 대한 이해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그것은 냉전/탈냉전, 그리고 한반도 분단의 실제적 기반을 이루는 것, 사회-기술적 네트워크의 리얼리티에 대한 주목을 의미한다. 지속시키고 있는가를 위상학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V. ‘국가안보’의 산업화와 사회-기술적 네트워크⁹⁴⁾

1. 안보 프레임의 네트워크와 수행성

분단의 사회-기술적 네트워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한반도 분단이 ‘안보’의 논리를 통해 프레임링(framing)되고 소비되는 방식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프레임(frame)은 단순히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의사소통에 대한 것만은 아니다. 그것은 실재(reality)를 이해하도록 해주며 때로는 우리가 실재라고 여기는 것을 창조하도록 해주는 심적 구조이다.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프레임을 무의식적으로 그리고 자동적으로 사용한

⁹⁴⁾ Wayne E. Baker, “The Social Structure of a National Securities Market”,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 89 No. 4

다. 프레임은 상식을 정의하고 인식의 틀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가령 미국 지도부를 통해 호명되었던 ‘악의 축’, ‘테러와의 전쟁’, ‘불량국가’, ‘대량살상무기’ 등의 표층 프레임(하위 프레임)은 도덕적 가치와 적대성 같은 감정 차원의 심층 프레임에 의존한다. 잘 구축된 프레임은 견고한 네트워크 형태를 띤다. 안보라는 프레임은 위협대상을 지목하고 그것을 호명하고 ‘안보 불안’, ‘국민정서’, ‘증시영향’, ‘추가도발’, ‘단호한 대응’ 등 다양한 프레임 은유 기제를 동원하여 대중의 공통적인 스키마를 자극, 프레임에 반응하도록 네트워크화하는 것을 통해 작동한다. 프레임은 하나의 이슈와 관계된 여러 사건들과 이미지들을 연결하여 의미를 부여하고 조직화하는 핵심적인 스토리라인을 구성하게 된다.

한편 안보 프레임은 단순히 해석의 틀을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수행적 차원을 갖는다. ‘안보’라는 화행(speech act)은 어떤 상황을 정의하고 위협적 미래를 지시하며 이에 대한 행동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수행적이다. 따라서 안보는 언어적 발화 자체로 현실 규정적이고 수행적인 것이 된다. 가령 안보는 북한의 위협을 정의하고 이에 대한 대응을 지시하고 수행하도록 한다. 물론 이런 언어적 수행은 곧 다양한 사회-기술적 실천으로 나타난다. 가령 성명서, 결의문, 합의문을 발표하고 군사 훈련을 하고 무기 도입 계약을 맺고 회담장의 ‘말’과 협정문으로 문서화된다. 한편 미디어를 통해 공개되는 ‘안보’ 이슈 관련 여론조사는 수치화된 통계의 이름으로 객관적 진술의 외양을 통해 현실을 지시하는 한편, 그 미디어 기술과 수치를 통해 안보 그 자체를 수행할 뿐만 아니라 미디어 수용자 모두에게 그래픽 도해와 재현을 통해 안보 불안을 알린다. 대중이 갖는 ‘침묵의 나선’(spiral of silence)⁹⁵⁾ 역시도 안보 수행의 결과로 볼 수 있다.

2. 안보 프레임의 물질성과 블랙박스

언어적 수행을 통해 무엇을 강조하거나 단순히 경계나 범주를 정해주는 것만으로 프레임이 작동하는 것은 아니다. 프레임은 물질성(materiality)을 갖는다. 각종 기호와 사물, 그리고 인간 등과 같은 상호 이질적인 행위자들(actors)을 배열·결합(assemblage)시키면서 구성된다. 가령 병원 프레임을 보자. 병원은 의사, 외과의사, 간호사, 병원장, 약사, 환자, 방문객, 접수원, 건물관리인 등 인간이라는 역할과 위계를 통해서만 구성되지 않는

⁹⁵⁾ 대중은 자신의 의견이 우세한 여론에 속하면 더 강하게 주장하지만, 열세에 속하면 ‘침묵’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이론이다. Elizabeth Noelle-Neumann, *The Spiral of Silence: Our Social Skin*, 2nd ed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3) 참조.

다. 수술실, 응급실, 회복실, 대기실, 입원실 등 물질화된 장소, 수술대, 외과용 칼, 붕대, 휠체어 등 도구, 수술, 체온과 혈압측정, 차트 점검, 배뇨통 비우기 등과 같은 관습적 행동 등이 연결되고 속성을 교환할 때 병원이라는 프레임이 가능해 진다. 다만 이들 다양한 행위자들의 결합은 ‘병원’이라는 상식으로 단순화돼 우리에게 인식될 뿐이다.

마찬가지로 안보 프레임의 구성은 역시 청와대, NSC, 국가안보실, 국방부, 외교부, 통일부, 국가정보원, 한미연합사령부, 주한미군, 언론사, 군대, 시민단체, 방위산업체 등과 같은 조직들, 관련 정책결정자 그룹, 행정 관료들, 군 관계자들, 언론 기자, 데스크, 군인, 로비스트, 국민 개개인 등과 같은 인간 행위자, 수많은 북한의 군사적 행동을 감지하는 군사 기술적 장비와 시스템들, 미디어 장비, 카메라, 인쇄 장치, 모든 집들의 TV 수상기, 스피커, 그래픽, 동영상 등과 같은 기술 장비 및 사물들, 그리고 법, 제도, 협정문, 성명서, 결의문, 합의서, 보도자료 등이 결합되어 상호 속성이 교환될 때 프레임은 작동하게 된다. 결국 프레임은 물질적이고 기호적인 성격을 가지며 담론과 비담론 영역 모두에 걸쳐 인간과 비인간 행위자들이 결합된 결과로서 나타난다. 다만 이런 결합과 구성과정이 접혀져 ‘안보’라는 이름으로 단순화돼 나타나날 때 안보 프레임은 하나의 블랙박스(black box)⁹⁶⁾가 되는 것이다.

안보 프레임은 복잡한 사회-기술적 연결을 생략한 채 ‘안보’라는 이름으로 세상을 해석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하나의 블랙박스화(black boxing)에 해당하며, 분단을 번역하는 수행적 네트워킹(performative networking)이라고 볼 수 있다. 그것은 안보 프레임을 구성하는 다양한 행위자들의 연결망, 그리고 안보라는 세계에서 펼쳐지는 수많은 네트워킹이 접혀 ‘안보’라는 하나의 단순하고 상식화된 사회적 진리의 형태로, 언어로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물론 프레임이든 블랙박스든 영원하지 않다. 언제든 찢겨지고 개봉돼 그 실체가 드러남으로써 상식의 지위에서 추락할 위험을 항상 갖는다.

블랙박스는 크게 두 가지 주요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 하나는 상식과 표준으로 주목을 적게 받고 무시될 때이다. 블랙박스는 다른 행위자들의 필수적인 통과 지점(OPP)이 되지 못하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 다른 행위자들이 블랙박스(상식, 표준, 경관)를 경유할 때 그것은 블랙박스로서의 존재 의의와 생명력을 갖는다. 그러나 그것이 무시된다는 것은 필수적인 통과 지점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거나 다른 것으로 대체 가능해 졌다는 것을 뜻한다. 가령 더 이상 사람들이 ‘안보’라는 것을 상식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때를 상

96) 블랙박스란 수많은 인간-비인간 행위자 사이의 연결의 접힘(folding) 또는 압축인데 그 상태가 믿어 의심치 않는 상식이나 표준, 사실로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상해 보라. 그리고 안보라는 것을 대체할 새로운 가치를 받아들일 때 안보라는 블랙박스는 소멸되기 마련이다. 다른 하나는 너무 많은 관심을 받는 것이다. 이런 관심이 믿어 의심치 않았던 상식을 의심하게 되는 관심일 경우, 블랙박스는 의심을 품은 사람들에 의해 찢겨져 개봉되어 초토화될 위험을 안게 된다.

가령 ‘신성한 안보’, ‘국방력 강화’라는 블랙박스가 어느 순간 특정 사건으로 군사기밀 누출, 수조 원의 예산 쟁탈전, 무기중개업체 및 로비스트, 관료들, 방산업체 연구원들 사이의 뇌물과 인맥, 동맹 속에 감춰진 무기 판매를 위한 압력 외교, 첨단무기에 대한 비합리적 정치 결정 등으로 점철된 것임이 드러나는 순간을 생각해 보라. 이들은 수많은 인간 행위자들은 물론 기술, 과학, 전투기 성능 검사서, 화폐, 협정문, 그래프, 견적서, 환율, 보안장치, 컴퓨터, 도청, 호텔, 뇌물, 동맹, 전시작전권, 의회 등의 비인간을 통해 접혀 있었던 블랙박스였던 것이다.⁹⁷⁾

그러나 한반도에서 안보라는 블랙박스는 좀 더 독특한 위상을 갖는다. 하나는 안보라는 블랙박스가 완전한 상식으로만 군림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가령 여러 사건의 형태로 안보라는 블랙박스에 의구심을 갖게 되는 일이 발생해도 개개인이 그것의 내부를 파헤친다는 것 자체의 힘겨움과 어려움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안보는 복잡한 네트워킹을 담고 있으며 때로 그것은 전문적인 기술과 과학, 그리고 관료적인 세계의 복잡성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도 쉽게 그 네트워킹을 추적하고 블랙박스를 개봉할 힘을 갖기 힘들다. 결국 안보라는 블랙박스는 그 자체로 완전히 매끄러운 상식으로 의문의 여지없이 존재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그 접근의 어려움으로 인해 상식으로 용인할 수밖에 없는 기밀로 묶여진 괴물이기도 하다.

다른 하나는 그것이 특정 사건으로 인해 일부 찢겨지고 개봉되어 실체가 일부분 드러나도 다시 분단의 상식 속으로 접혀지는 관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가령 안보 관련 사건은 그 진위 여부와 상관없이 수많은 온라인 대중 지성과 미디어들을 통해 찢겨지고 분해되고 재구성되기도 했지만, 다시 시간을 경과하면서 사회적 제의(social ritual)의 형태로 껴매어지고 봉합되면서 사회적 진실화되는 관성적 힘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분단사에서 발생했던 수많은 안보, 국방, 공안 관련 사건들이 그 실체에 접근하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시간의 경과하면서 하나의 상식과 진리로 자리 잡아 갔던 것을 기억해 보라.

97) Wayne E. Baker, "The Social Structure of a National Securities Market",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 89 No. 4

3. 안보의 다이어그램과 통치성

안보 프레임 속에는 안보라는 이름으로 작동하는 통치의 다이어그램(diagram)이 담겨져 있다. 이 다이어그램은 분단사회가 ‘안보’라는 논리를 어떻게 통치성(governmentality)으로 수렴하는가를 보여준다. 우선 안보는 보수·진보를 막론하고 근본적 가치로서 호명된다. 그것의 핵심은 ‘힘을 통해 보호를 제공하는 것’이다. 따라서 안보는 힘을 통해 보호되어야 할 내부와 위협의 대상인 외부로 규정한다. 즉, 내·외부를 나누고 외부의 적을 실재화하고 이에 대항한 안보를 주장한다. 이런 외부 위협에 대응해 다양한 군사적 무기, 물질적 감시체계, 제도적 장치들, 정치적 과정이 영토적 공간과 사회적 공간을 가로지르며 배치·배열되고 조립된다.

그러나 실제로 안보는 외부만을 향하지 않는다. 안보는 또한 통치 기술 차원에서 내부를 감시·통제하는 메커니즘을 동시에 획득한다. 그것의 명분은 외부의 위협이 내부로 침투하여 오염시키거나 파괴를 행할 수 있다는 데 있다. 안보는 ‘공안’, ‘보안’의 이름으로 내부에 대한 감시 질서를 만들어낸다. 물론 그 질서는 사회-기술적 체계를 동반한다. 안보의 산업화 역시도 수행된다. 외부로 향해야 하는 안보가 내부에 대한 감시·통제 역시도 수행하고 있음에 대해 국민들은 그것을 용인하고 자기 규율을 일상화한다. 내부에 대한 감시·통제라는 명분으로 안보라는 필터가 끼워지고 그 필터를 통해 안보의 환타지들이 만들어진 결과이기도 하다. 안보를 통한 자기 규율화는 내부의 적을 경계하고 자신이 그 내부의 적이 되지 않기 위해 자기 검열을 행하는 것이다. 안보를 통한 통치, 일상을 지배하는 원격작용(action at a distance)⁹⁸⁾이 구축되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통치 다이어그램을 통해 안보가 갖는 위상학(topology)을 파악할 수 있다. 결국 안보는 표면적으로 공동체 외부의 적을 막기 위해 근본적 가치로 호명되고, 내외부의 경계를 정하고 내부에는 통치 목적의 감시와 통제를, 외부로 향해서는 위협과 경계를 행한다. 이런 안보를 통한 통치 다이어그램은 일반적으로 모든 사회에서 나타난다. 그러나 분단사회에서 이런 다이어그램은 보다 광범위한 사회-기술적 체계와의 연결을 통해 사회 전반에 대한 통치로 나타나고 수행된다. 푸코의 통치 다이어그램과 비교한다면 ‘안보’는 하나의 이성으로서 우리의 내면과 일상, 사회를 지배하는 중앙감시탑과

⁹⁸⁾ 원격작용(action at a distance)은 ANT에서 물리적으로 멀고 가까움에 상관없이 어떤 상식과 표준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행위자들을 조정하고 움직이게 하는 것이다. 원격작용에 대해서는, Graham Harman, *Prince of Nature: Bruno Latour and Metaphysics* (Melbourne: Re. Press, 2009), pp. 47-55.

같은 판옵티콘(panopticon)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안보 프레임을 통해 화행되는(speech acting) 분단 서사(narrative)는 비정상적 타자를 재생산하면서 이면에 존재하는 많은 분단의 사회-기술적 네트워킹과 사회-물질적 과정을 블랙박스화한다. 지금까지 한반도 위기에 대한 인식은 주로 표면화되는 현상적 이미지를 특정 프레임을 통해 서사하는 방식으로 작동해 왔다. 그 이면에 존재하는 사회-기술적 시스템 또는 연결망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 68년 가까운 분단 역사는 수많은 분단의 사회-기술적, 사회-물질적 네트워크들이 건설되고 소멸하고 생성되는 반복적 과정이기도 했다. 분단의 사회-기술적 네트워크 구축과정은 인간과 비인간의 끊임없는 속성 교환을 통해 거대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이자 단단한 결합을 통해 분단을 특정 프레임 속에 상식화하는 과정이기도 했다.

안보는 어떤 사건을 통해 드러남으로써 실패하는 번역조차 다시 사회적 진실로 자연화시키는(상식화시키는) 힘으로서의 장치(device; *dipositiif*)이기도 하다. ‘패턴화된 네트워크의 질서’(블랙박스, 번역)로서 하나의 기관이나 사회적 진실이 개봉되고 드러나서 블랙박스로서의 매력을 잃게 되고 번역이 실패하더라도 그것이 다시 다양하게 연결된 다른 블랙박스(행위자)를 통해 다시 밀봉되거나 사회적 진실화되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볼 수 있다. 분단사회는 이처럼 여러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블랙박스(행위자)의 결합 속에 있다. 하나의 블랙박스가 개봉되고 뜯겨졌다고 곧바로 번역의 능력, 행위성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다. 자동차가 고장 나 그 내연기관이 낱알이 드러나도 곧 우리는 다시 바로 고장 수리 이후 자동차라는 블랙박스를 일상 속에 받아들이는 것과 같다. 블랙박스는 완전히 무관심 속에 버려져도 너무 지나친 관심을 받아서도 안 된다. 적당한 관심과 긴장을 통해 사람들에게 그 존재를 알리는 것을 통해 유지된다. 이런 결합을 통해 총체적으로 분단을 번역하는 것을 장치라고 부를 수 있다. 장치는 곧 다양한 이질적 행위자들의 결합(배치, 조립, 조합, 하모니)을 만들어내는 아상블라주(assemblage)라고 할 수 있다.

VI. 결론

냉전과 탈냉전, 그리고 한반도 분단체제의 위상(topology)을 무기가 만들어내는 거대한 사회-기술적 시스템의 차원에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냉전/탈냉전 및 한반도 분단체제는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이념적 대결과 정치·외교적 담론 이면에 ‘무기’라는 보다 견고한 사회-기술적 시스템의 구축과 그것이 만들어 내는 물질-에너지의 흐름과 네트워

크를 통해 수행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무기는 분단을 수행하는(performing) 행위체(actor)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냉전/탈냉전 및 한반도 분단체제에 대한 이해는 주로 이념적·정치적 대결 구도와 안보라는 추상적 담론과 가시화된 사건사 차원에서 다뤄져 왔다. 무기라는 사회-기술적 시스템을 통해 한반도의 분단 지속 메커니즘과 냉전/탈냉전의 위상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① 무기가 ‘사회-기술적 시스템’으로서 갖는 위상을 기존 연구에 대한 검토와 함께 새롭게 개념화를 시도할 필요가 있으며, ② 무기가 냉전/탈냉전을 경유하며 거대한 사회-기술적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온 역사적 과정을 횡단국가적(transnational) 냉전사, 한반도 분단사라는 큰 틀에 입각해 무기의 기술사, 정치사, 사회경제사, 물질문화사의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③ 한반도에서 무기가 구체적으로 화폐, 에너지, 식량, 자원, 기술, 정보, 통신 등의 물질-에너지 흐름과 결합해 어떻게 사회-기술적 시스템을 구성해 왔는가를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④ 냉전/탈냉전 및 분단을 무기가 갖는 행위성(agency), 이동성(mobility), 혼종성(hybridity), 다중성(multiplicity), 공간성(spaciality), 물질성(materiality) 등의 차원에서 위상학적(topological)으로 재검토·재해석할 필요가 있다.

한편으로 무기의 사회-기술적 체계는 국가안보가 행하는 사회-기술적 과정과 함께 볼 필요가 있다. 국가안보의 산업화라는 측면과 함께 안보 담론이 갖는 수행성이다. 사회문화적 구성물로서 국가안보 언설이 전제하는 사고 체계는 타자에 대한 배타성이다. 절대적 가치로 간주되어온 ‘국가의 안보’가 실제로는 특정한 계층의 경험과 이해에 기반을 둔 임의적인 이데올로기이며 다른 사회적 가치와 논쟁 가능한, 상대화할 수 있는 세계관일 수 있음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한국사회에서 보수, 진보 양진영 모두 안보문제를 다루어온 방식은 국가주의이다. 국외는 폭력이 만연한 약육강식의 무정부 상태이고, 국내는 그러한 국제질서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안정과 질서의 공간이라는 안보 논리의 근본 가정은 국가라는 내부의 폭력적인 구조와 차별을 고려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국가 내부의 공/사 영역에 걸쳐 문화와 정상성이라는 이름의 일상적, 구조적 폭력에 시달린다. 그런 측면에서 군사주의(militarism)는 실제 전쟁에 임하는 군사적 목적과, 이와 상관없이 전쟁을 신봉하는 문화를 구분하기 위한 용어로 군사적 목적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전시보다 그렇지 않은 평화시에 더 극명하게 나타난다. 전쟁의 진정한 목적은, 또는 안보의 진정한 목적은 ‘진짜’ 정치를 탈정치화, 사소화 하기 위한 것인지도 모른다.



**욕망의 모노리스,
김정은 집권 10년
북한도시변화**



9 791169 891312
ISBN 979-11-6589-131-2

비매품/무료
93340

